



3

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3호

(루게 533)



## ◆◆◆◆◆◆◆◆◆◆ 차 례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부원의 공동축하문.....	4
왕성한 창작으로 신년사관철에 적극 이바지하자 .....	7
꺼지지 않은 우등불 .....	10
백두의 수리개 .....	11
김정일 .....	11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하시며 .....	12
해돋이 .....	14
명제해설 .....	19
복무자의 손 .....	20
영원한 봄날 (외 1 편) .....	21
사랑의 층계 .....	21
꿈많은 봄 .....	22
백두산에 새 장수 났다 .....	23
못참아 하고싶던 말 .....	26
봉화리의 령길 .....	27
청년전위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과업 .....	28

나는 즐겨 들꽃을 꺾었습니다.....	31
잊혀지지 않는 밤들 .....	32
그의 집 대문.....	42
어느 집이나 들려보고싶어 (외 1 편).....	51
동쪽길 .....	51
나를 부르네 .....	52
세월의 년륜속에 .....	53
평양아 인사를 받아다오 (외 1 편) .....	62
언제나 잊지 않으리 .....	62
사랑 (외 1 편) .....	63
박수를 치자 .....	64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의 공동축하문

##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시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지니고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은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격동적인 사변들과 심각한 변혁들을 겪으시면서 수십성상 정령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여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비상히 발전풍부화하신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그것을 우리 시대 지도사상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시였으며 수많은 새로운 사상과 리론들을 내놓으시여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우여곡절을 모르고 주체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 수있었으며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신심과 용기를 주는 고무적기치로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수행되며 당은 혁명의 주체의 중추를 이루는 향도적력량이라는것을 헤아리시고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모든 정력을 바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당사업 체계와 방법을 끊임없이 완성하시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지고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이룩된 혁명적동지애와 공산주의적의리에 기초한 통일단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당은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불패의 당으로 강화하신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위업앞에 세우신 특출한 공적으로 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십시오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져놓으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당에 자기이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밑에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이 땅우에 세워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사상리론을 천명하시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어 모든 사람들이 주체의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을 신념화하고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온 사회가 수령, 당, 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진 위대한 인민으로 자랑떨치게 된것은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공산주의적인간육성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전망을 펼치시고 대담한 작전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전당, 전민을 그 실현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하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위력을 파시하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은 일떠섬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어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적요구에 맞는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가장 정확한 사회주의문화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교육사업발전에서 획기적전변이 이룩되게 하시였으며 과학기술발전의 주체적인 로선을 밝히시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빠른 기간안에 세계수준에 올려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십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시고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온갖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보장받으면서 고르롭고 건전한 물질생활과 풍부한 문화정서생

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와 침여하게 대치되어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일찍부터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계승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돌려오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군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군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안의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우리의 혁명무력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워나가는 참다운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군사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과 전법을 더욱 발전시키시고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필승불패의 전투대오로 전변시키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안에 주체의 령도체계와 항일유격대식부대 지휘관리방법이 확립되고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높이 발양되어 주체의 혁명무력으로서의 우리 인민군대의 면모가 더욱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할수 있게 되였으며 일당백혁명무력으로서의 전투적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적령도자의 풍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정책을 세워도 인민의 요구와 념원에 맞게 세우시며 늘 인민대중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교락을 같이하시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이 올리는 소박한 말에서 힘을 얻으시며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을 창조하고계십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를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온 오랜 혁명전사들을 극진히 아끼고 육친의 정으로 보살피시며 젊은 일군들을 대담하게 믿고 혁명의 팔간으로 키워주시면서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돌려주고계십니다.

**김정일**동지의 동지적사랑과 배려 속에서 참된 삶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김정일**동지를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

쳐나가고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며 인민대중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철옹성같이 옹위하면서 굳게 단결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전통적인 투쟁기풍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인 방략을 제시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 **김정일**동지의 정확한 령도와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하나로 굳게 단합되고있으며 거의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고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오늘 7천만 겨레는 통일위업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는 신심과 희망에 넘쳐 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밑에 우리 당의 대외활동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전례없이 높이시였으며 자주, 기치를 높이 드시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일관하게 구현하고계시는 견결한 반제자주정신과 혁명적원칙성, 국제주의의 빛나는 모범으로 하여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

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과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로서,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끝없는 헌신성을 지니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조선혁명과 인민들의 자주위업앞에 빛나는 공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공적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 길이 전하여질것이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빛나게 완성하는 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고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수호하시면서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주체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이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조선혁명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끄떡없이 전진하며 승리하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한 어떤 준엄한 시련도 이겨낼수 있고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다는것은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체득한 드림없는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신뢰는 절대적인것이며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우리 혁명이 어떤 시련도 뚫고 백전백승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  
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1992년 2월 16일

## 왕성한 창작으로 신년사관철에 적극 이바지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빛나는 승리로 아로새겨야 할 이해에 우리 작가들앞에는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여 시대의 전진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를 새로운 대승리로 빛내이는데서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창작과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최상의 사상에술적수준에서 창작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진두에 모시고있기에 격변하는 복잡한 혁명정세속에서도 사소한 흔들림도 없이 오직 사회주의의 붉은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는 충신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작품마다 완벽한 사상에술적수준을 이르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창작하는 모든 수령형상작품들은 위대한 수령의 로속하고 세련된 전략전술적령도야말로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라는것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오랜 세월 피땀으로 쌓아올렸던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 하루아침에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고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도 어찌하여 우리 인민만은 단 한번의 로선상 오류도 없이 그 어떤 진통도 겪음이 없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를 계속 높이 울릴수 있었는가를 생활적으로 깊이 해명하는 여기에 바로 수령형상창조에 바쳐지는 문학작품의 형상적목적이 있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

하여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혁명의 간고한 로정마다에서 혁혁한 승리를 떨치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인민적수령으로서의 빛나는 귀감, 인간중의 가장 위대한 인간이시고 영웅중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간적품모를 보다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난에 찬 피바다를 헤치시며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해나가시던 항일혁명의 나날에도, 건국의 초행길을 걸으시던 나날에도, 전환의 그날과 전후복구의 그날에도 사회주의혁명의 대승리와 사회주의대건설으로 비약시키는 그날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 인민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웅적인 투쟁과 전진의 기상이 나래쳤고 온 세상사람들이 것처럼 부러워하는 위대한 승리가 마련되였다.

우리 작가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고 오늘은 백전로장으로서 온 세계 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의 정을 한몸에 모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한 품위있는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할수 있고 시대앞에 지닌 사명을 다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사건과 사실의 기계적인 전달이 아니라 품이 들고 사색이 깃들어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놓지않는 위력한 형상을 창조하는 여기에서 우리 작가들의 충성심이 발현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의 창작에서도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어야 하고 형상의 질적측면에서도 비약이 일어나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6 기 제 19 차전원회의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 크나큰 기쁨과 민족적영광을 받아안고 얼마나 가슴 설레었던가.

우리 작가들은 이 감격을 가슴깊이 새기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백두광명성에 대한 수많은 전설들을 낳으시며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품과 인격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어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인민모두를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추켜드시고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일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민적품모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통일거리 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를 힘있게 펼쳐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품모를 가장 품위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또한 로동계급의 근본리익, 사회주의의 숭고한 리념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확고한 원칙성과 철저한 리념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확고한 원칙성과 철저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심으로써 국제적 예상치 않았던 복잡한 사태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그 공격의 화살이 우리 나라에 집중되고있는 준엄한 오늘의 환경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전당, 전국, 전군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령도품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비범한 령군술과 백전백승의 전략전술로 전군의 간부화와 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도록 하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고 활동가이시다.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어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으며 온 나라는 그야말로 금성철벽으로 다져지고있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에 따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군사분야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

서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의 총적방향은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이라고 밝히주시었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이 총적방향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성과 현실적요구,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적전진을 계속해나가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침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이 더욱 철저히 구현되어 우리의 혁명대오가 정치사상적으로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더한층 강화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적문화가 온 사회에 차넘치는 혁신적품모들을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아야 한다.

올해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간절한 과업은 전력과 석탄 생산을 늘이고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될 전력, 석탄, 철도운수의 중요한 부문에 뛰어들어 그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문학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이 부문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그들의 가슴마다에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강한 충격을 안겨주는 작품들, 생활의 거울로 될수 있는 시대의 전형을 창조한 품위있는 문학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작가들도 전력과 석탄 생산을 늘이고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단단히 한몫을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경공업분야와 사회주의농촌, 살림집건설장들에도 깊이 침투하여 다양한 주제,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작품들을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실현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는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사회주의농촌의 생동한 반영을 통하여 우리 당이 올해를 대농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생활을 반영한 문학작품들에서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있는 생동한 생활들을 통하여 이 부문 로동계급들속에서 성장발전하는 아름다운 시대적전형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올해에도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는것만큼 청년건설자들과 군인건설자들 속에서 무수히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영웅적위훈을 담은 문학작품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락천적이고 랑만적인 성격들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인테리들의 새로운 성격을 창조하는데도 옹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의 새로운 전형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새형의 교육자들,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재능을 바쳐가고있는 새형의 인간들을 형상하는데서도 우리 문학은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기본원칙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정도적역할이 높아지고 당의 군중로선이 관철되어 당과 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모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는 생동한 모습을 통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형상적으로 강조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대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있는 시대적성격을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도 창작하여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매일수록 전체 인민이 더욱 굳게 단결하고 더욱 분발하여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것은 당과 함께 수많은 시련의 고비를 넘어온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혁명적기질이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이 자랑스러운 혁명적기질을 안고 우리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당의 정도를 충심으로 받들어나갈 때 우리에게는 극복못할 난관이 없고 절령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밝은 전망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조국통일주체의 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

성을 밝혀야 하며 조국통일에서 나서는 본질적문제들을 취급한 의의있는 형상들을 창조함으로써 이 주제창작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조국통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해서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 평화통일의 전체를 마련하는것임을 밝혀내야 하며,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따라서 온 민족은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있게 형상해내야 한다.

이 주체의 작품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애국애족적인 구호야말로 온 겨레가 굳게 뭉쳐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에 하는 민족대단결의 기치라는것을 각이한 형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사회주의불패성에 대한 진리를 밝히시였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다양한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자본주의는 필연코 멸망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현대제국주의와 야수적본성을 형상적으로 밝혀내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치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 세계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련대성,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과 평화옹호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반영한 작품의 창작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올해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창작과제는 참으로 방대하다.

그러나 주제적문제사상이 밝혀준 창작적지침이 있고 날마다 시간마다 전진하며 위훈을 창조하는 혁명적현실이 안겨주는 의의있는 이야기와 격동적인 시대와 생활이 펼쳐주는 무수한 소재들이 있다.

문제는 우리의 작가들이 현실공정의 열정을 안고 군중속에 들어가 체험을 깊이하며 높은 정치사상적안목을 가지고 시대의 본질적문제를 골라잡으며 탐구와 사색이 어린 높은 창작적기량을 가지고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는데 그 성과의 빛나는 담보가 있다.

모든 작가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마다에 다시금 새기고 누구나 다 시대의 명작, 걸작들을 창작함으로써 류레가 없는 풍작을 이룩하여 주제문학의 대화원을 더욱 찬란히 빛내야 할것이다.

# 꺼지지 않은 우등불

오필천

들끓는 흙갈이장 스치며 지나는  
별바람이 속삭여주나  
-어서들 오라구!  
속삭이며 내리고내리며 감도는  
눈송이가 전하여주나

못잊어  
오늘도 흙갈이장에 나설 때면  
밀차를 몰아 온 별이 끓던  
스무해전 바로 이 별  
신천벌의 흙갈이장 찾아주셨던  
수령님 영상 잊지를 못해

흘날리는 눈보라 기승대는 칼바람  
피더운 가슴으로 헤치며 날려버리며  
와와 끓으며 내닫던  
우리 모습 미더웁게 지켜보시며  
날씨가 차니 춥겠다고

이럴 땐 불을 피워 몸을 덥히면  
갑절 새힘이 솟는다시며  
논머리에 손수 우등불 지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던 수령님

내리는 눈송이도 녹이고

기승대던 찬바람도 잠재우며  
활활 타오르던 논머리의 우등불  
우리 마음을 덥히고  
심장의 붉은 피 끓게 한  
수령님 지펴주신 우등불

흙갈이로 땅을 더웁히고  
흙갈이로 땅을 살찌운  
농장벌에 해마다 풍년을 안아온  
만풍년의 우등불

아, 그날의 그 우등불  
대농의 해  
수령님 농촌구상 어서 꽃피우려  
온 나라가 흙갈이장에 떨쳐나선  
우리의 가슴들에 활활 타오르거니

아, 우등불 우등불  
아버이수령님은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눈내리는 흙갈이장에 계시여라  
그날의 꺼지지 않은 우등불을  
천만 가슴과 심장들에  
위훈의 횃불로 지펴주시며...  
만풍년의 노래로 새겨주시며...

## 백두의 수리개

### 아부둘라에 디알로

김일성 동지이시여!  
조국광복 안아오신 위인이시여!  
식민지통치의 암담하던 나날  
천리알길 내다보시는  
당신의 예지에서  
온 조선 희망을 키웠으니  
당신께선 정녕  
투사들에겐 라침판과 같은신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불사조마냥 나타나실 때마다  
원썬들의 대오 산산이 흩어져버림을  
  
오, 장군중의 장군이시여!  
북방의 무적의 수리개이시여!  
당신께서 계시기에  
대오는 언제나 승리의 개가 부를수 있었거니  
산악도 바위도 척척 옮기신분  
당신의 용맹무쌍한 기상 숭고한 품모  
사람들의 심장 고동치게 하고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거니  
당신의 가르치심은 보석과도 같은것

오, 시대의 위인이시여!  
너그러우셔도

원썬에겐 사자와 같이 무서운분  
당신의 숨결에  
조선의 기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높이 펴력이거니  
당신께선 그 사상의 자양분 안겨주신분  
근면한 조선인민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길로 이끌어오신  
분

오, 조선의 위대한 혁명가이시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위대한 뇌수이시여!  
암흑속에 헤매이던 3 세계인민들에게  
나아갈 길 밝히신분이시기에  
감사, 감사 또 감사 드리웁니다  
불세출의 수령이신

김일성 동지 당신께  
당신의 영웅주의와 예지로 하여  
사회주의의 선봉투사들은  
부풀어오르는 심정으로  
삼가 인사드리웁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당신께!

(※수리개는 프랑스어에서 용맹무쌍한 위인을  
가리킴)  
(필자는 기네주체사상문학연구소조 성원임)

## 김정일

### 비슈와나스

당신은  
위대한 아들  
세계를 고무하는 태양  
돌을 깨여 길을 닦는 사람도  
발을 가는 농민도  
당신에게서 고무를 받고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께선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나니  
당신은 조선의 녀  
당신은 피압박인민의 구세주  
당신은 인정과 덕성을 체현하시고

인민에게 헌신하시는  
사랑과 희망, 고무의 상징  
인민의 건강과 행복은  
당신의 첫째가는 관심사  
모든 가능성 찾아  
사소한것까지 보살피시는  
위대한분  
실천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확인하시였어라  
인도주의와 인류보다 더 위대한것 없음을  
(필자는 인디아시인임)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반 세기가 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더 잘 형상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하시며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왕성한 투지와 정열을 안고 창작에 달라붙었다.

항일투사들을 만나고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고 국가의 중요문서고들에서 자료취제도 충분히 한 그들은 흥분과 신심에 넘쳐 붓을 들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원고지를 몇장 번지지도 않았는데 손목이 굳어진듯 붓이 나가지 않았다. 한두 사람이 그런것도 아니고 전집단이 모두 그러했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붓을 놓고 작품의 구성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써오던 소설양상에는 도저히 옮겨놓을수 없는 너무도 방대하고 거창한 사적들과 심원한 사상으로 가득찬 전대미문의 위대한 력사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방도를 찾기 위하여 낮과 밤을 토론과 론쟁으로 이어갔다.

론쟁의 초점으로 된것은 전기식으로 쓰겠는가 일반소설처럼 쓰겠는가, 다른 작품들과의 통일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인류력사에 그 류례가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장구하고도 거창하고 격동에 넘친 혁명력사를 담을수 있는 소설형식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하나의 통줄거리로 엮어 수집편의 다부작장편 소설로 할것인가, 아니면 특징적인 개개의 장편 소설로 만들것인가, 이렇게도 구성해보고 저렇게도 토의를 거듭해보았으나 신통한 방도가 나설지 않았다.

수많은 고전작품들은 밤 밝혀 뒤지기도 하고 수많은 영화들도 보며 그 출로를 찾아 모대기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대장편으로 집대성하는것과 같은 이렇듯 거창한 창작사업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 작가도 해본 일이 없었고 따라서 어디에서 참고해볼만한 경험도 찾아낼수 없었다.

그렇다고 끊임없이 론쟁만 하고있을수는 없었

다.

우리 식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소설양상을 찾아야 하였다.

각이한 의견들과 주장들로 하여 형클어진 실꾸리처럼 뒤엎혔던 론쟁은 나중에 전기식으로 쓰느냐, 일반소설처럼 쓰느냐 하는 두가닥으로 갈라졌다.

전기식으로 쓰자는 주장은 방대한 혁명사적들을 력사년대기식으로 묶자는것이고 일반주제소설 쓰듯 하자는것은 해당 시기 사적가운데서 어느 한 측면만을 주제적으로 선택하여 쓰자는 주장이었다.

일장일단을 가진 두 주장은 시간만 허비할뿐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결국 처음 하는 일이다보니 저마끔 자기 주장대로 써보는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초고들이 썩여졌다.

여러편 쓰는가운데 혹시 기준으로 될만한 소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바란것은 허망한 기대였다.

전기식으로 쓴 소설은 방대한 사적의 년대기는 있으나 그 년대기를 관통하는 사상주제적인 기둥이 없었다.

일반주제소설 쓰듯 한 작품은 소설양상의 체모는 갖추었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거창한 폭과 심원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담지 못하였다.

그 하나의 실례로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을 형상한 한 장편소설 초고는 조선인류길학회, 반제청년동맹과 공산주의청년동맹 등 수많은 혁명조직들이 탄생하는 경위를 중심선으로 하여 년대기식으로 썩여졌다.

이렇게 하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당 년대에 조직전개하신 혁명투쟁 사적들과 업적들은 비교적 개괄되었으나 그것들을 통일하고 관통하는 사상주제적인 기둥은 서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한편의 완결된 장편소설의 형상적 체계와 문학작품으로서의 풍격과 체모를 갖추지 못하였다.

전집단이 이 작품의 수정대안을 세우는데 달라 붙었다.

그리하여 년대기형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가능한껏 주제적인 판통을 시도하는 개작구성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고 모두가 한가닥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마치 새로운 소설양상이라도 발견한듯한 심정이었다.

다른 소설 초고들도 그 작품에 기초하여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개작하여 다시 쓴 원고들중 어느 한편도 별로 좋아진 작품이 없었다.

이제는 논의할 밀친도 없었다. 저마끔 말은 작품을 이렇게 뒤집어 써보기도 하고 저렇게 번져서도 다듬어보았다.

어떤 작품은 네번, 다섯번 고쳐 썼다. 그러나 뚜렷한 전진은 볼수 없었다.

그러던 1971년 8월 23일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4.15문학창작단 사업을 친히 료해하시면서 작가들의 창작적고충을 환희 꿰뚫어보시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동안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이 창작을 추진하면서 논의를 많이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다, 무슨 일이나 실천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발전하는 법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는 문예작품창작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소설이라고 하시며 사색깊은 음성으로 인류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간고하고도 방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어떻게 소설문학에 옮기겠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수령님을 형상한 작품의 제목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창작방향과 관련되는 매우 신중한 문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력사를 대규모의 문학작품형식으로 만든 경험이 없기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새롭게 개척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몇권의 장편소설로 형상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므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시기로 나누어 매 시기별로 서로 다른 제목을 달아 다부작형식으로 만들수도 있고 수령님의 혁명력사 전부를 포괄하는 하나의 총제목안에 주제별로 혹은 시기별로 유일번호를 달아 나갈수도 있을것 같다고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하지만 수령님의 혁명력사의 위대성으로 보나 그 방대한 내용으로 보아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나의 총서형식으로 하면 매 장편소설들이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가슴이 확 열리게 하는 명철한 가르치심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사색을 모으시다가 열정에 넘쳐 총서제목으로는 《불멸의 력사》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장편소설 《1932년》뿐아니라 수령님을 형상한 다른 모든 장편소설들을 모두 총서《불멸의 력사》체계에 포괄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얼마나 명철하고 비범한 예지와 예술적천품이 빛나는 말씀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장편소설들을 수령님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에 상응하게 세계문학사상 전례가 없는 방대한 규모로 전일성과 체계성을 가진 총서형식으로 쓰되 여기에 속하는 매 장편소설들이 독자성과 특성을 가진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되게 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오직 총서형식으로 집대성함으로써만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그리고 심오하게 형상할수 있는것이다.

또한 총서형식으로 하는것은 매개 작품들이 총서체계안에 속하면서도 소설로서의 자기의 특성을 갖추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문학적인 감화력을 가지고 훌륭히 형상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주었다.

원래 하나의 체계에 의하여 씌여진 여러권의 장편소설묶음을 총서라고 한다.

인류문학사에는 총서라고 이름지은 몇개의 장편소설묶음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시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수령의 혁명투쟁력사를 총서에 담은적은 없었으며 그것을 구상조차 한 일도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총서형식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속에 전면적으로 재현할수 있는 소설형식이 새롭게 개척되었으며 우리 문학은 참다운 주체의 혁명문학으로 확고히 발전해나가게 되었다.

## 해돋이

김철

### 1

백두무변대지  
창창한 밀림이 이 노래 부른다  
불멸의 구호를 가슴헤쳐보이는  
아름드리 거목을 쳐다보면서  
백발의 로투사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친솔밑에서  
종합전술훈련을 하던 때였소

락하훈련, 무선통신  
도하, 상륙, 도시공격  
협동작전훈련들이 벌어지고있던  
1942년 2월의 하순

훈련기지에도 하루해가 저물어  
부대들의 병영은 고요속에 잠기고  
참모지휘성원들이 모여앉은 사령부  
그 창문만 환하던 밤이었소》

### 2

말발굽소리  
말발굽소리  
광막한 눈별판 먼 끝으로부터  
점점 가까와지는 말발굽소리

《셋, 누구야?》  
《나다, 나!》  
말우에 허리굽힌 갱뽕한 기수는  
부대가 다 아는 별동대장 안길

길길이 뛰여오르며 허공을 차는 말은  
허연 입김을 뿜어올리며  
금시 숨이 끊어질듯 자갈을 씹는데  
사령부에서 마주달려나온 사람  
그는 혈기 펄펄 끓는 지휘원 강건

《무슨 일로 왔소? 사전력락도 없이》  
《소릴 낮추오,

사령관동지에게도 아직은<비밀>이요》  
《뭐라구? 사령관동지에게도?》  
《그렇소.  
우리들끼리 먼저...》  
《동무하구 나하구?》  
《최현, 김일, 그리구 정치위원동지도》

### 3

지휘원들을 다 돌려보내신후  
털외투를 가볍게 걸치시고서  
사령부 나무층계를 내려서시던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동지  
아직 물켜서있는 그들을 보셨어라

《무슨 일들이요?  
안길동문 왜 여기 나타났고?》

그러자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앞에  
정보로 다가서는 별동대의 대장  
《백두산에서 통신원이 왔습니다!》

《백두산에서?  
어디 있소?》  
《어린 녀동무가 너무도 지쳤기에  
우리 훈련장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것이 그가 가지고 온  
국내공작파견원들과 소부대들의 보고인데  
사령관동지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다른 문제가 또 있다 합니다.》

《그렇단 말이지...》  
손에 받아드신것을  
전지불로 한동안 비쳐보시고  
다시 시선을 드시는 사령관동지

《그래 그 녀대원은  
백두산밀영을 언제 떠나왔담디까?》  
《16일 아침...  
그러니 밤낮이 따로 없이...》

《정말 그랬겠소  
나에게만 해야 할 말이 또 있다면  
내가 그에게로 가야겠구만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리하셔야...》  
《저희들도 함께 가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훈련총화는 다 지었고  
대원들은 깊이 잠들었는데  
사령관동지 혼자서야 어떻게?》

《안길동무가 있지 않소?》  
《안됩니다, 전 너무...》  
《하아- 안길이도 이런 때가 있었는가?》

그러자 썩 앞에 나서신 다부진 지휘원  
《사령관동지, 저는 왜 못보시고  
김일이 이 사람은 왜 못보십니까》

《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달까지 저렇게 환한데  
백두산소식을 어떻게 알아서만 기다리겠습니까》

《동무들이 오늘은 정말 별스럽소  
그래 정치위원동무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경마로 달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경마라...  
참 희한한 발기까지 하는구만.  
헌데 경마라면 승부내긴데  
뭘 걸구 한다?》

이때라 다시 나서는 최현  
《카- 하는거라두 이다면 제격인데》  
《하하하... 바로 동무한테  
그런 비상용이 있을상싶은데》

《아니 그럼 제가 뭐 질것 같습니까》  
《그럼 강건? 안길?》  
《아-니》  
《저희라고》

《하다면  
정치위원동무  
어차피 우리 두사람중에서

누구든 저야 할가봅니다》

《걱정마십쇼  
아무렴 사령관동지께서  
그런 곤경에 빠지게 되신데도  
제가 어찌 모르는척 하겠습니까  
<조선총독>에게 령을 내려서라두  
기어이 가져오게 해야 합지요》

《하하하...  
걸작이요,  
그러나<조선총독>이 아니라 도표대본영  
직바로 천황에게 내려먹여야지요

좋습니다!  
합시다!  
백두산소식에 카- 하는것이라!》

#### 4

오오- 광야여 광야  
달빛 넘쳐흐르는 눈벌판이여  
눈바람도 휘-휘- 뺨에 뜨거운  
이 길이 백두산밀영까지 곧장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더 좋으랴

룡마바위여, 장검바위여, 해돋이바위여  
귀틀집 뒤에 솟은 장엄한 봉우리여  
지금도 더운 김 피워올리며  
노래하듯 흐르고있을 소백수물이여

그 물에 목 추기고  
그 트랙에 들어서서  
아-그 트랙에 들어서서...  
소리쳐 웨치고싶구나 춤을 추고싶구나!

군마들을 몰아몰아 앞다투어 달리는  
기수들의 심정은 이러한데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째서인지  
그 마음 사뭇 밝고 흥겨우시여

백두산석은  
마도진이요  
두만강수는  
음마무라...

옛무인이 썼다는 시 한수 읊으시며  
슬렁슬렁 백마 몰아 뒤따라가시여라

하여 이제는  
경마의 목적지자 통신원이 기다린다는  
도화훈련장 밋밋한 강둑이 저기 보이는데

이 무슨 일인가  
와 달려나오며  
백마의 고삐를 틀어잡는  
경마의 승리자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를 안아내리우며  
또 이 무슨 뜻밖의 행동들인가  
영차! 영차!  
높이 들어올리는구나, 들어올리는구나

《경마값이 아니오-》  
《생남력이요-》  
《백두산에 광명성 태어났다고-》

아!-  
20년대 그 봄날 송화강가에서  
<성주!><성주!>웨쳐 부르며  
이 나라의 혁명전위들이  
태양으로 받들어올리었던  
열의인, 정의인, 의의인이신분

오늘은 그분의 계승자를 맞이한  
그 기쁨 참을길 바이없어  
40년대의 장군들이  
부들켜 안고안고 눈무지에 덩굴거니

허락하시라  
나무러워마시라  
인간중의 인간이신  
위대한분이니시여  
우리 뺨을 적신것이  
하늘나라 멀리서 내린 물이 아니라  
당신께서 부어주신 그 눈물인데!

통신원 너대원이  
제 한몸 내던지듯  
막아드리지 아니했던들  
어찌할번했으랴  
사령관동지의 존귀한 몸에까지  
마구 들썩워질번한 차거운 눈물!

그 차거운것이  
뜨거운 김이 되어 오를 때까지

끝없이 끝없이 계속되었을  
사내대장부들의 열광의 포옹을!

## 5

이윽고 뒤따라온 한대의 말파리  
게서 조심스레 안아내리는것은  
언제 어디서 구해줬던것인가  
오지단지에 담아 뽕뽕 싸고싼  
희귀한 산골

통강냉이죽으로 첫끼니 에우시고  
쪽무이포단으로 아드님을 싸안으셨다는  
백두산의 어머니에게 삼가 보내려는  
이 나라 백성들의 소박한 정성

그래도 할바를 더 하지 못하는  
아프고도 애모쁜 그 마음들이  
혁명의 수령을 한가운데 모시고  
모닥불 두리에 빙 둘러앉았는데

손에 손마다 군용밥통뚜껑이며  
법랑식기들은 빠짐없이 들었건만  
아니될 말이다!

《총독》이나 《천황》 따위가 어찌  
이 축배잔에 감히  
그 어떤 다른것을 보탤수가 있으랴

조선의 하늘  
조선의 땅이  
수만년 간수하고 아껴두었던  
가장 정갈한 흰눈송이들을  
혁명의 우등불에 펄펄 끓이고  
거기에 붉어오는 노을빛을 더하였거니

핑!-  
눈굽을 적시는것을 어찌하지 못하시며  
상혈된 모습들을 살펴보시는  
아버이장군님의 깊은 심중-

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생사조차 모르는 처자들이 있고  
몇해를 두고두고 한대오에 살면서도



총포탄 울부짖는 그런 마당에서만  
얼핏 보고 헤어지는 애인들도 있거니

무엇을 위해 이들은  
그 모든 정은 다 잊은듯  
오로지 **김일성**, 나와 더불어  
천만리 피바다를 마다않는 것이며  
어찌하여 이들은 이 눈무지우에  
오늘의 이자리를 마련해놓고  
나를 끌어안고 울고웃는것인가!...

## 6

승엄한 정적이 잠시 깃든후  
백두밀영 너대원이 아뢰는 한마디

《장군님!  
지금 백두밀영에서는  
자제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장군님 분부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손에 들었던것을 내리운 사나이들  
너무도 기쁜김에 미쳐 생각못한바를  
이제야 뉘우치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주쳐다보는구나

《사령관동지!》  
《**김일성** 동지!》  
조용히 부르고는  
대답을 기다려 숨을 죽이는구나

다시 일어선 격정의 열파를  
그 큰 가슴에 깊이깊이 누르시며  
사랑하는 전사들을 다시 둘러보시는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

시선을 드시여 동남으로 멀리  
노을비낀 하늘가  
백두산이 솟아있고  
그 즐기줄기가 뻗어내린 조국을  
이윽도록 눈에 그려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시는구나

《나에겐 본래  
부친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지요  
그러나 김혁이란 차광수, 그 동무들이  
내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나는 이자리에서도  
그 이름으로 불리우니  
내가 김형직의 아들만이 아니었다는  
엄숙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백두산에서  
우리와 피줄을 이은 그 생명도  
혁명의 아들, 조국의 아들  
민족의 아들이며 인민의 아들이지  
김성주를 아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는 동무들에게...》

《사령관동지!-》  
《**김일성** 동지!-》  
《그럼 저희들이...》  
《저희들이 혁명의 요청  
조구가 민족, 인민의 념원으로  
자제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태양의 아들이시여  
태양의 대를 곧바로 이으시리라!》  
《바를 정!》  
《날일!》  
《정일!》  
《**김정일!**》

아!-  
열광의 웨침  
환희의 웨침에 떠받들리어  
해가 솟는다  
열정! 미래! 충정의 불덩어리!  
새날의 태양을 높이 우러러  
투사들, 전우들이 일제히 일어선다  
수령님의 두손을 겹으로, 겹겹으로 감싸잡는다

《동무들!

고맙소,

잊지 않겠소

정숙동무

**김정일**, 그도

잊지 않을것이요

잊지 않을것이요!》

그러자면 모두가 권총들을 빼든다

《들으라 조선아!》

《백두산에 광명성 태여났다!》

레총소리!

레총소리! 하늘을 울린다

《세계여 보아라!》

《이 나라에 대통운 다시 났다!》

레총아닌 축포!

축포소리 누리에 울려 퍼진다

《장수별 태양으로-》

《너장수별 모성으로-》

《자성은 광명성-》

《빛나라 만대에, 삼태성 만세!-》

아!-

레총소리-축포소리

삼천리를 떨친다

온 누리를 떨친다

## 7

달이 들고

별이 들고

하늘이 다 들은

산이 들고

강이 들고

광야와 밀림

누리가 다 들은 이 웨침을

어찌 듣지 못하였으랴

혁명군전사들이

우리 인민이

...그날 그 아침에 일어났건

거창하고 환희로운 파도를 안고

지동을 안고

삼천리가 설레고 누리가 밝아지며  
세기의 경사를 청사에 남겼더라

그날부터 그날부터

더욱 커진 날개를 어깨마다 달고

이 나라의 투사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왔고

백두의 줄기따라

남으로 남으로 줄달음쳐거니

그 자욱이 새겼더라

그 웨침이 새겼더라

이 땅에 뿌리내린 천만그루 수목들이

그 노래를 우리에게 전하고있다

후손만대에 전하는것이여라

## 8

백불의 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였다

허나

백두무변대지

창창한 밀림은 여전히 노래한다

우리 가슴가슴에서

노래는 이어지고 이어진다

백두산에 광명성

태여났다네

조선의 하늘에

태양성 떴다네

동포야 자랑하자

우리 광명성

만대에 빛나라

백두태양성

은하수빛 흘러간

길을 따라서

어서 빨리 보고싶은

백두성 찾아가자

조선아 자랑하라

우리 광명성

만대에 빛나라

백두태양성

아-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 김정일**

만대에 빛나라

우리 태양성

## 명제해설

《당의 훌륭한 조언자로 된다는것은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실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과 방도를 제기하는 당의 정열적인 사색가, 적극적인 활동가로 된다는것을 말합니다.》

###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명제에는 당의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우리 작가, 인테리들의 본분과 사명에 대한 깊이있는 해명이 주어져 있다.

작가, 인테리들은 언제나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 당이 의도하고 해결을 바라는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색하여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적극적인 활동가로 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의 울타리속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관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며 현실을 체험하고 창작적 사색과 탐구를 하는 전 과정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활동가정으로 되게 하여야 하며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도록 대중을 이끌어주는 선구자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당이 언제나 굳게 믿고 의거할수 있는 기둥감이 되어야 한다.

작가들은 특히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업을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드리고 현실을 구경하는 관망자로서가 아니라 주인다운 립장에서 당의 위업을 진심으로 보좌해주는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훌륭한 작가는 수령의 사업에 도움을 주며 또 수령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가장 깨끗하 랑심을 지니고 수령의 혁명위업수행을 충성과 효성으로 잘 보좌하며 모든 사람들을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에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다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 여기에 당의 훌륭한 조언자의 참다운 모습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작가, 인테리들을 훌륭한 조언자로 높이 내세워주시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작가, 인테리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으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최상의 높이에서 작가, 인테리들을 내세워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작가, 인테리들이 지닌 최대의 영예이며 특전이다.

우리 작가들이 당이 내세워준 최상의 높이에서 자기의 숭고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 그 해결책을 탐구하여야 한다.

작가, 인테리들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현실속에서 살고있다. 특히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근로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면서 생활을 체험하고 창작하는것을 창작의 법칙으로 삼고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현실속에 들어가야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고있으며 군중들의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제일 잘 알수 있다. 그리고 당정책이 정확히 관철되자면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겠는가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에게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할뿐아니라 현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당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사색하여 묘술을 찾아내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때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히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예리한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하며 모든 사회현실을 높은 정치적안목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실패를 당에 사실대로 제때에 보고하여야 하며 문제성있는 창발적인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 인테리들이 당의 훌륭한 조언자로 되자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민감하여야 하며 우리 로동당시대를 열렬히 공감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민감하게 체득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현실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책적견지에서 똑바로 보고 당정책을 자로 하여 재여보고 긍정과 부정을 옳게 식별할수 있다.

작가, 인테리들은 특히 우리 로동당시대를 뜨거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열렬히 공감하여야 한다. 로동당시대에 대한 뜨거운 긍정의 열정과 열렬한 공감이 없을 때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사색이 있을수 없으며 창발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 나올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 인테리들은 우리에게 가

장 존엄있는 자주적인 삶을 마련하여주고있는 로동당시대를 가장 열렬히 사랑하고 공감하여야 하며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야 한다.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로동당시대에 대한 열렬한 공감은 우리 시대를 뜨겁게 긍정하는 작품, 우리 시대가 낳은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언제나 긍정적주인공의 대를 굳건히 세우고 모든 작품들에 우리 시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워나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작가들이 당의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 참된 길이 있다.

## 복무자의 손

-정춘실경험토론회에 참가하여-

박룡철

온 나라를 불러준  
경험토론회 앞서  
마주잡은 손입니다  
온 마음으로 감싸잡은 손입니다

굽직굽직한 손마디  
장알진 손바닥  
분명 너자손이라 볼수 없는 손  
아직 영웅은 말하지 않았어도  
걸어온 길 다 이야기해주는 손입니다

저 손을 어찌 손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저 손은 애어린 17살꽃나이에  
식솔많은 한가정 말아선 주부처럼  
《우리가정수첩》갈피갈피에  
마을의 밝은 웃음 담아온 그 마음입니다

저 손은 아들딸 결혼잔치  
밤새워 마련해가는 어머니처럼  
무릎치는 눈보라 헤쳐가  
한 영예군인 가슴에  
색깔고운례장갑 안겨준 그 심정입니다

자나깨나  
낮이나 밤이나  
나라의 살림  
인민의 행복 꽃피워온  
보배손입니다

아, 우리 수령님  
인민 위한 길에 이끌어주시고  
우리 지도자동지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뜨겁게 잡아주신 손입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축복의 손  
무궁번영할 조국이 기억하고  
어머니당 은정속에 길이 빛날 손입니다  
잡기조차 서슴어지는 영웅의 손입니다

참된 복무자의 손  
허리굽혀 잡았어도 쳐다보는  
나의 량심을 비취주며  
쳐다보이는 거울입니다

## 영원한 봄날 외 1 편

리정술

날들이 흘러갑니다  
달들이 지나갑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그 몇해째  
창밖엔 눈이 내렸습니다  
그 몇해째  
창밖엔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하건만  
내 마음속 창문을 열어보면  
눈오는 날이 없습니다  
찬비 내리는 날이 없습니다

동지설달에도  
내 마음속엔  
친애하는 그이를 만나뵈운  
그 봄날의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단풍이 타는 날에도  
내 마음속엔  
환히 웃으시던 그이의 미소가

봄빛으로 젖어있습니다

아, 우리들의 손 뜨겁게 잡으시고  
영원한 동행자로 불러주시던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넉친 그 봄날이  
내 마음속에 영원한 봄을 남겨놓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면  
그 봄날이 움트워준것입니다  
행복과 영광이 나에게 있다면  
그 봄날이 꽃피워준것입니다

세월은 내 머리우에  
흰서리를 더해주며 가고가건만  
내 언제나 그 봄을 안고살기에  
내 마음은 그날처럼 젊어있습니다

아, 세월은 가도  
내 마음속엔  
세월이 멎어있습니다  
그날엔  
꽃피던 그 봄날에...

## 사랑의 층계

내 평생 그렇게도  
간절히 오르고싶어  
한단... 두단...  
늘 마음속에 세여보던 층계를  
그날엔 내 어이 쉽게 올랐던가

조용히 눈 감으면  
지금도 눈에 삼삼 어러오는  
잊지 못할 층계  
친애하는 그이의 자욱이 어린  
붉은 주단이 깔린 그 층계

죄스럽구나  
두손을 모아  
쫓아보고 어루만지며  
내 작은 발자욱 옮겨야 할 그 층계를  
너무도 쉽게 뛰어오른것이

죄스럽구나  
내 유년기로부터  
귀밀머리 희여지는 오늘까지  
먼곳에서만 간절히 그려보던 그 층계를

그리도 쉽게 날아오른것이...

이날을 기다려온 나의 한생  
아마도 그 한해한해의 세월들이  
그 총계의 한단 또 한단과  
맞먹을것이리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모든것을  
그이 계신곳에 맡기고  
따르며 받들어온 천리마리길이  
아마도 그 한단 또 한단과 맞먹을것이리

허나 사람들이여  
나를 탓하지 마시라

내 너무도 쉽게  
사랑의 그 총계를 올랐다고

아, 위대한 향도의 손길이  
어서오라 부르고  
위대한 향도의 빛발이  
거대한 인력으로  
수천만 전사들을 끌어당기는곳

그 누구나  
그 총계앞에 서면  
십년 이십년 세월을  
한순간에 뛰어넘으리  
한순간에 날아넘으리

## 꿈많은 봄

로성렬

날거리가 좋은걸 보라  
하늘은 거울같이 건듯 들렸다  
꿈에 젖은 종다리의 봄노래  
아지랑이 타고 중천에 떴구나  
봄빛에 물든 처녀들의 웃음소리  
안개발 들치며 벌판에 구은다

산에도 들에도  
넘치는 봄내 봄내...  
대농의 올해 꿈많은 이봄  
봄이 한창 무르익었다

술술 바람결에 내가의 백양은  
아지를 흔들어 새순 키우고  
장평이 까투리 찾는 언덕우에는  
새풀이 배부른 젖소무리  
송아지와 고개저으며 속삭이누나

흙갈이 포단밀에  
겨우내 단잠자던 땅  
보습날에 이랑이랑 풀어헤치는  
저 살진 가슴을 좀 보라  
땅도 꿈에 부풀어 단김을 뽐는다

랭상모판 순희야  
물초롱 떨굴라  
꿈에 취해 귀방울이 다 붉었구나

가을엔 옷마을 농산기사 그 총각 맞아  
새집에 풍년깨를 실컷 쏟으려마

어히, 별스럽다  
이봄따라  
이일 저일 여기저기에  
모두 참네하고싶으니  
아마 나도 봄꿈에 취한가부다

좋은 때로다  
땅처럼 말없는 진정을 쏟아  
겨우내 앞당겨온 봄  
흙을 비벼보아라  
흙갈이로 기름진 땅이 다 안다

봄, 봄이 익었다  
웃음소리, 노래소리, 트락또르소리  
풍년가을 차비에 한껏 부풀었다  
넓은 들 끝까지  
설레이며 파도칠 금나락, 꿈나락  
땅이 꺼지도록 영글릴 잡도리다

그렇다! 이봄은  
휘황한 농촌테제 꽃피워가는  
농민의 순박한 꿈이 익힌거다  
산에 들에  
절령절령...  
말못할 나의 기쁨이 한껏 무르녹은거다

## 백두산에 새 장수 났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김일성** 장군님을 추격하던 왜놈들앞에 난데없이 커다란 호수가 생겨나 앞길을 가로막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필유곡절이라 갑자기 생겨난 이 호수는 변화무쌍한 술법을 지니신 장군님께서 조화를 부리신게 아닐까.

왜놈들을 몰살시키신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감사의 마음은 지금도 이 푸른 늪가에 연연히 맴돌아 찾는 이들의 감회를 새롭게 한다.

백두산을 끼고있는 량강도 삼지연군에 가면 푸른 숲 우거진 밀림속에서 세계의 큰못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호수들을 찾아볼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지방에 가면 호수와 관련한 전설들이 많이 돌고있다.

늪은 수달이 명주실을 발목에 매고 못속으로 들어갔다는 별치암전설은 말할것도 없고 아흔아홉선녀가 내려와 천지에서 목욕을 하였다는 전설도 실은 호수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런가 하면 무두봉가까이 인적이 없는곳에서 까만 벽돌과 기와무지가 나타났는데 이 유적과 관련한 신무성전설도 원지라는 호수와 얽혀져있다.

또한 항일의 나날 이곳 인민들이 창조한 전설들 가운데서도 호수이야기가 적지 않다.

이처럼 그 많은 못들마다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제나름의 전설이 있어 그것을 새겨보노라면 호수마다 무심히 대할수 없는것이다.

압록강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깊은 산속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있다.

왜놈들이 망하던 바로 그해 봄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

백두산에서 가까운 수림속에는 왜놈국경수비대가 등지를 틀고있었다.

어느날 수비대 대장 기무라는 제놈의 상관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잔뜩 불이 부어 썩썩거리고있었다. 전화를 받을 땐 나무막대기처럼 꺾꽂이 서서 《핫, 핫》하고 대답만 하더니 수화기를 놓자마자 두덜했다.

《뭐? 내가 머저리라구? 그럼 전 뭐야? 동신같은게. 여기 형편은 알지두 못하구 제가 여기와서 한번 내자리에 앉아보래, 제목숨 하나도 건사하지 못할걸, 흥.》

종로에서 매를 맞고 한강에 가서 눈흘기는 격이다.

기무라는 생각할수록 부아통이 터지는지 안절부절못하고 의자에서 벌떡 이러나 방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개미 한마리 얼씬 못하게 물샅틈없는 경비진을 뒀으나 항일유격대가 제마음대로 압록강을 넘나들며 왜놈들의 숨통을 조이는바람에 기무라는 매일같이 귀가 찢히게 욕을 먹었던것이다.

그러나 어찌한단말인가? 어떻게 제놈들이 축지, 승천입지, 변신, 둔갑장신, 본신도 마음대로 하시는 **김일성** 장군님을 당해내겠는가.

기무라는 분하고 억울하기만 하였다.

기무라는 소시적부터 한다하는 싸움꾼이고 머리고 뺨이처럼 잘 돌아 무슨 일에서나 제노라고 뽐내는 위인이였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항일유격대한테 꼴탕을 먹고 머저리라는 말까지 듣다나니 안달이 나서 죽을 지경이였다.

기무라가 수비대 대장으로 온지는 일곱해째가 되였다.

기무라의 선임자들은 반년도 못되어 황천객이 되였거나 일이 잘되는 경우라야 철직되어 쫓겨나 군하여는데 그래도 일곱해나 그자리에 붙어있다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무라는 그동안 앞뒤를 잘 발라맞추고 퇴물을 찢러넣고 줄병들을 북아대어 운명을 용케도 유지해왔는데 얼마전에 그만 일이 터지고말았다.

북선과 만주의 치안상황을 알오보기 위해 대본영에서 파견한 검열관이 돌아치다가 기무라수비대에까지 찾아왔던것이다.

검열관은 밀림속에서 나무에 쓴 글을 발견하였는데 내용인즉 **김일성** 장군이 총출동명령을 내려 조선독립이 멀지 않았다는것과 백두산에 광명성이 솟았다는 경이적인 소식이었다.

《뭐? 광명성이 솟았다구?》

검열관은 덴겁을 하였다.

백두산에 장군별이 뜨자 《대일본제국》이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는데 광명성이 또 솟았은즉 인젠 틀림없이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강하게 쳤다.

검열관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주춤주춤 뒤걸음질을 치더니 병영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제야 안도의 숨을 후-쉬고난 검열관은 기무라를 닦아세웠다.

《기무라, 당신과 당신의 병사들은 모두 청맹과

니들인가? 눈이 뜰자리가 아닌이상 코앞에 있는 저 구호도 못보는가? 모조리 저 나무들을 찍어버리라.》

기무라는 졸병들을 내몰아 구호나무들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구호나무들은 찍으면 찍을수록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는것이였다.

얼마동안 역사질을 해서야 겨우 주변에 있는 구호나무들을 찍었다.

검열관이 간 뒤 기무라에게는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겼다.

상관들은 무서워서 내려오지는 못하고 전화질만 자꾸 해댔다.

또 전화종소리가 따르릉하고 귀따갑게 방안을 울렸다.

기무라는 전화종소리가 울리자 흠칫 놀랐다.

그만큼 전화소리는 그에게 전율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수화기를 드니 왜가리청이 고막을 때렸다.

기무라는 이마에서 땀을 문지르며 《앗, 앓》하고 연거퍼 대답만하였다.

이윽고 전화가 끝나자 기무라는 목깃단추를 풀어헤치고 뚱뚱한 몸을 안락의자에 맡겼다.

잠시나마 안정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불안하여 어찌할수 없었다.

자기의 운명이 알지 못할 깊은 심연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의식에서 좀처럼 벗어날수가 없었던것이다.

이때였다.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드릉 드릉 흔들렸다.

기무라는 지진세례를 많이 받고사는 일본인의 본능으로 얼핏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진동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렸다.

(지진이로구나!)

기무라는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또 쿵쿵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데가 있었다.

지진이라면 왜 쿵쿵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겠는가?

이것은 마치 팽창히 큰 망치로 땅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기무라의 머리엔 한가지 생각이 피뚝 떠올랐다.

이때 방안으로 보초병이 황급히 뛰어들었다.

《지지... 지진이...》

이놈은 너무도 당황하여 말끝을 못맺었다.

그러나 기무라의 입가엔 일순 희심의 미소가 스쳐지나갔다.

《빨리 다 모이게 하라,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 총출동이다!》

졸병들은 어안이 빙빙해졌다.

(지진이 이는데 김일성장군이 나타나다니?)

기무라는 쿵쿵소리가 울리는쪽으로 졸병들을 내몰았다.

그는 밀정들을 통해들은 항간에서 떠도는 김일성장군에 대한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김일성장군은 기골이 장대하고 몸집이 우람한 장수이기때문에 걸을 때는 땅이 울린다는것이였다.

말을 탄 기무라는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는 졸병들을 마구 몰아댔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눈앞엔 해빛도 스며들지 않는 원시림만 우거졌을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도 않았다.

어느 등성이에 이르자 졸병들은 하나둘 땅에 풀썩풀썩 주저앉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큰대자로 누워 날 죽여주소 하고 눈들을 감고있었다.

기무라가 아무리 고아대고 꿈쩍하지 않았다.

그는 쌍안경으로 땅이 울리는쪽을 바라보았다.

《저쪽이다!》

기무라는 목이 터지게 소리쳤다.

높은 산등성이로 체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스적스적 걸어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던것이다.

그는 권총을 뽑아 허공에 대고 땅! 하고 한방 쏘더니 《김일성장군이 나타났다!》하고 소리쳤다.

《어디?》

《어디야?》

그제야 죽은듯이 누워있던 왜놈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고 목을 빼들었다. 놈들은 김일성장군님을 추격하려는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유명한 장군을 한번 보기만이라도 하려는 충동이 일어났던것이다.

아무리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맨눈엔 보이지 않았다.

《저쪽이다!》

기무라는 칼을 빼들고 졸병들을 내몰았다.

골짜기를 지나 높은 산 하나를 넘으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수가 없었다.

이때 또 쿵쿵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다.

소리나는쪽으로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 얼친데 덮치는 격으로 왜놈들앞에 난데없는 호수가 막아나섰다.

《여기엔 호수가 없었는데...》

이고장지형을 손금보듯하는 기무라는 혹시 제가 착각이라도 했는가 하여 1 대 5 만 군용지도를 펴들었다.

군용지도에도 이 호수는 기입되어있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 호수가 갑자기 생겨났단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는 사이 졸병들은 호수가로 달려가 넉적 없디여 물을 꿀꺽꿀꺽 마시였다.



물안에 비긴 제놈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였다. 한놈이 물안에 침병 뛰어들어 미역을 감았다. 그러자 너도나도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어 어루어루하며 물장난을 치고 자맥질을 하면서 좋아라 떠들어댔다.

왜놈들은 모든것을 까맣게 잊고 마치 미역을 감으러 일부러 여기 호수가로 찾아온듯 싶었다.

이런 모양을 어이없이 내려다보고있던 기무라는 또다시 권총을 빼들고

《모두 미쳤는가? 호수를 빨리 건느라!》하고 소리쳤다.

호수량안은 아찔하게 높이 솟은 절벽이어서 여기를 건느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놈들은 비실비실 쫓겨 한데 모여 호수를 건느려고 하였다. 왜놈들이 몇걸음 더 호수안으로 깊이 들어가자 모두 물속에 빠지고말았다.

호수가 몇길이나 되게 깊었던것이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솟구치지 못하는 놈들도 적지 않았다.

할수없이 기무라는 나무를 찍어 떠다리를 놓으라고 명령하였다. 왜놈들은 밀림속에서 나무를 찍어내어 떠다리를 놓기 시작하였다.

절반쯤 떠다리를 놓았을 때였다.

갑자기 저쪽 숲언저리에서 바람통이 터져나왔다. 삽시에 호수는 받처럼 격랑을 일으키며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떠다리를 놓았던 통나무들은 여기저기 호반우에 흩어졌다.

물기둥이 하늘높이 솟구치고 주변에 비말이 휘뿌렸다.

그런속에서 왜놈들은 머리만 내놓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며 허우적거렸다.

《사람 살리오!-》

《사람 살리오!-》

놈들의 어지러운 비명소리가 호수를 꼭 메웠다.

이때 비명소리와 파도소리를 누르며 우뢰같은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왔다.

《이 어리석은놈들아! 발자국에 고인물도 건느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보겠대구? 하하하. 이놈들! 이 무엄한놈들아!》

하늘에서 울리는 이 말을 듣자 기무라는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다.

줄병들을 수장한 기무라는 말을 몰아 제혼자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았다.

뒤산에 오른 기무라는 호수를 내려다보았다.

《영?》

기무라는 입천정에 지레대를 질러놓은것처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수가 신통히도 발자국처럼 생겼던것이다. 발

자국처럼 길죽하게 생긴 그 호수로 사방 골짜기에서 물이 팔팔 흘러들고있었다.

(그럼 저 호수는 **김일성**장군의 발자국자리에 고인 물이란 말인가? 내가 미쳤지, 저런 장수와 감히 맞서려들다니.)

기무라는 고개를 틀링 펴구었다.

이때 《하! 하! 하!》하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또 하늘에서 울리였다.

기무라는 웃음소리가 나는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웃음소리는 백두산쪽 하늘에서 울려왔다.

기무라는 맥없이 쌍안경을 들어 구름속에 거연히 솟은 백두산의 웅자를 바라보았다.

기무라는 또한번 흠칠 놀랐다.

산마루에는 백두산의 대장수 **김일성**장군이 걸터앉아있었던것이다.

발을 구르며 지동이 일고 손을 뻗치면 하늘의 구름도 잡아내릴 거인의 영상이 눈앞에 안겨와 기무라는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런데 더 놀라운것은 백두산대장수의 한옆에 그와 쌍벽을 이룬듯 젊은 장수가 함께 앉아 3천리를 굽어보고있는것이 아닌가!

우뢰와 같은 웃음소리는 바로 그 젊은 장수의 웃음소리였고 하늘에서 울린 목소리도 그 장수의 목소리였다.

백두산에 걸터앉았던 젊은 장수가 발을 그대로 동해바다에 잠그고 일어나서 하늘의 구름당반우에 얹혀놓았던 어마어마하게 큰 장검을 내리워 백두산을 솟돌삼아 썩썩 갈고있는 모습이 보이였다.

기무라는 눈앞이 아찔했다.

(내가 감히 저런 장수들과 맞서려 하다니.)

버들버들 떨던 기무라는 온몸이 굳어져 돌미륵처럼 꼼짝않고 서있었다.

칼을 다 간 장수가 하늘에 대고 장검을 휘두르자 번쩍하고 번개가 일고 파르릉 우뢰가 울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왜놈들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기무라는 저도 모르게 《아이쿠!》하고 비명을 지르며 목을 움츠렸다.

그는 언젠가 밀림속에서 나무에 쓴 구호를 본 생각이 났다.

《백두산에 광명성이 솟았다더니 바로 저 새 장수가 났구나. 일본은 망했다!》

기무라는 또다시 하늘에서 시뻘건 화광이 비치자 눈을 까뒤집고 말우에서 툕렁 떨어졌다. 그놈은 다시는 펴나지 못하고 영영 숨을 거두고말았다.

바로 그해 여름 《대일본제국》도 망하였다.

# 못참아 하고싶던 말

한원희

내 울리고싶었던 그 말을

그대가 다 울리었구나

우리 늘쌍 품고있던 생각을

그대가 또박또박 다 썼구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편지를 드리자니

그대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했지

이제 그 편지를 보니

나의 눈에도 눈물이 뜨겁구나

아, 정춘실

한없이 소박한 그대의 편지

효성이 보석처럼 어려든 구절구절

글 한자한자들이

소중하고도 소중한 금싸래기같구나

이 정춘실이 무엇이길래

온 세상에 소문을 크게 내주시는가고

고마워 고마워 그 진정 다 터뜨린

그대의 마음

단발머리시절부터 손잡아키워주신

그 사랑은 아득히 잊으신채

인민의 총복으로 내세우시는가고

송구해 송구해 감격을 삼키는

그대의 그 감사의 정

어쩌면 그리도 모두 담아냈는가

친애하는 그이를 그려볼 때면

언제나 가슴뭉클 젖어드는

우리 마음 온 나라의 마음

지도자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그대처럼 자라난 우리 인민

그 어디서나 뵈옵지 않았던가

머나먼 길 찾아오신 그이를

무릎을 마주하시고 할일을 의논해주시고

위훈으로 불러준 그 미소

그 누구나 온몸에 받지 않았던가

해빛처럼 별빛처럼

그이를 우러러

밀물처럼 가슴가득 차오르고

샘물처럼 소리없이 날마다 고이는 그것

못참아 못참아 인민이 하고싶던 말

정춘실, 그대의 편지에 다 써여있구나

사랑은 사랑대로 받고

행복은 행복대로 누리고도

의리를 모른다면 살아 무엇하랴고

배은망덕이 될가봐 무섭다고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시고

우리 지도자동지 제일이시고

우리 사회주의가 제일이어서

끝까지 충신으로 생을 마치리라는

그대의 그 소원은 우리의 소원

그것은 심장이 하나이듯이

하나밖에 없는 인민의 좌우명

어버이수령님과 지도자동지만을 모시려는

일편단심!

아, 사람이 태어나 글이 생겨나

이같은 편지 그 언제 있었던가

아름다운 노래와 같이

시대의 영원한 메아리와 같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울려가리라!

# 봉화리의 령길

류민호

열과강변 붉은수수밭도  
일제의 칼에 맞서 선혈에 물든듯  
맥전나루 검푸른 물결  
기슭을 물어뜯으며 태질하고  
하늘에선 퇴성이 울던 그날

이 길이 아니더냐  
수난의 그날 김형직선생님께서  
철쇄에 묶어가신 그 길이  
역사철사에 결박되셨건만  
새로운 투쟁의 전구로 가시듯  
결연히 걸어가신 그 길이

추돌같이 무거우신 발걸음  
천근인가 만근인가  
봉화리에서 맥전나루 지척이건만  
천리만리를 걸으시는듯

이 길에서 선생님은 다 보셨다  
눈물에 젖은 백의동포들을  
이 길에서 선생님은 다걸으셨다  
일제의 군화자국에 찢기고 멍든  
온 조국강토를

아, 잊을수 없는 령길  
봉화리의 령길  
그날 선생님은  
무거운 쇠고랑 끌며 가셨어도  
마음속엔 새로운 투쟁의 굳은 신념  
불길처럼 타번졌나니

그렇게 가셨다  
총칼도 족쇄도 철창도 헤치며  
이 땅에 봄을 펼칠 험난한 길을  
우리 혁명의 새벽길을

그 길에서  
억눌려사는 겨레의 가슴마다  
애국의 불씨 심어주고  
일제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시며  
꽃피날 조국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셨거니

보아라  
저기 맥전나루  
선생님 싣고 울며가던  
족배의 뼈저덕소리  
오늘은 유람선의  
경쾌한 고동소리로 울리고

점점이 피어난 들꽃도  
그날을 못잊어선가  
서둘러 푸른 아지 펼치고  
진한 향기 뿌리는 이 길

아, 오늘은 인민이 넘나드는 이 길  
기쁨이 클수록 행복이 넘칠수록  
수령님 그리는 우리 마음  
인민의 생각 덧쌓여  
더더욱 높아만 보이는  
봉화리의 령길이어

## 청년전위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과업

박춘력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첫 청년절을 맞는 전국의 청년들과 사로청일군들에게 보내신 서한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는 현시기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사상 리론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힌 백과전서적인 우리 시대 청년사업의 대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력사적서한을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앞에는 로작에 담겨진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진리성을 형상으로 확증하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청년전위의 전형을 창조하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새 세대 청년들과 그들의 생활을 그린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는것은 주체의 인간학인 우리 문학의 혁명적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의 문학은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문학이다.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청년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복무하는 문학이다.

우리 혁명의 총책임무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선차적인 문제는 인간개조사업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사상의식과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의 성과적실현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때문에 우리의 문학은 청년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생활을 반영한 문학작품을 적극 창작하는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과 혁명대오의 세대교체로 하여 우리 문학이 청년교양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현실적요구로부터 제기되고있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흥망과 인류

의 미래가 좌우된다.

력사적경험은 청년들이 혁명의 피줄기를 튼튼히 이어나갈 때에는 혁명위업이 건결이 옹호고수되고 끝까지 완성되어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여곡절과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그것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세대에 세대를 이어 완성되어나간다. 혁명이 대를 이어 완성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혁명대오의 세대교체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문학은 새것을 창조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는데서 큰일을 하는 청년교양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켜야 한다.

최근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 1. 2부, 중편소설 《메아리》를 비롯한 청년들의 생활을 취급한 작품들이 창작되어 독자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그러나 발전하는 현실이 청년들의 높아가는 미학적요구에 비해볼 때 이것은 초보적인 성과에 불과하다. 아직 청년전위들의 훌륭한 전형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그린 작품이 많지 못하며 각이한 력사적시대를 취급하면서 청년교양의 힘있는 교과서로 될수 있는 작품이 얼마 되지 않고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청년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 더 큰 관심을 돌리며 청년들의 생활을 취급한 작품창작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자각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 청년전위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전위가 된다는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받들어나가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가 된다는것을 말합니다.》

청년전위의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깊이있게

밝혀내는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애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에 한몸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치고있다. 청년들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사회와 집단, 조직과 동지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보람차게 일하고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언제나 락관과 신심에 넘쳐 투쟁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청년들이 지녀야 할 가장 숭고한 정치사상적품목이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새 세대로 자라나는 청년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은 응당한 본분이며 도리이다.

우리 문학작품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는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의리로 간직한 청년들의 전형을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이다. 청년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참다운 청년전위로 될수 있다.

우리 문학은 주체사상을 깊이있게 체득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품도를 그리는데 응당하나 창작적 관심을 돌려 청년들의 지향과 정서에 맞는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열렬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청년들의 심오한 예술적형상들을 창조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이다.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 당의 위대성에 있으며 지도사상과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조선민족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사상정신적특질을 진실하게 형상하는데 청년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창작에서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있다.

이건은 우리 문학이 세 세대 청년들의 심장속

에 깊이 간직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숭고한 정신의 심오한 예술적화폭을 그리는데 깊은 주목을 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는 또한 그들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시대정신을 체현한 새로운 인간전형으로 형상하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할데 대한 투쟁목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례없이 넓은 폭과 깊이를 가지고 진행되는 주체사상화과정이다. 또한 사람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완전하게 개조해나가는 새로운 높은 요구와 심도를 가진 주체사상화과정이다.

혁명적개조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나 그 목표와 요구의 높이에 있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주체사상화과정의 가장 높은 력사적단계로 된다.

오늘 청년들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그들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을 자기들의 생활과 삶의 목적으로 리상으로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고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성격이 종래의 력사적시대 청년들의 성격보다 새로운 높은 발전으로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문학작품들은 청년전위의 성격을 형상하면서 청년들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시련이라는 원대한 뜻과 목표를 자기이 리상으로 삼고 이 리상의 실현을 위하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싸워나가는 투사로 일반화하여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라는 투철한 자각,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는 강毅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 이것이 그들의 성격적바탕으로 될 때 창조된 청년전위의 성격은 생활적진실성을 가지고 청년독자들속에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게 될것이다.

청년전위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미학적요구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닌 참된 인생관, 집단주의적인생관을 심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사람의 일생에서 청년시절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일생을 옳게 살기 위하여서는 청년시절에 참된 인생관을 가져야 하며 인생의 훌륭한 결실을 위한 공동위업에 바쳐야 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오직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살며 발전할수 있다.

만약 사회와 집단의 운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사회와 집단의 버림을 받게 될것이며 그런 사람은 아지에서 떨어진 일사귀와 같은 존재로 되고 말것이다.

사람의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문학작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이 기여한 생활일수록 그만큼 값높은 생활로 되며 이러한 값은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때문에 우리 문학작품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생활을 자기 개인과 자기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영원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생활이며 이러한 생활이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보람있는 생활이 라는 것을 감명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청년전위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청년들의 전형을 훌륭히 그려내는 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의 령도따라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으며 천신만고를 다 이겨내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 우리 혁명의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청년들의 공적은 우리 혁명의 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 청년들은 해방후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안팎의 계급적원수들과 치렬한 투쟁을 벌리면서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이 진행한 가장 준엄한 투쟁인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은 조국이야말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조국을 찾아온 수령님의 은덕에 한목숨 바쳐 보답하는 것이 응당한 도리라는 것을 가슴깊이 자각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재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전후 그 어려운 시기에도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우리 문학은 응당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새 사회 건설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시기 청년전위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룩한 업적들을 긍지높이 보여주어야 하며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온 청년들의 보람과 영광을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이는 성스러운 길에서 청춘을 빛내이는 청년들의 형상을 그리는 것은 청년전위의 전형창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남녀청년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당의 구상을 꽃피워나가는 길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고 있다.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가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이 땅위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수많은 일떠섬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하고 있다.

문학작품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생산과 건설의 주공전선을 맡아나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동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조선청년의 영웅적기상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생활을 다양하고 풍만하게 형상화하는 것은 청년전위의 형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미학적요구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실천투쟁에 청춘을 다 바치고 있다.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건설장들, 탄광과 광산, 농촌과 어촌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우리 청년들이 서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 수행하는 청년들의 생활이 풍부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청년돌격대운동, 청년작업반운동, 사회주의경쟁운동과 **《사로청》** 호운동, 사회주의건설지원운동,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다양한 생활이 묘사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조국보위의 기본력량이며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는 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 문학은 군사복무를 통하여 조직성과 규율성을 키우고 강의한 의지와 공산주의적품성을 원만히 갖추며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을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새 세대 청년들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청년들은 조국통일의 기수이다. 용감하고 씩씩한 청년들이 일떠서야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의 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 우리 문학은 분열된 조국에서 태어난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분열된 조국을 다음세대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결연히 일떠서 파란 투쟁을 벌려나가는 청년들의 형상에 깊은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문학작품들에서 세계청년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작품창작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청년전위의 전형창조에서 그들을 청년답고 청춘다운 산 인간으로 그리는데 깊은 사색과 탐구를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하고 활력있는 부대이며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하고 용감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세대이다. 청년들은 고상한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이러한 자기의 훌륭한 특질로 하여 낡은 사회제도를 짓부시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나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로력투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힘있는 부대로 되는것이다.

청년들의 생활을 반영한 문학작품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훌륭한 특질이 생동하게 구현된 개성적인 성격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문헌이 밝혀준 심오한 사상적진수들을 깊이 파악하고 그 이론적명제들과 독창적인 사상들을 진실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감동깊고 진실한 형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작가들은 청년들이 있는 들끓는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는 우리 시대 청년들과 고락을 같이하고 숨결을 같이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빛날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청년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작가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청년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나는 즐겨 들꽃을 꺾었습니다

방금속

나는 즐겨 들꽃을 꺾었습니다  
위생가방 메었던 그 시절에  
숲속에서 내가에서 산기슭에서  
전선으로 떠나는 부상병들  
가슴에 송이송이 안겨주려구요

노란꽃, 흰꽃...  
구색을 맞추어 한다발  
내가 꺾은 들꽃을  
전사들은 소중히 안고 떠나갔지요

포연서린 참호에서  
그 꽃은  
전사들의 마음속에 피어웃으며  
전사들과 함께 섬멸전에 나갔고

개때처럼 밀려오는 미국놈들  
고지에 혼자 남은 전사앞에  
몰살당하는 꼴도  
그 꽃은 보았답니다

빨간 꽃 파란 꽃...  
때로는 송이송이 내 꺾은 들꽃은  
부상병들 머리말에 고향의 향기로  
마음속 우울을 몰아주기도 했답니다

머리말에 떨기떨기 피어웃는 그 꽃에서

고향에 두고온 보탑을 잡아보고  
아들을 기다리실 어머니를 그리며  
전사들은 기적같이 조국을 안고 일어섰더랍니다

하지만 내 꺾은 들꽃중에는  
눈물로 꺾은 꽃송이도 있답니다  
나혼자 대학으로 떠나며  
잠든 전우의 무덤우에  
없어놓은 그 들꽃은  
밤이슬이 내린듯 젖어있었답니다

하늘하늘 바람에 꽃잎을 떨던  
하얗고 빨간 그 들꽃 묶음은  
전우의 넋을 고이 지켜 없어놓은  
내 마음의 영원한 조각이지요

청춘시절은 다 귀중하지만  
조국과 함께 포연을 마신  
청춘시절은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한 시절이기에

싸움의 그날에 내 꺾은 들꽃들은  
한송이도 지지 않고 싱싱히 피어웃는  
내 추억속의 아름다운 꽃  
추억속엔 신비로운 샘이 있는지  
꺾은 꽃도 시들줄 모릅니다려

## 잊혀지지 않는 밤들

한웅빈

밤에 있는 일들에 낮에 있는 일들보다 왜 더 잊혀지지 않는지 나는 알수 없다. 밤에는 모든것이 낮보다 과장되거나 왜소화되어 나타나는때문인지, 아니며 추억이라는것이 워낙 황혼과도 같은 어스름한 색채를 띠기때문인지... 혹시는 단순히 내가 걷고있는 지금이 밤이기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통일거리를 걷고있었다. 완공을 앞둔 통일거리의 밤을 모른다. 씩없이 엿갈리는 자동차 불빛들과 고층살림집 창문들에서 쏟아져나오는 작업불빛, 언제 보나 조용하고 고독해보이는 외등불빛들, 밤하늘에서 용접광의 푸른 분수가 거의 실재없이 뿜어오르고있다. 바다, 불빛의 바다...

허나 우리가 처음 이곳에 가설건물을 전개하고 기초굴착을 시작하였을 때의 밤에는 열발자국에 한번은 어둠에 발이 걸쳐어 비틀거려야 했다. 넘어지면 웃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욕지거리도 했다.

비는 또 얼마나 자주 왔던지... 기초굴착을 할 때에는 어느밤이나 비가 내렸던것처럼 생각한다.

축축하게 구질구질 내리는 비, 억수로 퍼붓는 소낙비라면 시원하기라도 했을것이지만 사설많은 아낙네들의 눈물처럼 내리는 비는 짜증만 나게 했다.

...그밤에도 비가 내렸다. 낮부터 밤까지...

《동문 뭐요? 귀가 먹었소?》

끈끈한 비발이 기초구덩이안으로 휘뿌려들고있었다.

《다 파고 가겠습니다!》

《뭐라구?》

분개한 소대장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기는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구덩이안에 그냥 버티고 서있었다 내가 소대장보다 더 화가 나있었던것이다.

정확히 말하며 악에 받쳐있었다.

그날은 정말로 운수나쁜 날이었다.

기초굴착을 거의 끝내갈무렵에 나의 구간에서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5 호함마로 때려도 지레대로 든장질을 해도 소용없었다. 어찌 큰놈인지 바위라기보다 암반에 가까웠다. 까내거나 들어낸다는것은 엄두도 낼수 없었다.

나는 문득 얼마 떨어진 도로공사장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울리던 발파소리가 생각났다. 발파를 하면 간단히 순식간에 바위를 처리해버릴수 있었다. 나는 지체없이 120메터폭의 대도로를 뚫는곳

으로 향했다. 소대장에게 말하고 갈가 하였으나 깜짝 놀라게 하고싶었다...도로공사장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일하고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지휘관을 만나 발파승인을 받는다는것이 간단치 않았다. 우선 만나기가 힘들었고(와와하며 달려다니는 군인들은 군관이요 전사이고 모두 누런 진흙물이 오른 내의바람이어서 누가 지휘관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만난 다음에는 발파에 대해 납득시키기가 어려웠다. 애원하다싶이 해서야 겨우 승낙을 받아냈다. 그것도 발파공에게 나와함께 현장에가서 암반상태를 보고 오라는, 다음에 보자는 식의 반승낙이었다.

현장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그런데 나를 본 소대장은 다짜고짜로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동문 도대체 어데 가서 바라명기다 오오? 정신있소? 하던 일은 썩개치고 어텔, 어텔 짜다니는가 말이요?》

내가 파던곳에는 소대원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며 들여다보고있었다. 나는 소대장에게 암반을 발파하려고 한다는것을 서둘러 설명했다. 소대장은 채 듣지도 않고 버럭 소리질렀다.

《발파? 정신나간 소릴 썩 그만두오! 누군 동무보다 못해서 암반이 나오면 정과 망치로 쪼아내는줄 아오? 여긴 지하망이 있는 구역이어서 발파를 못한단말이요.》

나는 얼굴에 휘뿌려치는 비발을 느꼈다. 맹랑한 얼굴로 돌아가는 발파공의 모습이 보였다.

《토론도 없이 제멋대로 하면서...발파가 아이들 장난인줄 아오? 일하는 본때가 틀려먹었소!》

끈끈한 비발처럼 걷힐줄 모르는 추궁에 나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내가 놀기라도 했는가. 나도 일을 잘하려고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단을 치는가.

《동무때문에 소대가 오늘 굴착계획을 미달하였단 말이요. 무슨 체면으로 밥을 먹겠소.》

나는 종시 마주 소리쳤다.

《오늘밤중으로 끝내면 될게 아닙니까?》

《오늘중으로? 지금 몇신지 알기나 하오? 날이 어두웠단말이요!》

《어둡든 밝든 끝낸다지 않습니까?》

그때 대대장이 나타났다.

《작업시간이 끝난지 언제라구 아직 여기서 머물거리고있소?》

하고 그는 소대장에게 소리쳤다.

《소대장! 뭘하오? 당장 다 끌고 들어가오!》



이날은 누구나 신경질을 부리는 날인것 같았다. 축축한 비가 끈끈스레 내리면서 불쾌감을 더 돋구는때문인지...

《려단에서 지시가 있었소. 제멋대로 연장작업을 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라고말ियो. 그런 현상이 바로되면 경쟁대상에서 무조건 제명하게 되어있소. 빨리 여기서 다 사라지오!》

하고 다른 소대로 걸음을 옮기던 그는 세걸음 만에 돌아서서 한마디 더 침을 놓았다.

《10분후에 내 와보겠소!》

소대장은 소대가 달라붙어 끝낼 생각이었던듯했다. 그런데 철수하라고 하니 이중으로 화가 나게 되었다. 그는 대대장의 뒤모습을 한동안 보더니 소대원들에게로 획 돌아섰다.

《모두 휴계실로 가오! 젠장, 빌어먹을것!》

마지막 말은 나에게 향한것처럼 느껴졌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분개한 시선이 나를 때리고 지나갔던것이다.

나는 모욕감으로 피가 꺼꾸로 치솟는듯했다. 보자, 어디 보자! 나는 곡괭이를 들어 바위를 힘껏 내리찍었다. 딱-하고 곡괭이날은 한길이나 튀어올랐고 손바닥이 쨍-하고 저러들었다. 그러나 다시 내리쳤다. 계속 내리쳤다. 곡괭이날에서 불꽃이 평곳평곳 일었다. 돌은 깨어질대신 부스레기만 튀거나 얼굴을 아프게 찌를뿐이었다. 그러나 계속 내리쳤다. 누가 못견디나 보자!

소대장의 화가 난 음성이 비발가 함께 나의 머리에 또 떨어졌다.

《이건 뭐요? 말하는것 못들었소?

이렇게 되어 일어난 싸움이였다...

《뭐? 에이, 이걸 그제!》

소대장은 나의 덜미를 쥐여 와락 꼬집어내지 못하는것을 한스러워하는것 같았다. 아마 자기 동생이라면 서슴없이 그렇게 했을것이다.

소대원들은 너도나도 한마디씩 했다.

《송식이, 나오라구, 어서!》

《고집을 부릴 때가 따로 있지, 뭘 그래?》

《래일 아침에 와 달라붙어 얼른 해치우면 될걸 뭘 그러나?》

뒤에서는 처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송식동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장금의 목소리였던것이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때없이 깔깔거리지않나 하면 노래를 부르고... 또 얼마나 다사스러운지 참새처럼 노상 재잘거려가지고 있었다. 도저히 조용할줄 모르는 처녀였다. 하기는 나는 그에 대해 원래부터 눈을 빨리 된것은 아니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에게 은근히 눈길이 끌려가기도 했었다. 그런데 질색인것은 마치 나에게 무슨 지시할 권리라도 있는듯 《송식동무, 여기로 와요. 빨리요!》하군하여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것이였다. 때로는 못들은척하군 했다. 그런 점만 아

니였더라면 우리사이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그는 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나는 자존심으로 하여 그것을 부정해버렸다.

이때도 나는 그의 입에서 곧 《나오라요, 빨리! 그럼 안돼요!》하는 명령투의 말이 튀어나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름만 불러놓고는 조용했다.

나는 이상해서 얼핏 돌아보았다. 그러자 걱정스럽게 나를 지켜보고있는 눈길과 부딪쳤다. 그 눈길은 마치 《왜 그러세요? 어서 나와주세요.》하고 속삭이는듯했다. 때없이 조용한 그 눈길앞에서 나는 슬며시 돌아서고말았다.

그런데 장정금에게 수군거리는 말소리가 들렸다.

《말했대야 쓸데없어, 밤이 열이 돼도 끝내겠다고 큰소리 쳤으니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냥 버릴게야.》

돌아보지 않고도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동학이였다. 그는 내가 들으라고 우정 큰 소리로 말했는지도 모른다. 원래 저란 알곳은 소리로 사람들의 기분을 곧잘 잡쳐놓는 사람이였다. 집에 가서도 그런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 알곳은 성미로 하여 집에서는 한달이 멀다하게 부부싸움이 벌어진다고 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한다지만 그들의 부부싸움은 칼로 나무토막이라도 잘라놓은듯한것이였다. 한번 싸우면 한주일이나 보름동안은 마한마디 주고받는 일없이 《랭전》을 벌린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소대에서는 여러가지 말들을 했다.

《아이가 아직 없어서 그래. 아이만 있어보지?》

《한달에 절반은<랭전>으로 보내니 아이가 언제 생기겠나?》

《악순환이로군!》

나이드 사람들은 남자가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줄줄도 알고 양보해주기도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 그는

《아-니! 한발자국 양보하면 두발자국, 세발자국, 다음은 아예-》하고 굉장한 세계적인 문제라도 결정하듯 단호한 태도로 잘라말했다.

《처음부터 신발을 단단히 신겨야 해.》

그《랭전》의 얼음장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말해주는것은 그가 싸움하고 나오면 그날부터 거의 일주일간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휴계실에서 궁상스레 자는것으로 넉넉히 짐작할수 있었다. 내 보기에는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 할 사람은 그 자신이 아닌가싶었다.

그런데 그 동학이가 이날저녁은 나의 자존심을 깔죽깔죽 긁어댄것이였다. 정금미로 하여 좀 당황했던 마음은 다시 팽팽해졌다. 동학에 대한 강한 반발을 느꼈다. 나는 곡괭이를 우로 획 올려던졌다. 그리고는 구멍이밖으로 나와버렸다.

축축히 비가 내리고있었다. 비속에서는 진흙냄

새가 풍겼다 그때에는 아직 비속에서 콩크리트혼합물냄새와 자동차배기가스냄새가 풍기지 않았었다...

작업총화를 하는 동안에도 나는 《자존심》이라는 동학의 말이 명치끝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자존심이라구?

이게 왜 자존심인가 오늘 할 일을 무조건 오늘로 하겠다는것인데... 책임성이지. 나는 소대장의 느릿느릿한 말소리를 귀전으로 흘리며 혼자서 분주히 묻고 대답했다. 책임성이다! 그날 계획을 무조건 그날로 하는것이 오늘의 요구가 아닌가. 소대장과 좀 다투기는 했지만.

《동학이 안가겠나?》

어느사이 총화가 끝나고 모두 가방을 들고 휴계실을 나서고있었다. 동학은 아래목으로 내려앉으며 대답했다.

《난 오늘 여기서 자겠어. 비맞으며 가기 끔찍하구만!》

나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집에서 또 싸운게지, 이제부터 한주일쯤을 휴계실에서 자겠군.) 하고 나는 지어 고소한 감까지 느끼며 생각했다. ...

기초구덩이를 외등이 희미하게 비쳐주고있었다. 가느다란 비발속에 서있는 외등은 별로 쓸쓸하고 고독하게 보였다. 그날밤 나에게는 외등이란 수십개를 켜놓아도 역시 고독하고 외롭게 보일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구덩이에 들어가 바위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흙은 삽날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놈의 흙이 이래?》

혼자서 두덜거리며 한삽 또 한삽 팠다. 시간도 그렇게 가고 또 갔다.

만일 《발파》라는것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것이다. 소대가 모두 달라붙어 처리해치웠을것이다.

《후-》 비에 폭 젖은 옷이 무겁게 매달렸다. 그와 함께 마음도 무거워졌다. 고독감이 스며들었다. 비속에서 떨고있는 외등이 나처럼 생각되었다.

거의 드러난 바위는 보기조차 역겨웠다. 모든것이 이 흙물스레 생긴놈때문이었다.

나는 바위를 등지고 곡괭이자루를 깔고 털썩 주저앉았다. 담배를 꺼냈으나 비에 죽탕이 되어있었다. 어느때라든 화가 나게 했을 그 일이 이때는 한숨만을 자아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발밑을 내려다보며 잡관목이 설레는듯한 비소리를 듣고있었다. 죽탕이 된것은 담배보다 나자신인듯했다.

그런데 뒤에서 달그락거리는 삽소리가 들렸다. 나는 획 돌아보았다. 다음은 불에 덴듯 후닥닥 튀어일어났다. 언제 왔는지 정금이 삽으로 바위

옆을 파내고있는것이였다. 놀라움보다 반가움이 왈칵 치밀었다.

《동무가... 어떻게... 나왔소?》

《...》

그는 못들은듯 삼만 놀리고있었다.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것인지... 외등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무척 차갑게 느껴졌다. 그 표정이 반가움을 사그러지게 했다.

《왜 여기 왔소?》

《...》

《걱정돼서 나왔소? 오늘밤으로 못끝낼가봐...》

나는 말을 중동무이하고말았다. 언뜻 쳐다보는 그의 눈길이 너무도 쓸쓸한 실망의 빛으로 차있을 때문이였다.

《동문... 정말... 어쩌면...》

《...》

나는 삽질을 시작했다. 잠시후 정금이 말했다.

《휴계실에 갔다오지 않아요?》

《휴계실?》

《담배를 피워야잖아요?》

내가 죽탕이 된 담배를 털어버리는것을 보았던 모양이였다.

《아니, 피울 생각이 없소.》

《참, 제가 어떻게 여기 나왔는가 물었지요?》

그의 명랑함과 다사스러움이 다시 살아난것 같았다. 이제 곧 짹짹거리거나 노래까지 부를지도 몰랐다.

《집으로 가다가보니 신발이 어느사이 흙탕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옷에도 말이에요. 그렇게 하구서야 어떻게 시내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물론 닦았지요 뭐. 그런데 가려고 하니 자꾸 돌아보게 되더군요. 뭘 잊어버리고 가는것처럼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곧 짹짹대는 웃음소리가 파를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말소리는 별스레 낮아지고 자신없어졌다. 마치 입을 열었던것을 후회하기라도 하는듯했다.

《휴계실을 들여다보니... 동무가 없더군요. 동학동지만 있구요. 누워서 눈만 껌뻑거리면서...》

안해와 싸우던 일을 쓰거운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겠지...

《아무래도 동무가 집에 갔을것 같지 않더군요. 그래서 와보았더니... 난 동무가 하지 못할가봐 온게 아니예요.》

《그럼! 왜 왔소?》

《예?》

그는 놀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런 반문은 전혀 예상 못했던듯했다. 그는 인차 바위로 눈길을 떨구며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별로 공허하게 들렸다.

《나도 모르겠어요.》

《?》

나는 왜서인지 그 대답이 가슴을 툭하고 쥐어

박는듯했다. 모르겠다? 무엇을 모른단 말인가? 무엇을? 왜 모른단 말인가?... 그러나 잠시후에는 나는 그가 무엇을 모르겠다고 했는지조차 알수 없었다. 생각은 혼란되었다. 마주서서 sap질을 하는 정금의 모습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보였다. 아니, 이 밤에 나는 그의 정확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다. 사람이란 가까이에서 봐야 알게 되는 것이지...

《돌이 너무 크구만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돌을 이리저리 굽어보았다. 들어올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소대가 다 달라붙거나 굴착기로 끌어올리면 어떨지.

《깨뜨려야지.》

나는 함마를 들었다.

《아이, 잠깐만 있어요.》

그는 함마를 चु켜들려는 내 손을 막았다. 비에 젖은 싸늘한 손가락이 나의 손등을 산뜻하게 했다.

《깨뜨리지 말고 옆으로 구멍이를 파서 굴러놓으면 안될가요?》

괜찮은 생각이였다.

우리는 기초의 바깥쪽으로 바위를 굴러넣을 구멍이를 파기 시작하였다.

정금은 sap질을 재빨리 했다. 나는 내 손에 닿았던 그의 손가락의 산뜻한 촉감을 계속 느끼는 듯했다. 그에게 있는 모든것이 그 촉감처럼 신선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그러자 왜서인지 같이 서서 일하면서도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비물에 젖은 sap자루를 왼 손만 보며 일했다. 가느스름한 손가락, 그것은 외등불빛에 하얗게 보였고 손에 떨어진 비방울이 반짝거렸다.

《췌!》

정금은 갑자기 입가에 손가락을 세워보였다. 나는 sap질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손가락이 닿은 그의 입술이며 크게 뜬 두눈, 비에 젖은 두볼, 땀방울인지 비방울인지 반짝거리는 자그마한 코, 그 모든것이 한없이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누가 오는것 같아요.》

《뭐?》

저벅저벅하는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오고있었다. 뒤이어 외등불빛속에 소대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앉소, 빨리!》

우리는 구덩이속에 조그맣게 쪼그리고 앉았다. 정금의 머리칼에서는 습습한 비냄새가 풍겼다.

소대장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벌써 먼발치서부터 보고 온듯 거침없이 우리에게로 걸어왔고 몇초후에는 그의 얼굴이 우리를 내려다보고있었다.

《흥! 잘들 하고있소! 여기서 뭘하오?》

정금은 얼른 일어섰다. 나는 앉은채로 대답했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련애라도 하는것 같군!》

정금은 《어마나!》하고 거의 본능적인듯한 소리를 냈다. 나는 소대장이 빨리 가주었으면 했다.

《그런것 같으면 빨리 지나가야지요.》

《흥!》

소대장은 구덩이안으로 쿵 소리나게 뛰어내렸다.

《이건 뭐요? 련애를 건다면서 반토굴집이라도 지을셈이요? 지금이 뭐 전후복구건설시긴줄 아는게지?》

이번에는 내가 코웃음을 칠 차례였다. 그러나 코웃음대신 다른 소리가 나왔다.

《담배나 한대 주십시오.》

소대장은 턱으로 왼쪽주머니에 꺼내라고 가리키며 sap질을 해냈다.

《련애를 걸러고 나오면서 담배도 안가지고 나왔나?》

정금은 약이 오른듯 내쏘았다.

《그만하십시오. 그러단 정말 사람들이 진짠줄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가짜로 될것 같소?》

《어마나, 소대장동진 정말!》

소대장의 잔등을 때리는 소리가 북통치듯이 울렸다. 소대장은 꺾꺾 웃었다. 내 잔등을 저렇게 때려주어도 괜찮겠는데 하는 멧적은 생각이 문득 떠올라 나는 픽 웃고말았다.

셋이서 파니 구덩이는 인차 파졌다. 지레대로 돌을 구덩이에 굴러넣었다.

《잘-됐군!》

하고 손을 털며 무슨 말인가 또 시작할듯하던 소대장은 웬일인지 서둘러 구덩이우로 훌쩍 올라갔다.

《난 가겠소!》

《소대장동진!》

정금은 당황한듯 부르며 따라가려고 했다. 그런데 소대장은 내려다보며 입가에 손가락을 세워보였다.

《췌! 가만 있소.》

정금은 주춤하여 가만히 서있었다.

소대장은 분주히 걸어가며 어둠속에 대고 소리쳤다.

《대대장동진 아십니까?》

외등불빛아래 대대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암만해도 미타해서 나왔지, 그런데 저-기서 덜거덕거리는건 웬 사람들이요?》

《어데 말입니까?》

《모르는척하지 마오! 가족주의가 농후해!》

하면서 대대장은 우리에게로 걸어오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꼼짝없이 걸려들게 되었다.

그런데 소대장인 대대장의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왜 안된다는거요?》  
 《쳐녀총각이 만나서 이야기하는중인데 방해하면 됩니까?》  
 《응? 그게 정말이요?》  
 《갑시다.》  
 대대장은 소대장에게 끌려서 돌아섰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말을 주고받았다.  
 《도대체 누구요?》  
 《송식동무와 정금동무입니다.》  
 《송식이와 정금이? 그 동무들이 그런 사이였소?》

《아직 몰랐습니까?》  
 《어마나!》  
 마지막 말은 내옆에서 울린것이였다. 정금은 너무 안타까와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이제 어쩌면 좋아요?... 소문이 나구... 사람들이 그렇게 알텐데... 정말, 정말...》  
 그는 너무 당황하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것 같았다. 그에 못지 않게 당황한 나역시 나로서도 생각치 않았던 엉터리없는 말을 했다.

《그렇게 알면 뭐 어떻소?》  
 말해놓고나서 나는 더욱 당황했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가라니? 정금의 입에서 총알같은 반격이 쏟아져나올것만 같았다. 《무슨 말을 하는거예요? 동문 댁예요, 세상일이 무슨 놀음거린줄 알아요?》

그러나 이윽도록 반격이 없었다. 더 뻔뻔한 말을 고르고있을지도 몰랐다. 한마디로 나를 찔끔매게 할만한 그런 말을...

그런데 몇분 지났을 때 나는 조용한 목소리를 들었다.

《신문을 봤어요? 이 거리를 통일거리라고 부르게 뵈단...》

이것은 벌써 며칠전의 소식이였다. 벌써 실컷 말을 주고받은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처음 주고받는 말인듯 정색하고 대답했다.

《봤소. 크게 났겠지.》

《통일거리라고 하니 마음이 별래져요. 이 거리가 다 되면 통일될것만 같은...》

이것 역시 한두번만 주고받은 말이 아니였다. 그러나 나는 역시 처음 듣는 말인듯 엄숙하게 대답했다.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그렇가요?》

《그럼.》

그때 우리는 실컷 주고받은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처럼 주고받으면서도 어색한 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야기로 하여 우리의 사이가 더 허물없어지고 가벼워진것만 같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성스러운 존재로 된듯함을 느꼈

다. 왜서였을가. 나는 지금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해본다. 그러나 대담대신 그밤의 비소리와 물소리가 선명히 떠오를뿐이다.

돌사이에 침묵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비소리와 물소리를 다시금 똑똑히 들었었다.

서로 눈길에 부딪치자 급급히 서로 눈길을 피했다. 잡관목 설레는듯한 비소리, 비방울이 반짝거리는 외등불빛, 어떻게 되어 우리가 이렇게 좁은 흙구덩이안에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릴만큼 나란히 서있게 되었을가? 두렵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다.

물소리가 졸졸거리며 들려오고있었다. 소리없이 내린 비가 작은 실도랑을 만들어놓은 모양이였다. 물소리, 속삭이는듯한 나지막한 물소리...

《어마나, 벌써 날이 밝았어요.》

《응?》

주위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잠겨있었다. 밤은 비발을 걷어가지고 물러가고있었다. 갈라진 구름사이로 갓 잠깐 어린애의 눈동자처럼 맑고 선명한 파란 하늘이 나타났다. 그 하늘아래에서는 비에 젖은 땅과 풀잎, 그리고 우리의 비에 폭 젖은 옷자락까지도 함뿍 내린 새벽이슬에 젖은것처럼 느껴졌다. 새벽이슬이란 가장 깨끗하고 신선한것이다...

새벽은 언제나 좋았다. 폭 자고 일어나 맞는 새벽도 좋았지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느사이 오는지 모르게 찾아온 새벽을 깨닫는것은 더욱 좋았다. 피로도 줄음도 깨끗이 씻어가버리는 새벽빛...

려단이 말은 11 호동 25 층 살림집골조조립을 밤새워 끝내고 맞은 새벽은 참으로 좋았었다.

원래는 밤 2 시경에 골조조립을 끝내기로 계획되어있었다. 그런데 일은 계획대로 《순풍에 돛단듯이》되지는 않았다. 골작기가 지나가면서 그 둔한 팔로 전기줄을 끊어놓는바람에 호합기는 물론 조명등마저 죄다 꺼져버려 작업이 거의 한시간이나 중단되었었다.

게다가 만장에서 마감작업을 지휘한 련대참모장때문에 일은 한량없이 지체되었었다. 원래 자재사업을 맡아보다가 참모장사업을 하게 된 그는 무슨 일이든 좁쌀세듯이 해서 곁에 사람들을 속타게 하는것이 보통이였다. 그의 호주머니에 늘 쌍 쥘려있는 전자수산기가 어떤 수자를 보여주었는지 《혼합물을 한통만 올려보내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다섯번이나 내려보냈다.

처음 그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흥분했다. 따지까에 실고 오던 세멘트를 도로 창고에 가져다 쏟았고 서도 먼저 만장에 올라가보려고 와당탕 통탕 계단으로 달려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밤에는 온 작업장이 사람으로 차있었다. 련대전체가 나와있었다. 낮교대를 한 사람들도 밤

교대와 함께 섞여 돌아갔다. 마치 설날 그믐날밤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떠들어대는 아이들과 같았다.

살림집전설자들의 력서에는 그들만이 가지는 두개의 명절이 참가되어있다. 그것은 골조조립을 끝내는 날과 살림집을 완공하여 주인들에게 넘겨주는 날이다.

골조조립을 끝내는 이날 온 련대가 명절분위기에 싸여 현장을 떠나지 않는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련대장이나 대대장도 이날만은 그런것을 개의치 않았다. 명절때는 가장 엄한 부모들도 아이들을 빨리 자라거나 암전하게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혼합물을 한통만 올리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계단은 와-하고 만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로 꽉 메여버렸다. 계단이 무너질가봐 두려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15 층까지 혈떡거리며 올라갔을 때 확성기가 찌르륵거렸다.

《혼합물 한통을 더 올리시오!》

다시 분주히 달려내려가기 시작했다. 따찌까들이 창고로 달려가고 혼합기와 왈그랑절그랑 돌아가기 시작했다. 잠간사이 혼합이 끝나고 혼합물 바가지가 기중기에 물려 공중으로 떠올랐다.

《더 혼합하지 말고 대기하십시오!》

다시 계단을 달려올라간다. 혼합기운전공도 이번에는 물을 쏟아넣고 빈 혼합기를 돌려댔다. 혼합물이 굳어져 불기전에 씻어내는것이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만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따라섰다.

그러나 18 층까지 올라갔을 때 또 혼합물을 한통 더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다시혼합기가 왈그랑절그랑거리고 따찌까가 분주히 삐걱거리고... 네번 다섯번까지 반복되었을 때는 화들을 내기 시작했다. 지루해지고 피로를 느꼈다.

《단번에 콧 올리면 될걸, 무슨 일을 이렇게 해?》

《혼합물이 남을가봐 그런대.》

《아, 남으면 처리할데가 없을까? 넓고넓은 만장에서, 정말 좁쌀참모장이야!》

잔뜩 이마를 찌프리고 만장을 올려다보던 대대장은 그 말에 벌컥 화를 냈다.

《어데다 처리한다는게요? 남으면 내버릴수밖에 있소? 필요없이 두껍게 하거나! 제주머니 물건이라면 그렇게 할 생각을 안할게요!》

《그럼 내가 리기주의자란 말입니까?》

경팔이가 열이 올라서 마주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도 감기에 걸렸는지 오한이 난다면서 연신 재채기를 해대던 그였다. 어느때같으면 침실로 쫓겨들어갔을것이나 이날은 그대로 용서되고있었다. 몸도 말쑥하고 하여 신경이 더 날카로와진것

같았다.

대대장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그도 이때 화풀이할대를 찾고있었던것인지 모른다.

《제주머니에 넣는것만 리기주의인줄 아오? 나라채산을 망탕 쓰는것도 리기주의란 말이요!》

대대장은 획 돌아서서 가버렸다.

경팔은 화가 나서 게두덜거렸다.

《첿! 참모장한테서 욕먹은 화풀이를 나한테 하면서! 뭐? 내가 리기주의자라구?》

알고보니 대대장은 세번네번 반복되는 일에 화가 나서 우에 올라가 참모장에게 경팔이한것과 같은 말을 했다가 면박을 당하고 내려온것이였다. 어떻게 면박을 당했는가는 경팔에게 한 말로써 짐작할수 있었다. 대대장은 참모장이 하던 말을 그대로 곱씹어 경팔을 든든히 《두들겨주었던》것이다.

이번에는 누구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또 올려보내라고 할게야.》

《뻔하지 뭘.》

나는 세멘트를 싣고 온 따찌까에 걸터앉아있었다.

창고에 도로 가져다 쏟을 생각도 없었다. 또 올리라고 할것이다. 이제는 기대가 사라졌다. 피곤하기만 했다. 정금이는 어디에 있을까. 아까 세번째인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계단의 한열에서 우는것을 보았었다. 사람들이 많아서 말을 해볼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밀려 그대로 내려왔었다. 그냥 내려온것이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왜 울었을까...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울고있지나 않을까. 혼합기주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걸터앉아 꾸벅꾸벅 졸고있었다. 그들속에서도 정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있을까...

나도 따찌까에 걸터앉은채 졸기 시작하였다. 얇은 꿈속에서 나는 기초구멍이를 파고있었다. 비가 내리고있었다. 그런데 비발이 얼마나 가늘고 조용히 내리는지 차갑지도 않았고 서늘한 바람처럼 느껴졌다.

《이 거리를 왜 통일거리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금이가 옆에서 삼질을 하고있었다. 그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이 거리를 다 세우면 통일이 되기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울고있었다. 눈물이 얼굴에서 흘러 삼자루를 쥔 손등에 떨어지고있었다.

《동문 왜 우오?》

《너무 기뻐서요.》

《뭐가?》

《우리가 골조조립을 끝냈으니깐요.》

기초를 파면서 그는 골조조립을 끝냈다고 기뻐 울고있었다. 하긴 그럴수도 있지... 꿈은 뒤죽박죽이였다...

만장우에서 《와-》하는 환성이 울리는바람에 나는 깨어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일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일은 참으로 잘 마무리되어있었다. 혼합물이 단 한삽도 남거나 널린것이 없었고 콘크리트면은 자를 대고 그은듯 조그마한 차이도 없었다. 좁쌀 한알의 차이도 없어보였다. 만장우를 둘러보니 참모장에 대한 불만이 깨끗이 사라짐을 느꼈다.

나는 만장우를 여기저기 다니며 기웃거렸다. 일한 결과를 보는척했으나 사실은 정금을 찾아서였다. 누구의 얼굴이나 다 찾아볼수 있었으나 정금이만은 없었다. 어데 갔을가? 정말 아직도 그냥 울고있는것이 아닐가. 침실에 들어가서 울고있을가. 아까 계단에서 알아보았어야 하는것이었는데... 나는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한듯하여 가슴이 불안해졌다. 그때 뒤에서 귀익은 음성이 들렸다.

《누굴 찾아요?》

나는 휙 돌아섰다. 정금이였다.

《여기 있는걸 난 또... 어데 있었댔소?》

《어데 있긴요? 아까부터 장참 뒤에 있었는데요.》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으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그림자처럼 말이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었던것이다. 나는 출창 앞만 보며 그를 찾았던것이다.

외등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있었다. 이때에도 그 불빛은 고독하고 쓸쓸해보였다.

《뒤에 있었으면 말이라도 할게지 왜 가만 있었소?》

《재미있어서요. 뒤에서 보는게.》

《앞에서 보면 더 재미있지 않소?》

《앞에서야 어떻게 자세히 보나요?》

《왜 못보오?》

《심술쟁이.》

바람에 외등이 흔들렸다. 그러자 우리들의 발 밑에 던져진 그림자들도 흔들렸다. 발밑이 흔들리고 마치 온 세상이 흔들리듯했다.

《여기서 내려다보니 통일거리가 더 커보여요. 그렇잖아요?》

《통일거리야 어데서 보나 크지. 이 거리를 왜 통일거리라고 했는지 아오?》

정금은 나를 의아스레 보았다.

《그거야 신문에도 나갔었어요? 우리 인민들의 통일념원을 담아 통일거리라고 한다고.》

《동문 그래도 다르게 말했지 않소?》

《제가요? 언제요?》

놀람에 찬 그의 눈을 보며 나는 썩웃었다.

《아까 꿈속에서.》

《어마나, 심술쟁이.》

하던 그는 호기심이 동한듯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그래 뭐라고 하더나요?》

《이 거리가 다 서면 통일이 되기때문이라고 하더군.》

《그래요?》

정금은 발밑에 펼쳐진 건설장을 내려다보았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확성기에서 노래소리가 울리고있었다.

통일 통일

통일아 어서 오려마...

《아까는 왜 울었소?》

《제가요?》

《계단 한옆에서 울잖았소?》

《그건 어느사이 봤어요? ... 글썽 끝난줄 알고 막 달려올라가는데 동학동지가 벌써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부딪치고는 왈각 성을 내지 않겠어요? <동문 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래? 체네라는게 좀 얄전하게 있을게지. 앉을 자리, 설자리도 가리지 못하면서!>라구 말이에요. 차긴 올라가보구 내려오면서 너차라구 업신보구 야단하는게 얼마나 분하던지... 울고말았죠 뭐.》

《동학이가? 제가 뭐게 그러는건가?》

나는 화가 났다.

《아니예요. 동학동지도 계속 한통, 한통하니 화가 났던거겠지요 뭐. 방금전에 나보군 썩웃던데요.》

바람이 불었다. 만장우의 바람은 서늘했다. 어느 한곳 걸리는데 없이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곳에 서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것 같았다.

《동학이라는 사람에게 단단히 말해주요. 또 그랬다간 내가 가만 두지 않겠다더라고. 암만 나이가 위라도 혼살을 내주겠소.》

《예? 그 사람을 왜 혼살내요?》

《동무를 울게 했으니까!》

《아이!》

외등이 꺼졌다. 그제야 우리는 새벽이 왔음을 깨달았다. 25 층만장우에서 맞는 새벽, 하늘은 아직 검푸르고 땅에는 어둠이 깔려있는데 우리가 서있는곳은 새벽빛으로 희어스름했다. 하여 새벽은 마치 우리가 서있는곳에서부터 시작되는듯했다...

불빛, 소음, 바람... 밤의 통일거리는 세찬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여기저기에서 울려오는 방송원의 목소리는 제각기 자기단위의 위훈을 소개하고 축하하고있어서 흡사 폭풍우에 설레이는 바다같은 소음으로 안겨올뿐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다. 똑똑히 느낄수 있는것은 순간의 정체도 모르는 건설장의 숨결과 격렬한 박동이다.

모든 밤에 대한 추억은 새벽에 잇닿아있다. 밤은 저녁으로 시작되어 새벽으로 끝나기때문이다.

허나 그렇지 않은 추억도 있다. 단 하나의 밤에 대한 추억은...

《엇그제 밤에 있잖나? 거 4월 29일 밤에 말이야.》

뒤에서 오는 사람들속에서 귀익은 음성이 말하고있었다. 약을 올리는듯한 코에 걸린 음성은 틀림없는 동학의것이였다. 그런데 엇그제 밤이 어쨌다는것일까. 4월 29일밤, 그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집에 들어가니 어떻게 기분나쁜 소릴 하는지, 그래서 한바탕 싸웠지.》

홍, 싸움을 한 밤이여서 날자까지 기억하고있었군, 하기는 휴계실에서 한주일쯤 잔 때로부터 거의 한달이 되었으니 다시 싸울 주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었다. 우리가 말은 11 호동은 기초에서부터 25 층까지 자라났으나 동학의 가정은 키가 조금도 자라지 못했다. 아마 평생을 애써도 신을 수 없는 신발을 안해에게 신기려는것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엇그제 싸웠으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집으로 가는것일까. 어제 저녁에도 집으로 가는것 같았는데 틀림없이 집으로 갔었다. 어제는 내앞에서 걸어가는것을 보았었다.

이상한 변화였다.

《싸우고나니 말할게 있나? 우리 집 싸움은 조용한 싸움이야. 동네가 창피하게 떠들 필요가 있나? 말없이 돌아갔으면 그만인데, 이를테면<랭전>이지! ... 난 방안에 앉아서 제밥을 먹구 그건 부엌에서 먹구, 밥상을 밀어놓고는 텔레비존에 돌아앉아버렸지. 휴계실에 나오고말가 하고있는데 아, 불쑥 텔레비존에서 불쑥 그제 나오지 않겠나? 뭐? 뭐긴 뭐야? 탁구경기지! 우리 유일팀이 1 등한 결승경기말이야!... 정신없이 봤구만. 마지막엔 막 미칠것 같더라니까. 경기가 끝났을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데! 손바닥이 깨지게 박수를 치며 쳐보구 소리쳤구만. <정말 잘하는데! 이거야 눈물이 나서 견디겠나? 응?> 그러자 쳐도<야, 정말 막 시원해요!>하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있질 않겠나? 그다음 얼마지나서야 우리가 싸웠한 사이라는것이 문득 생각나더라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그제 다지. 마주보며 울며 웃고나서 다시 싸울땐이야 없지 않나?》

결결대는 웃음소리.

《그날밤엔 정말... 야 기막히더군!》

4월 29일, 그날밤의 북남유일팀의 탁구결승경기.

참으로 잊을수 없는 밤이였다...

그날밤이 다시금 현실처럼 선하게 떠올랐다.

그날밤 우리 소대는 갑작스런 야간작업을 하게

되었다. 대대장은 우리에게 량해를 구했다.

《래일은 우리가 내부미장을 완전히 끝내기로 결의한 날이 아니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온 모래라는게 어찌 자갈이 많은지 완전히 혼석이란 말이요. 그래서 3 소대가 오늘밤 모래선별을 좀 해줘야겠소. 피곤할줄은 아는데 어찌겠소? 래일작업이야 보장해야지. 두세시까지 해치우고 래일 오전까지 내치 꼭 쉬도록 하면 될것 같은데 어떻소. 동무들?》

가부를 물을 필요는 없었다. 마침 소대는 거의 전원이 남아있었다. 동학이가 안해와의 싸움이 벌어질 집으로 서둘러 갔고(그는 정상적인 날이면 집으로 가는 걸음이 제일 빠른 사람이였다.) 경팔이가 또 한차례 감기에 걸려 진료소에 누워있을뿐이였다.

그는 오는감기, 가는감기에 다 한번씩 걸리는듯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감기정류소》라고도 불렀다. 때문에 그는 어지간한 감기에는 늙는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의 감기는 지독한 독감이었던것이다.

《이제 시작하면 두시세시까지 끝낼수 있을거요.》

소대는 주섬주섬 작업준비를 했다. 소대장은 모래선별채와 필요한 공구들을 가지러 정금이를 데리고 앞서나가며 말했다.

《보도가 끝나면 모두 작업장에 나오라구!》

텔레비존에서는 보도를 하고있었던것이다. 보도도 일기에보도 끝났다.

《자- 슬슬 나가볼가?》

우리는 신발을 신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때 텔레비존을 끄려고 텔레비존앞에 다가섰던 친구가 놀랜 소리를 쳤다.

《이게 뭐야? 어-!》

신발을 신던 사람들은 머리를 돌렸고 이미 밖에 나섰던 사람들은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뭐야?》

《탁구야, 탁구! 우리 유일팀의 결승경기!》

《뭐?!》

일시에 모두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서로 텔레비존앞에 가까이 앉느라고 부산을 피웠다.

《이겼을가?》

《글쎄!》

맨뒤에서 다시 들어온 부소대장은 문쪽을 보며 걱정스레 중얼거렸다.

《소대장이 기다릴텐데.》

누구나 그 걱정을 들었으나 못들은척했다.

《잘하는데!》

《얼마나 시원하게 쳐!》

《우리 선수들이 잘 생겼어!》

《또 한알 올렸다.》

흥에 뜬 목소리들이 방안을 가득 채웠는데 돌연 문이 벌럭 열리더니 화가 난 목소리가 찬바람

을 달고 썩-날아들어왔다.

《도대체 뭘 하는거요? 일을 하자는거요, 말자는거요?》

모두들 아무 말도 못들은듯 텔레비존을 보며 꼼짝도 않고있었다. 머리를 돌리지도 않았다. 돌아보면 대답을 해야 하겠는데 대답할 말이 없었던것이다.

소대장은 천둥같이 화가 나서 신발을 벗어던지고 텔레비존앞으로 썩썩 걸어갔다. 주저없이 텔레비존스위치에 큰소리를 가져갔다. 그런데 그 손이 벗어버리고 화면을 보는 눈이 맹렬히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요? 무슨 경기요?》

그러자 일시에 와-하고 대답이 터져나왔다. 그 물음말을 기다렸던것이다. 제각기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소대장은 텔레비존을 들여다보며 엉거주춤했다.

《이거 야단났구만! 일을 어떻게 한다?》

모두들 활기를 띠었다.

《

경기를 보구 합시다! 보구!》

《그 다음에 본때있게 해치우면 그만 아닙니까?》

어느새 맨앞으로 비집고 나가있던 부소대장은 소대장의 꿈무늬를 끌어당겨 주저앉혔다.

《앉으시우! 이런 경길 언제 또 보겠소?》

소대장은 엉덩방아를 찧고 앉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불안한듯 몇번 몸을 움쑥거렸으나 잠시후에는 만사를 탁구알에 맡겨버렸다. 떠드는중에 그의 목소리가 제일 높은것 같았다.

나는 목덜미에 뜨거운 김이 끼었어지는것을 느끼고 돌아보았다. 경팔이었다. 진료소에서 빠져나온듯 눈에는 높은 열을 말해주는 피발이 서있었다.

《좀 어떻나?》

나의 물음에 그는 동문서답격의 대답을 했다.

《두점 앞섰어. 우리가!》

얼마후 잔뜩 약이 올라 뛰여온 진료소간호원이 그더러 당장 돌아가자고 했을 때도 그는 그 비슷한 대답을 했다.

《쉴! 조용하오. 동점이요, 동점!》

《동점은 무슨 동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제길할! 8대 8이란 말이요!》

그는 간호원의 손을 책 뿌리치며 텔레비존을 가리켰다.

간호원은 어리둥절해서 그의 손이 가리키는 화면을 보았다. 그러더니 눈길은 화면에 《녹아붙어 버렸다.》

또 물이 열렸다. 정금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텔레비존앞에 앉아있

는 소대장을 보고는 입까지 벌렸다. 자기를 밖에 세워둔채 사람들을 불러온다면 소대장이 텔레비존을 보고 앉아있는데문일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영문을 알아차리자 휴게실에 들어와 앉아버렸다.

3 회전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밖에서 큰소리가 들렸다.

《3 소대가 어떻게 된 일ियो? 열한시가 다 됐는데 아직 나오지를 않으니...》

대대장의 목소리였다. 뒤이어 문이 벌컥 열렸다.

《아니? 이진 뭐요?》

그의 눈길은 방안을 휩 둘러서 텔레비존앞에 붙어앉은 소대장에게 딱 멎었다.

《소대장동무, 정신있소?》

소대장은 그제야 돌아보았는데 눈꼬리는 그냥 화면으로 향해있었다.

《뭘말입니까?》

《뭘라니? 밤으로 해놓아야 할 일을 두고 텔레비존을 보고있는건 뭐요?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졌는데 텔레비존구경이라니 말이 되요? 텔레비존구경이?》

《텔레비존구경도 해야지요.》

《뭘, 뭐요?》

그제야 완전히 현실로 돌아온듯 소대장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대장동지, 이거 안됐습디다. 이걸 마저 보고 나가서 몇배로 해치울테니 걱정마십시오. 아, 이런 경기를 보지 않고서야 일이 손에 잡힙니까?》

《아, 아 됐소! 됐소!》

하고 손을 짓는 대대장의 눈에는 벌써 탁구알이 비껴있었다. 그는 나를 밀치며 들어와 앉았다.

《큰일날번했는걸? 모르고 지날번했으니.》

소대장은 《탁구장》으로 돌아앉으며 옆의 친구에게 물었다.

《몇대 몇이야?》

《15대 15예요.》

《뭘, 벌써 그렇게 됐어?》

한쪽에서는 말다툼이 벌어졌다.

《좀 조용하라구! 이거야 계속<저걸 어떻게? 저걸 어떻게?>하니 제대로 볼수가 있어?》

《누가 들으라던가? 나혼자 하는 소리를 듣고 야단이야?》

《남의 귀밑에서 계속 떠들어대니 그러지!》

대대장이 버럭 소리질렀다.

《조용하오! 이래가지구야 제대로 보겠소? 아이들처럼 떠들어대면서...》

그러나 흥분한 그자신부터가 어린애같았다.

그밤은 누구나 다 어린애로 된것 같았다. 근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북남유일팀, 하나로 된 조선, 통일된 조선이 세계의 앞에서 자기의 힘을 시위하고있었다. 환성과 박수, 신음소리...



마지막 19대 19를 기록했을 때는 심장이 멎는것 같았다. 정금은 두눈을 꼭 감고있었다. 힘껏 마주잡은 두손은 떨리고있었다.

누구나 모두 표정도 자세도 강직되어버린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한알을 통쾌하게 넣었을 때는 온 휴계실이 떠나갈듯 환성이 일었다. 아마 이 나라의 어느곳에서나 모두 같았을것이다. 동학의 집에서의 《가정싸움》도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화해에 이르렀을것이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서야 누구의 눈에나 눈물이 가득 고여있음을 깨달았다. 너도나도 같았다.

《통일되면 정말 무서운게 없겠네!》

《그럼! 통일되면 누가 감히 우릴 당해?》

《그런데 왜 가로막는가말이야? 그놈들은!》

《그것들이 없으면야 통일된지도 옛날이지, 미국놈들과 괴뢰역도들때문에...》

《에- 그것들을 그제!》

일을 시작했으나 누구도 입을 다물지 않았다. 모두 똑같이 보았건만 자기만 본듯이 말하고 또 말했다. 공연히 웃고 떠들었다. 그것들을 저주도 했다.

그런데 얼마후 경팔이가 나타났다. 보나마나 진료소에서 도망쳐나온것이였다.

소대장이 당장 돌아가라고 하자 그는 벌컥 성을 냈다.

《어떻게 누워있을수 있습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데! 이런 때 말을 못하면 미치고말겁니다!》

사람이 너무 가슴이 벅찰 때는 그것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한다. 혼자 있다는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경팔은 소대장이 미처 대답을 하기전에 말을 냈다 이어됐다.

《사람이 하고싶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병에 걸리거나 죽는대요. 옛날에 귀가 말구처럼 생긴 왕이 있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리발사박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죽겠고 말하지 않고 참으려니 병마저 생겼단말이에

요..》

《됐소, 됐소.》

하고 소대장은 돌아서버렸다.

《할말을 못해서 독감에라도 걸린것 같군!》

그날밤 무슨 이야기들을 했던지 나는 기억할수 없다. 참으로 많은 말을 했다는것만은 기억한다. 그리고 일도 여느때보다 한몫반이나 했던것을 기억한다. 이야기도 시원할만큼 실컷 했고 열도 시원할만큼 많이 했다. 그 밤 온 소대와 함께 있었던것은 하나의 큰 행복이였다. 야간작업이 아니었다라면 우리 소대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밤일을 농쳤을것이다.

《오늘밤만 지나면 래일아침엔 통일된 날이 올것갈구만!》

정말이다. 그밤은 그렇게 생각되였었다. 마치 그밤은 통일의 전날밤 같았다. 통일의 그 전날밤... 사소한 불쾌감도 큰 불쾌감도 깡그리 잊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끝없이 이야기하고싶었던 그 밤, 오직 기쁨과 환희, 흥분과 기대만으로 충만되였던 그밤,...

그밤으로부터 벌써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지금 걸고있는 이밤이 그밤의 연장인듯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밤이 밝으면 통일의 소식을 듣게 될듯한 기대를 가진다.

잊혀지지 않는 밤들... 그 밤들에는 모두 새벽이 있었고 하루밤의 끝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밤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다.

통일의 그 전날밤... 나는 그 전날밤의 거리를 걸고있다. 씩씩이 엇갈리는 불빛, 끝없는 소음, 대기속에서 풍겨오는 정열적인 콩크리트냄새와 자동차배기가스냄새...

잊혀지지 않는 무수한 밤들을 나는 추억의 걸음으로 짊으며 통일거리를 걷는다. 이렇게 걷는다면 그 모든 밤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새벽을 맞지 못한 4월의 그밤의 한 부분처럼 느껴진다.

불빛으로 흰해진 하늘, 마치 동터오는듯하다. 나에게는 그 불빛들이 통일의 새아침을 불러오는 서광처럼 느껴진다...

## 그의 집 대문

윤승상

## (1)

키낮은 담장을 두른 아담한 단층집 대문앞에서 용석은 우뚝 걸음을 멈췄다. 대문이 걸려있었다. 담장에 잇대어 세운 일각문이였다. 폴색 뽕끼칠을 한, 그저 수수한 농촌집 대문이였다. 담장너머 빈집트락에서는 닭들만이 하얗게 모여 구구거렸다. 빨간 기와지붕마루로 뉘엿뉘엿 저녁해가 기울고있었다.

빈집 대문앞에, 그것도 처녀의 집앞에 서있는 것이 계면책어져서 용석은 담장을 에돌아 큰길로 나갔다. 마을어구에서 현순이를 기다릴셈이였다.

용석은 지금 프락포르양성소를 졸업하고 돌아온 길이었다. 그는 읍에서부터 60리나 되는 길을 한번도 쉬지 않고 걸어왔다. 래일아침 배스를 탈가하다가 내쳐 걷기로 결심한 그였다. 한시가 급했다. 이제야 보란듯이 현순이앞에 면허증을 내대고 말할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자, 이제 동무네 집 문턱을 넘어서도 되겠소?》

얼굴을 붉히며 더 대꾸질을 못할 현순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서 용석은 걸음걸음 가볍고 흥겹기만 하였다.

현순이는 사실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처녀는 아니였지만 매력이 있었다. 보통키에 강기가 느껴지는 그의 몸매는 언제나 탄력이 있어보였고 얼굴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남자들처럼 모자를 쓰고 아래우가 달린 간편한 곤색작업복을 입고 프락포르운전칸에 척 올라앉은 그의 모습은 언제나 자신만만해보였다. 어깨에 닿을듯 모자밑으로 물결쳐내린 검은 머리카락, 속눈썹이 짙은 크고 순해보이는 눈, 가무늬이 탄 불이며 옅은 코며 웃음으로 열린 얇은 입술은 아름다움보다도 건강미로 빛났다. 가슴속에서부터 뿜어나는 그 어떤 희망의 빛이 온몸에 생기를 주는듯싶었다. 아마도 가공하지 않은 그 순결하고 신심에 넘친 자태에 용석은 그만 반해버렸는지 모른다.

두해전, 이곳 종합농장으로 제대되어 올 때만 해도 용석은 자기 생활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는 짐작하지 못했다. 자기가 현순이라는 처녀에게 마음끌려 이처럼 프락포르와 인연을 맺게 될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농촌에 진출할것을 결심하고 탄원하여 동무들과 함께 왔지만 힘만으로는 농사일을 할수가 없다는것을 느꼈다. 과학농사의 시대에 자기 본분을 다하자

면 알아야 했다. 한가지 일에 붙으면 끝장을 보아야하는 성미여서 그는 직심스럽게 공부를 했다.

그날은 봄철의 어느 실참이었다. 드넓은 룡호벌 한끝에서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오르고 발두렁 어디선가 씩씩이 종다리가 우짚고있었다. 그러나 용석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채 발머리에 홀로 앉아 책에만 정신을 쏟고있었다. 어찌나 책에 열중했는지 그는 프락포르가 뒤걸음쳐 다가오는것도 몰랐다. 곁에 와서 경적 대신 툽툽... 요란스레 발동소리를 울리며 프락포르가 멎었을 때에야 용석은 깜짝 놀라 머리를 들었다.

《비키라요, 동무!》

운전실 뒤창으로 현순의 동그란 얼굴이 보였다. 용석은 훌쩍 일어나서 황급히 옆으로 물러났다.

《호호호... 그렇게 멀리 달아날건 없어요. 미안하지만 작조기를 좀 달아주세요.》

현순은 뒤창문을 드륵 밀어열더니 고개를 내여 밀고 맑은 목소리로 웨쳤다. 웃음때문에 큰 눈은 절반쯤 가늘게 꼬프러졌고 얇은 입술은 가지런한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방싯 열렸다.

발머리에는 작조기가 놓여있었다, 처녀에게 쫓기듯한 자신의 모양이 우습게 여겨져서 용석은 빙긋 미소를 지으며 작조기걸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알수가 없었다. 프락포르가 뒤걸음질하며 작조기 있는대로 점점 다가들수록 용석은 당황해졌다.

《뭘 꾸물거려요? 우선 견인대를 벌려잡고 한쪽부터 맞춰요. 조금 더! 아이, 참...》

시키는대로 용석은 작조기의 련결부에 한쪽 견인대를 맞추려고 했으나 잘되지 않았다. 답답해난듯 현순이가 차에서 뛰어내렸다. 처녀는 꺾싼 솜씨로 견인대를 밀어끼우더니 날래게 이것저것을 주물러대며 순식간에 작조기를 고정시켰다.

《용석동문 참... 책밖에 모르는군요. 프락포르에 대해선 전혀 무관심하구...》

처녀는 멍청해 서있는 용석을 흘겨보았다. 밑지 않게 반짝거리는 그 눈길에 부딪치자 용석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처녀에게 숙보인 부끄러움보다도 또 한번 꼴을 먹었구나 하는 때늦은 깨달음과 일종의 반발심에서 오는 열기라 할가. 그는 가슴속에서 사나이의 자존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용석은 벌써 다섯번도 넘게 처녀에게서 이런 뜻밖의 봉변을 받아오느라였다.

서두를 때 갈아서는 작조기를 달고 인츰 어디

론가 떠나버릴것 같던 현순이가 녹장을 부리며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용석이가 보던 책을 땅우에서 집어들고 후르르 번지더니 해묵은 누런 잎속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돌아나는 발머리의 잔디판에 풀썩 주저앉는것이였다.

《무슨 공불 그렇게 열심히 해요? 남들은 모여 앉아 오락회를 하는데... 오,<토양학>이군요! 용석동문 대단한 학자가 되려나부죠?》

용석은 처녀의 손에서 책을 뺏 나구어냈다. 그리고는 저드랑밑에 그것을 끼우고 화난듯이 성냥을 그이 담배에 불을 달았다. 처녀의 눈은 금시에 커졌다. 그런 놀람움은 한순간이고 입가에는 또다시 미소가 떠올랐다.

《끝났어요? 사내대장부가 췌췌하게시리...》

《허, 참...》

용석은 말이 나가지 않아 웃고말았다. 잠시후에 처녀가 또 시까스르듯 말을 걸었다.

《프락포르는 배우지 않겠어요?》

《배우겠다면 뭐 동무가 가르쳐주겠소?》

《호호호... 그럼요. 배워줄수 있지요!》

《싫소. 동무한테서 프락푼을 배우려다간 녀살이 빠지고말겠소.》

생각과는 달리 심사 비틀어진 말만 입에서 튀어나가는것이 용석은 스스로도 이상스럽게 느껴졌다. 현순이가 프락포르에 관심을 두라는것은 바로 자기, 처녀에게 관심을 두라는 말과 같이 생각되어 기쁘기만 한 용석이였다. 마음과 언행에 불일치가 오는 까닭을 그는 알수가 없었다.

《흥 싫으면 그만뒤요!》

처녀는 링기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훌쩍 차에 올랐다. 작조기가 봉- 들리더니 프락포르의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용석은 처녀가 이처럼 떠나버리는것이 아쉬웠다. 공연히 심장만 흔들어놓고 처녀는 가고있다. 왜 진작 다정한 말 한마디 못해주었을까? 처녀앞에서 기가 죽어 움짱 못한 자신이 바보처럼 생각되였다. 그는 처녀와 함께 있는것이, 그 맑고 명랑한 목소리를 듣는것이 싫지 않았다. 처녀가 자기앞에 불현듯 나타나군하는데는 다른 속심이 있는것 같았다. 자기에게 처녀가 마음결린 모양이라고 그는 짐작하였다. 쾌활하나 너무 도고한탓에 처녀는 속에 품은 말을 쏟아지는 못하고 코대만 세우다가 그냥 달아나는것 같았다. 어리석은 짐작인지는 몰라도 용석은 이런 생각을 버릴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가 처녀한테로 한치한치 이끌려가는것을 느꼈다. 이런 처녀와 함께라면 생활이 늘 즐겁고 아름다울것 같았다. 생각하는 모든것은 현실로 되고 익은 열매 따듯 행복을 거두어들일것 같았다 만사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듯 하나 매양 자신있게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처녀의 모습이 그는 마음에 들었다. 처녀는 프락포르를 모는것을 세상살이의 전부로 여기는상싶었다. 그가 이처럼 궁지로움을

안고 살아가는것은 다 그의 부모들때문이라고 용석은 짐작하였다.

처녀가 다름아닌 이름난 프락포르운전수가정 딸인줄을 용석은 여기 온 첫날에 벌써 알게 되였다. 제대군인환영모임때 그는 바로 현순이한테서 향기 그윽한 꽃묶음을 받았던것이다.

《이 꽃이 공짜 아니예요.》

《나두 공짜는 싫소. 헌데 뭘로 값을 치를까?》

《다른게 없어요.. 프락포르운전수가 되는거죠!》

인사말이 그럴듯해서 모임뒤끝에 용석은 은밀히 처녀에 대해 알아보았었다.

그 말은 결코 인사말로 그친것이 아니였다. 그때부터 용석의 일거일동은 처녀의 관심속에 든것 같았다. 사람들속을 빠져나와 홀로 조용히 책을 읽느라면 처녀는 어느새 알고 곁에 다가와서 따벌처럼 따끔 침을 놓고는 웃음을 날리며 달아나는것이였다.

나날이 흐를수록 용석의 마음은 처녀에게로 기울어졌다, 이제는 외파로 앉아 책을 볼라치면 의례히 처녀가 또 나타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군하였다.

그는 스스로도 알수 없게 발동소리에 귀가 솔깃해졌다. 합창으로 울리는 여러대의 동음속에서도 그는 현순이의 차소리를 곧잘 가려냈다. 멀리 지나가는 현순이의 프락포르만 보고도 그에게 미소를 보내고있는 자신을 용석은 때없이 발견하곤 했다.

용석은 그날밤 제대군인합숙에 홀로 누워있었다. 함께 제대된 동무들 가운데서 세명은 벌써 안해를 얻어 새살림을 시작했고 두명은 또 잔치를 하러 고향으로 떠난 뒤였다. 용석은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책을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불을 끄고 누웠다. 고향생각이 났다. 그의 고향은 여기서 멀지 않은 삼천땅이였다. 부모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집에는 형이 살고있었다. 전번에 휴가를 받고 고향에 갔을 때 형이며 형수가 어디에 보아든 처녀가 있다고 묻자 용석은 천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물론 선을 보러 가자는 그들의 성화를 밀막아버리려는 심산으로 그러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현순이를 생각했던것이다. 정말이지 현순이를 내놓고 다른 처녀를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그를 알기 위해, 현순이와 만나기 위해 용석은 제대배낭을 이 룡연땅에 풀어놓은것 같았다. 현순이가 없다면 여기에 마음불일 생활이 없을것 같았다. 마치 자기의 삶이 현순이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듯이 느껴졌다.

밤의 고요를 흔들며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쉬엄없는 그 합창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프락포르발동소리가 멀리, 가까이에서 통통거렸다.

용석은 아까부터 현순이 차의 발동소리를 가늠해듣고있었다. 그를 불러내는 목소리처럼 발동소

리는 높고 고르롭게 울렸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력지를 들었다. 그러다가 낮게 잣아들면 눈을 번쩍 뜨고 달빛이 흘러드는 창문쪽을 바라보았다. 현순이는 개답틀에서 눈을 감고있는걸 같았다. 용석은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군하면서 마치 보습날을 번져지는 흙이랑처럼 자꾸만 몸을 뒤척이였다.

문득 발동소리가 멎었다. 용석은 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개구리울음소리며 다른 프락포르들의 발동소리는 귀따갑게 들렸으나 처녀의 목소리, 그 정다운 발동소리를 들리지 않았다. 그는 슬며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봄밤의 싸늘한 공기와 함께 모든 음향이 한결 크게 방안으로 흘러들었다. 용석은 마침내 놓쳐버렸던 그 발동소리를 찾아냈다. 멀리 프락포르의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현순이의 눈빛과도 같이 자기를 마주보는 것 같았다.

(못견디겠서, 나가야지...)

용석은 끝내 걸옷을 주어입고 밖으로 나섰어.

다른 프락포르들의 불빛을 피해 멀리 현순이가 일하는 논머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기다리기라도 했단듯 현순이가 차를 몰고 두렁밧으로 다가왔다. 전조등빛이 군복입은 용석을 휩쌌다.

《현순동무!》

용석은 벋긋 웃으며 팔을 흔들었다. 좀더 가까이 오라는듯... 그러나 프락פור는 한발자국앞에 와서 멎더니 보습을 추켜들면서 인춤 뒤로 물러나고말았다. 운전칸에서 처녀의 야무진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어떻게 나왔어요?》

《이리 좀 오오! 안, 내가 타겠소. 차에...》

용석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뒤걸음질하는 프락포르를 쫓아갔다. 차가 멎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겼소. 가슴속에서 불이...》

용석은 차에 오르면서 정말 화염을 내뿜듯 뜨거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난 잠을 못자겠소.》

《호호호... 누가 동무의 귀에 대고 복이라도 치는가요?》

《누군 누구겠소. 동무이지... 잠자리에 누우면 이 발동소리가 복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단말이요!》

《어쩌나? 그럼 동무가 나한테...?》

《그렇소. 난 동무한테 반했소. 동문 내가 싫소?》

갑자기 차가 앞으로 움직이는바람에 용석은 모로쓰러지듯하며 안장에 주저앉았다. 현순은 대답 대신 요란스레 발동소리를 울리었다.

《왜 대답이 없소?》

그래도 현순이는 말이 없다. 발동소리만 드세차게 밤공기를 흔든다. 용석은 속이 답답해났다.

쾌활하던 처녀가 이다지도 말이 없다니... 싫으면 싫다고 진작 말을 해야 할게 아닌가?

차가 눈을 두바퀴나 돌고났을 때에야 현순이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난 동무가... 싫지 않아요. 하지만 동문 아직 꽃다발값을...》

《꽃다발값?... 허허, 난 동무에 대한 사랑으로 그 값을 치르겠소. 어떻소, 그게 싫소?》

용석은 숨차게 부르짖었다. 하지만 현순이는 또 잠잠해졌다. 발동소리, 발동소리... 이것이 그의 대답이란말인가?

《용석동무.》

한참만에 현순이가 그를 돌아보았다.

《프락포르 정말 안배우겠나요?... 난 그 값을 다르게는 받고싶지 않아요. ... 명심해두는게 좋아요. 프락포르운전수가 되기전엔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설수 없다는걸...》

(프락포르운전수?!)

용석은 한대 얻어맞은듯 머리가 뻥해졌다. 자기가 우둔하게 생각되었다. 프락포르에 관심하고 그것을 배우라는 현순의 말은 결코 그 어떤 유혹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이었다. 프락포르를 떠나 살수 없는 처녀이기에 총각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가. 옳다! 프락포르운전수가 되기전에 어떻게 그 집 대문을 열수 있으랴. 프락포르를 배우자. 그다음 농산기술도 익히자. 지금은 프락포르로 농사를 짓는 때가 아닌가!

그날밤 용석은 다른 말 없이 현순이와 헤어졌고 보름뒤에는 프락포르양성소로 떠나갔다...

용석은 마을길을 걸으며 어제나저제나 처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의 집 대문은 여전히 닫긴채로 있었다. 애타게 현순이가 보고싶었다.

## (2)

현순은 어릴적부터 프락포르발동소리를 신비로운 노래처럼 들어왔다. 높고도 은근한 그 노래의 선율에 따라 사계절이 바뀌며 들이 푸르러지고 누렇게 익어 춤을 추는게라고 생각하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었이었다.

바쁜 모내기철이면 아기차에 실려 현순이는 별로 나갔다. 어머니는 멀리에서 논물썰레를 치다가도 아기차가 나타나면 두렁곁에 프락포르를 멈추고 마중나왔다. 하얀 위생복을 입은 탁아소보육원의 손길에 받들려 기름내 풍기는 어머니품에 안겨지면 벌써 두손을 호비작거리며 젖을 달라고 보채곤했다. 그런 시절이 물론 기억에 남아있을리는 없다. 하지만 현순은 프락포르운전수가 되던 날 누군가가 옛말하듯 감회롭게 들려준 이야기속에서 자신의 유년기를 상상해냈다. 정말로 그는 발동소리를 자장가로 듣고 기름내를 향기로

말으며 자라났다.

철들기전 소녀시절에도 그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가끔 벌로 나갔다. 어린 마음에 그는 프락포르를 시샘했다. 어머니가 프락포르에만 정이 들어 벌에서 사는것이 야속했다. 자기보다도 어머니는 프락포르를 더 사랑하는것 같았다.

며칠째 보지 못한 어머니가 운전실문을 열고 미소어린 얼굴을 내밀면 현순이는 우정 불이 부은채하며 입술까지 비쭉 내밀어보였다.

《호호, 우리 현순이가 뿌르통했구나. 아무렴 네가 곱지 프락포르가 곱겠니?》

벌에 찾아온 딸을 운전칸에 올리았으며 어머니는 조용히 달래었다.

《이제 가을갈이가 끝나면 어머니도 현순이랑 함께 집에서 잠을 자지... 지금은 아버지가 바빠하시니 내 혼자 프락포르를 타서 그런다. 작은 엄마랑 고모랑 모두들 프락포르를 새로 타니 아버지가 그들을 돌봐줘야지. 어머니님 논밭을 갈구...》

프락포르를 몰면서 어머니는 줄곧 이야기했다.

《현순아, 앞을 좀 보렴. 저 넓은 벌판이 지금이 발동소리를 드고있단다. 땅은 프락포르발동소리를 제일 좋아하지. 그래서 어머니 발동소리를 멈출수가 없구나. 한해농사를 짓느라 수고한 땅을 좀 쉬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갈아엎혀야 땅은 한 겨울동안 또 풍년꿈을 꾸면서 편히 잠들수 있다는구나.》

《땅이 그렇게 말하나?》

《그럼, 땅은 듣기도 하구 보기도 하구 말도 한다. 땅은 다 알고있단다. 어느게 잠을 자라는 발동소리인지, 어느게 봄이 왔다는 소리인지... 발동소리에 잠들고 꿈을 깨는게 땅이란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현순이는 불에 웃음을 지었다.

현순이는 발동소리에 이끌려 매일같이 벌러 나갔다. 가무속이 탄 짧은 다리로 춤추듯이 포전길을 달려갈적에 동심은 훨훨 날개를 펼치었다. 곡식물의 설레임소리는 정녕 발동소리에 화답하는 땅의 속삭임같았고 포기포기 억만 일사귀들에 함초름이 맺힌 이슬방울들은 대지의 눈동자처럼 생각되었다. 정말로 땅은 보고 듣고 말하는게 아닐가싶었다. 비록 말 못하는 땅이라해도 어머니는 자기 심중을 발동소리에 담아 울리는게라고 믿어졌다. 현순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토록 프락포르에 마음바치며 들을 못떠나는지 알게 되었고 더더욱 벌이 정다와졌다. 작은 가슴은 샘이 풍풍 솟아오르는듯한 기쁨으로 가득찼다.

그 기쁨속에서 현순이는 열세살을 맞이했다. 그해에 그는 기쁨을 초월한 크나큰 감격이 집대문을 열고 들어서는것을 보았다.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수령님께서 선물로

보내시는 프락포르를 몰고 돌아온것이였다. 현순이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세계에 잠겼다. 한가정에 아홉명이 다 운전수이니 대단하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이 강대하고 부강하며 농촌이 왕성하게 기계화되는것이라고 거듭거듭 치하해주었다는 아버지수령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을 그도 뵈옵는것만 같았다.

그날밤 현순이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자기도 프락포르를 모는 꿈이였다. ...꽃테프를 두르고 눈처럼 소복이 꽃보라를 맞은 프락포르를 몰고 현순이는 벌로 나갔다. 발동소리는 노래처럼 은근하고 부드럽러웠다. 보습을 땅에 대이니 춤추듯 흙이랑이 번져지는데 그 물결치는 이랑이랑은 금시에 푸르른 벼숲으로 변한다. 일렁이는 푸른 벼바다우로 현순은 여전히 프락포르를 몰아간다. 그의 뒤로는 안개처럼 약물이 뿜어난다. 안개가 스러지니 황홀한 금빛바다가 펼쳐진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이 소꼬리마냥 길게 늘어져 흐느적인다... 하루밤사이에 웅근 한해를 사는 꿈이였다. 한해에 세번 봄이 오고 세번 가을이 오는 꿈이였다...

지금도 현순이에게는 그 꿈이 신비로운 환영처럼 가슴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자기를 소녀처럼 생각했고 용석이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는 너무도 놀라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지경이였다. 현순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프락포르운전수가 되기를 바랐고 용석이게도 그렇게 대했을 뿐이였다. 그것이 청년의 가슴속에 애정의 씨앗으로 심어질줄 그 어이 짐작이나 했으랴.

첫 충격을 받고 현순은 정신을 차렸다. 아직 할일이 많고 꿈이 그대로 남아있는 때에 다른 생각을 한다는것을 그는 허용할수가 없었다. 자기는 못처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느때없이 설레이는것이였다. 그후에도 청년은 문득문득 밤일하는 논머리에 나타나곤 하였다. 프락포르를 배우겠다고, 배워달라고 말하는 그 진정이 고마웠지만 용석이앞에서 그는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되어 용석은 군에 있는 양성소를 떠났고 끝내는 면허증을 받아안고 오늘 현순이앞에 다시금 나타난것이다.

신화산너머로 해가 잠겨들면서 서녘하늘에 분홍빛 저녁노을을 뿌려주고있었다. 용석은 현순이와 나란히 서서 마을길을 걸어갔다.

《그래 면허증은 받았어요?》

《받았소. 그러니 이제 동무네 집 문턱을 넘어서도 되겠지?》

용석은 능청스럽게 입귀를 실룩거리며 물었다.

《호호, 그게 무슨 통행증인가요? 그것 없이도 우리 집에야 누구든 맘대로 드나들잖나요!》

《거야 물론... 동무네 집문턱이 뭐 높아서 그런

건 아니구…》

처녀가 자기의 말뜻을 알아채지 못한것 같아 용석은 속이 바질바질 타들었다. 어서 프락포르 운전수가 되기를 바라던 현순이가 아니었던가.

《야, 참 노을이 곱기도 하네.》

현순은 서녘하늘로 눈길을 던지며 탄전을 부렸다. 노을은 참말로 아름다웠다. 해는 꼴깍 산너머로 숨어들고 분홍빛이며 감빛, 보라빛이 어우러진 저녁노을이 엷은 먼막처럼 고요히 마을에 드리우고있었다.

《그래 아직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셈이요?》

용석은 다시금 현순이를 돌아보며 보채듯 말했다.

《호호, 동문 참

프락포르운전수만 되면 뭐 단줄 아세요? 먼허 증만 가지고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승낙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잘 가세요. 래일 또 만나지요.》

어느새 합숙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이르렀다. 현순은 총총히 자기네 집쪽으로 멀어져갔다. 용석은 멍히 길복판에 서서 처녀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처녀는 자기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것이였다. 다시금 대문이 닫기는 순간 용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 (3)

안개가 끼여 뿌잇한 들길 멀리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누기찬 들에 해빛이 내렸다. 가을한 버그루에서 연하게 자라오른 두벌씩들에 이슬이 유리알처럼 맺혀 떨어지고있었다. 발동소리를 울리며 프락포르가 지나가면 이슬은 무지개마냥 반짝거리며 일끝에서 떨어져내려 땅에 잣아들곤 하였다. 그 땅을 용석은 흥겹게 갈아엎고있다.

그는 처음으로 밤일을 해보았다. 양성소를 나오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용석이도 얼마간 현순의 아버지 박진구에게서 운전실습을 받았다. 그 기간은 성실한 일본새를 배우는 뜻깊은 나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용석은 실습을 마치자 곧 그 차에 교대운전수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된것이 나쁜 일은 아니였지만 용석은 마음속으로 허전한 느낌을 버릴수가 없었다. 그는 틀림없이 현순의 차로 가게 되리라 믿었었다. 교대없이 차를 타는 것은 현순이뿐이였다. 하지만 총각이며 햇내기운전수인 용석을 그한테 보낼수가 없다는것이다. 그래서 현순이 차에는 그의 어머니가 가고 용석은 그 어머니의 자리에 들어앉게 되었다.

용석은 생각이 복잡해졌다. 내가 현순이의 차로가지 못할 근거는 무엇인가? 현순의 아버지, 어머니도 처녀총각시절에 함께 차를 타면서 애정을 무르익혔다지 않는가? 그 집 식구들이 나를

담락치않게 여기는게 아닐가?

그의 가슴속에서는 은근히 반발심이 끓어올랐다. 그 사이에 용석은 운전기술이 상당한 정도로 늘었고 련결농기계들을 맞추며 조종하는 일도, 경구를 잡고 돌머리를 떼는 방법도 모두 터득하였다. 그는 자기의 키가 자라오르는것을 매일처럼 느꼈다. 하지만 책임운전수는 그에게 낯일만을 시켰다. 용석은 그것이 불만스러웠다. 아직도 자기 기능을 믿지 못해 그러는것 같아 어느날 교대시간에는 슬쩍 한마디 건의여쭙다.

《책임운전수동지, 저는 왜 밤일을 하면 안됩니까?》

《왜 밤일을 하고싶은가? 허허, 내가 요즘 낮에 다른 일을 벌려놔서 그러니 좀 참으라구. 자네도 이젠 당당한 운전수라는걸 나도 아네. 알아…》

질은 눈섭아래서 큰 눈이 늘 웃고있어 인상이 좋은 박진구였다. 어느덧 젊은 마음을 넘겨짚고 량해를 구하듯하는 그앞에서 용석은 더 할 말이 없었다. 무슨 일을 벌려왔을가? 밤에는 프락포르를 타고 낮에는 또 다른 일을 한다니 휴식은 언제한다는건가?

《무슨 일이지 제가 좀 도와드릴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움을 좀 받자던 참이야.》

박진구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작업복주머니에서 걸가위가 빨간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는 수첩갈피에서 여러겹 접은 하얀 종이장을 뽑아내여 공구주머니우에 펼쳐놓았다. 용석은 한걸음 다가가 쭈크리고앉았다. 종이우에는 딱히 대중할수 없는 기계의 도면이 그려져있었다.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회전써레요. 모판을 다루는…》

용석은 감동어린 눈길로 책임운전수를 쳐다보았다. 상큼하게 살이 빠진 두볼, 디푹한 코, 웃음때문에 열린 푸릿한 입술… 그 입술에는 허영게 거슬미가 일었고 눈언저리에는 퍼그나 잔주름이 늘어났다. 온 얼굴에 피로와 고심의 흔적이 찍혀있었다. 나는 왜 지금껏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는가, 책임운전수가 이지경이 되도록 그래 눈치도 못챜단말인가? 고작 밤일을 안시킨다고 투정질이었으니…

《이건 고랑을 채는 보습날이구 이건 썰매식발판이야…》

박진구가 설명을 시작했다. 두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면우에 머리를 수그리였다. 용석은 정신을 가다듬고 박진구의 손가락이 움직이는것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이건 가로회전을 수직회전으로 바꾸는 장치인데 전동을 받으면 이놈이 흙을 부서뜨리며 돌아가게 되여있지. 이걸 흙이 밖으로 뿌려지는걸 막아주는 판대기였다. 헌데 문제거리는 여기에 흙이 쌓이면서 과상 량열이 높아지지 않을가 하는거야. 어디 좀 생각해보라구. 무슨 방법이 없을

가?》

용석의 머리속에서는 기계의 동작이 상상의 필립으로 재현되며 그대로 보이는것만 같았다. 한장의 작은 도면이 아니라 움직이는 기계우에 그가 타고있는듯이 생각되었다.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책임운전수는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문제를 놓치고있는것 같았다. 랑옆이 높아지는것쯤이야 무슨 큰 문제인가? 랑쪽 뒤끝에 철막대기만 사선으로 붙여주어도 흠이 가운데로 밀려들게 아닌가!... 용석은 강한 흥분이 온몸에 퍼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박진구를 돌아보았다.

《그래 무얼 궁리해냈나?》

박진구는 웃는 눈길로 마주보았다. 용석은 말보다도 먼저 숨결이 가빠올라서 짐을 끌걱 삼킨 다음 입을 열었다. 그가 말끔히 생각을 털어놓았을 때 박진구의 터슬터슬한 입술이 병글썩하게 열리었다.

《바로 그거요! 뻘어. 용쿠만 용해!...》

그날부터 기계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창안을 도우면서 용석은 실로 많은것을 배웠다. 이제는 기계가 완성한 모양새를 갖추고 태어났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시운전하게 된다. 오늘의 시운전을 위해서 용석은 어제저녁 싹싸우듯해서 겨우 밤교대를 탔던것이다. 박진구는 낮에 트랙포트를 탄 용석을 밤에까지 일시킬수 없어 들어가라고 떠밀고 용석은 기계를 만드느라 꼬박 열흘을 쉬지 못한 책임운전수를 떠는 그대로 들수 없어 떠밀며 다루었다. 밤새 편히 쉬었을까? 하루 밀린 잠 열흘 간다는게 열흘 밀린 잠이니 몇 밤이나 쉬어야 피곤이 풀릴까? 용석은 지난 밤이 백날만큼 길었으면 했다. 그런데 어느덧 날이 밝고 해가 떠오르지 않았는가. 안개는 가신듯 사라지고 청신한 가을해빛이 차창에 부서졌다.

용석은 누가 맞은편 논두렁우에 서서 손짓하는것을 얼핏 보았다. 벌써 나왔구나. 좀더 쉬지 않구... 하고나서 자세히 보니 그는 책임운전수가 아니었다. 현순이었다. 모자를 쓰고 진곤색작업복을 입은 그의 오른손에는 무엇인가를 꾸려잡은 화려한 꽃보자기가 들려있었다. 반가움보다도 불현듯 두려움이 용석의 마음을 죄었다, 그것은 처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운전수가 아예 쓰러진채 일어나지 못한것 같은 근심과 위구에 오는 두려움이였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현순이가 여기에 나타났단말인가? 《아버지가 못 일어났소?》하고 소리치고싶은것을 용석은 억지로 혀끝으로 눌러버렸다. 그는 처녀가 서있는 논두렁까지가서야 차를 멈추고 운전실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도 그가 내리지 않으니 현순이가 차결으로 다가왔다.

《어서 내려와요. 아침밥이에요.》

현순이는 꽃보자기에 싹것을 들어보이며 동그란 얼굴에 웃음을 담았다. 하지만 공연스레 마음

이 무거워진 용석은 운전대를 잡은채로 묵묵히 처녀를 내려다보았다.

영문을 알수 없었다.

《아버지가 밥을 내다주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용석은 뇌리에서 핑퐁 번개가 이는것을 느꼈다. 책임운전수가 정말 몸져누운게라고 생각되었다. 끝내 쓰러지고말았구나. 그렇게 몸을 무리할건 뭐람. 내가 미련한놈이었어. 좀더 일찌기 밤일을 맡았어야 하는건데...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 아버지 못 일어나셨소?》

《못 일어나시나요? 벌써 기계화반으로 나가셨는데... 아버지 오늘 회전씨레를 시운전하니 필경 용석동무가 합숙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틸게라고 하시면서 이걸...》

용석은 놀라움게 처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무쇠로 만든 사람이구나!

《그럼 여기서 놓고 가겠어요.》

현순이는 밥보자기를 논두렁우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이쪽을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를 짓고나서 두렁길을 따라 총총히 멀어져갔다. 처녀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용석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가슴속에 고패치는 흥분의 물결을 가라앉히고싶었다. 두어모금 빨아서 길게 연기를 내뿜는데 웬일인지 현순이가 가던 길을 되돌려 급히 달음박질쳐왔다.

《참, 중요한걸 잊었군요. 식사한 다음 보습을 떼놓고 회전씨레를 가지러 기계화반으로 오겠어요. 아버지가 기다릴거예요.》

(알겠소.)

용석은 마음속으로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현순은 예전처럼 그렇게 명랑한 기분만은 아닌것 같았다. 처녀는 약간 상기된듯한 얼굴을 수 그리더니 다시금 두렁길로 달려갔다. 그가 가는 저쪽에서는 푸른 도색을 한 트랙포트가 논을 갈고 있었다. 처녀는 지금 어머니를 교대해주러 가는 길이라.

(얼마나 훌륭한 기계화가정인가!)

마음속 흥분을 진정하지 못한채 그는 차를 뒤결음시켰다. 기계화반에서 기다리고있을 책임운전수가 생각났다. 빨리 가서 회전씨레를 내와야 했다.

그는 갈지 않은 평탄한곳에 보습을 떼어놓고 밥생각은 까맣게 잊은채 기계화반을 향해 트랙포트를 몰아갔다...

회전씨레의 시운전은 예견했던 그대로 성곡적이었다.

용석이가 운전을 하고 뒤에서 박진구가 기계를 살피었다. 트랙포트가 기운차게 씨레를 끌고 달리면 모판규격대로 풀이 짜지고 회전관이 돌면서 와락와락 흙을 부서뜨리는데 뒤끝에 사선으로 붙인 평조대가 일매지게 파상을 고루며 나갔다.

《됐어, 차를 세우라구!》

박진구가 온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손을 추켜들면서 소리를 쳤다.

용석은 차를 멈추고 운전실에서 뛰어내렸다.

《수고했어.》

박진구가 덩석 그의 손을 거머쥐었다.

《제가 무슨… 책임운전수동지가…》

《아니요. 용석이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단번에 성공하진 못했을거요.》

뒤에 붙인 평조대를 녀두에 두고 하는 말한것 같았다. 용석은 한가닥 의문이 머리속에 감겨드는것을 느꼈다. 단순한 그것을 책임운전수가 왜 설계에서 놓쳤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혹시 내뭇을 숙제로 남겨둔것이 아니었을가? 그런것만 같았다. 그렇게 믿어졌다.

《그건 책임운전수동지가 이미 생각하고있던게 아닙니까? 그런걸 제가… 주체넘게…》

《아니야, 그건 저말 내가 놓쳤던거야. 동무의 생각이 얼마나 신통한지… 찾고보면 다 쉽고 단순한 리치같지만 그런 궁리가 아무게한테나 척척 떠오르는것 아니거든. 사소한것에 목이 걸려 찢절때는 때가 뭐 한두번이라구. 허허허…》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아버지처럼 박진구는 대견하고 흡족해진 눈길로 용석을 마주보았다. 웃음을 담고 습벅거리는 박진구의 눈은 별정게 충렬되어있었다. 피로의 흔적이었다. 용석은 그를 묵쉬게 하고싶었다.

《책임운전수동지, 이젠 그만 들어가 쉬십시오.》

《쉬다니, 이번 교대야 내가 아닌가?》

《제가 계속 차를 타겠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쩌겠습니까.》

《허허, 쓰러지긴… 하구싶어서 하는 일엔 지치는 법이 없네 난 힘들지 않아. 생각해보라구. 수령님께선 벌써 오래전에 농촌기계화의 구상을 펼쳐주시지 않았나? 우린 그 뜻을 따르자구 운전수가 됐거든. 나나 우리 가정이라는게 뭐겠나. 온가정이 트랙토르를 타면서도 우린 아직 그이의 뜻을 다는 따르지 못하고있네. 그러니 어디 쉬겨를이 있겠나말일세. 난 우리 마을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에 수령님의 뜻을 꽃피갈 생각이네. 자네 좀 도와주게나.》

박진구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레사롭게 울리는 그의 말마디들은 불이 되어 용석의 가슴속으로 홀르드는것 같았다. 심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호흡이 가빠졌다. 얼마나 큰 포부를 안고사는 사람인가! 현순이도 그의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지니고있지 않는가! 깨끗한 량심들이 사는 그의 집문턱을 내가 과연 쉽게 넘을수 있으리란말인가?… 그는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뭘 그렇게 생각하나? 어쨌든 이번에 자네의 방조가 컸어. 자넨 공부만 더하면 농기계박사가

될것 같아… 머리가 총명하거든. 자네 대학공불안하겠나?》

《대학이요?》

용석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눈이 흠뻑지고 동그렇게 열린 입술이 다물려지지 않았다. 이제 겨우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것을 놓고 대학엘 간단 말인가? 물론 대학은 가고싶던곳이었다. 하지만 대학으로 가는 길은 현순이와 멀어지는 길로 될것 같았다. 현순이와는 떨어지고싶지 않았다.

《전 트랙토르운전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거야 물론이겠지. 하지만 사람은 포부가 커야 해. 날아오르라구. 붉은 노을이 비껴있을 그 미래의 하늘로!… 알겠나? 트랙토르를 몰면서두 대학공불 할수 있지.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거든.》

새로운 깨달음이 용석의 가슴을 두드리었다. 트랙토르와 대학!… 그렇다. 이 집안의 아홉명 운전수가 모두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기사가 되지 않았는가!

《얼마전에 내가 농업대학에 편지를 보냈었는데 회답이 왔더군. 우리 현순이를 통신학부에 편입시킬수 없겠나 해서 의향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자구 답장이 왔어. 자네두 함께 시험을 치러 가라구. 그리구 이젠 현순이 차로 가서 함께 일하는게 어떤가, 응?…》

용석은 정신이 얼떨떨해지는것 같았다. 현순이와 함께 차를 타며 대학공부도 같이 한단말이지… 꿈이 아닐가싶어 용석은 눈을 습벅거리려보았다. …

문득 아침에 현순이가 논머리에 놓고간 밥보자기 생각이 났다. 바로 이런 속궁리가 있어 책임운전수는 딸에게 밥보자기를 돌려보낸것이 아닐가? 자신이 들고나올수도 있는것을, 들고나와 같이 밥을 먹고 기계화반으로 갈수도 있는것을 딸에게 보낸것이 아닐가? 용석은 마음속 깊은곳에서 환희로운 걱정이 종소리마냥 즐거이 울리는것을 느꼈다. 밥보자기에 새겨진 화려한 꽃무늬며 웃음핀 현순이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그는 그대로 서있을수가 없었다. 현순이의 지성인 담긴, 아니 온집안의 관심이 깃든 그 밥보자기를 그는 밥일하던 논머리에 그냥 두지 않았는가.

용석은 책 몸을 돌려 줄달음을 놓기 시작했다.

《어딜 가나?》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소리치는 책임운전수에게 대답하고나서 용석은 두령을 넘고 갈아엎은 흙이랑들을 가로지르며 곧추 내달리었다. 마음속에서는 그냥 기쁨의 종소리가 울리고있었다.



## (4)

용석은 묵묵히 등받이에 몸을 기대어앉았고 현순이는 운전대를 잡았다. 감빋 저녁노을이 차창으로 한가득 흘러들었다. 현순이는 지금 마을쪽으로 트랙포트를 몰아가고있었다. 교대정비를 마을로가서 하자는것이지만 처녀에게는 따로 속궁리가 있는것 같았다. 교대를 나오자바람으로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고는 무언가 더 말을 할가 망설이다가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차를 몰기 시작한 현순이었다.

교대정비는 원래 두사람이 다같이 하게 되어있다. 교대를 바꾸는 시간에 기름을 주고 불비한 요소들을 퇴치하며 여기저기 잔손질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용석은 그 일을 제 혼자 해버리곤 했다.

그는 처녀를 끝없이 아껴주고싶었다.

《용석동문 나를 무슨 공주로 아는데 아니예요?》

어느날엔가 깨끗이 정비된 차에 오르면서 현순이는 두눈을 곱게 할기였다.

《공주?... 동무를 왜 공주에만 비기겠소. 난 공주보다도, 천사보다도 동무를 더 귀중히 여기요.》

《아이참, 그러다가 정말 내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나도 따라서 오를테요. 동무의 꿈이 있는 그 리상의 하늘로 말이요! 하하하...》

즐거운 나날들은 흘렀다.

현순이와 함께 차를 타는지도 어느덧 반년 가까이 된다. 그 사이에 가을도 겨울도 다 지나고 젊은 가슴들이 한껏 부풀어오르는 희망찬 새봄이었다.

용석이가 혼자서 정비를 하니 현순이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헌데 그것으로 하여 현순이가 아버지한테서 된 꾸지람을 듣게 될줄 어떻게 알았으랴.

그날 용석은 어느때보다 일찌기 포전으로 나갔었다. 봄씨뿌리기가 한창이어서 트랙포트들은 작업조를 무어 섬멸전의 방법으로 일을 제끼고있었다. 작업조는 다섯대의 트랙포트로 무어졌다. 두대가 보습을 차고 밭을 갈아제끼면 한대는 씨페를 치고 또 한대는 작조기로 이랑을 지어나갔다. 나머지 한대는 씨뿌리는기계를 달고 뒤를 따르는데 이 작업조는 모두 한가정의 운전수들이었다. 여기에 다만 용석이가 끼여있을뿐이다.

그가 포전에 이르렀을 때 현순이는 마침 정비를 하려고 밭머리에 차를 세우고있었다. 다른 차들은 아직 작업중이었다. 그는 방금 작조를 놓아 일매지게 이랑지어진 밭을 가로질러 차있는데로 다가갔다. 그런데 숨죽이고 서있는 트랙포트곁에서 난데없이 박진구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가.

《누가 교대정비를 혼자서 하라고 했니, 응? 누가 너한테 그런 권리를 주었어? 망탕 규정을 위반하면서 교대도 나오기전에 발동을 끄고... 저길 봐라, 고모랑 작은 어머니랑은 뭐 남편들을 아끼고 싶지 않아서 교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정비를 같이 하는줄 아니?...》

용석은 무춤 발가운데서 서버리고말았다. 다름 아닌 자기때문에 현순이마저 규정을 어기게 되지 않았는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싶은 심정이였다. 트랙포트의 바퀴사이로 두사람의 발이 보일뿐 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게 다행이였다. 현순이는 아무대답없이 발끝으로 땅만 후벼대고있었다.

《교대정비라는게 단순히 기름이나 주고 나사나 조이고 걸레질이나 하는게라면 무엇때문에 나라에서 정비시간을 따로 제정해놓았겠니. 교대정비는 나라의 기대를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교대에 넘겨주는 하나의 의식이나 같아. 넌 새 교대앞에서 자기일을 총화하구 충성심을 검증받아야 해. 얼마만한 기름을 가지구 얼마만한 일을 했는지, 기대는 얼마나 마모시키구 할수 있는 일을 못한건 무언지 정확히 알리고 인계해주어야 한단말이야. 이게 바로 차와 함께 운전수자신을 정비하는 거야. 넌 책임운전수로서 네자신뿐아니라 용석이한테도 그렇게 할걸 요구해야 해.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단. 알겠느냐?》

《알겠어요.》

현순의 목소리는 가냘프게 들려왔다. 하지만 용석은 가슴속에서 우뢰가 우는듯한 격동을 느꼈다. 박진구의 차에서 실습을 받는 기간 용석은 교대정비를 규정대로 해왔고 그 의미도 깨달았었다. 하지만 야릇한 감정이 모든것을 가리워 지금은 현순이마저 동화시키지 않았는가. 규정은 엄격한 사람앞에서만 지킬 그런것이었던가. 친근한 사이일수록 량심으로 지켜야 할것이 규정이 아니라말인가.

용석은 박진구와 현순이 앞에서 자기가 잘못을 빌고싶었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천천히 그들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소리를 듣고 박진구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교대가 나오누만. 자 그럼 함께 정비를 하거라.》

박진구는 조용히 이 말을 남기고는 씨뿌리는기계를 달고 움직이는 자기차쪽으로 걸어갔다. 그도 지금 교대를 나온 모양이었다.

《미안하오. 나때문에 꾸중을 들었으니...》

《아니예요. 제 잘못이 커요.》

그날부터 혼자서 정비를 하던 버릇은 떨어졌다.

교대정비를 함께 하는 재미는 실상 비길데 없

이 큰 것이었다. 현순의 맑은 웃음소리를 더 들으면 하는 것이 용석의 마음이었었고 듬직한 사나이의 일손을 지켜보는 이 순간이 더 길었으면 하는 것이 처녀의 진정이었다. 헤어지면 금시에 또 보고싶고 만나면 떨어지기 싫은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길수 없는 감정이라.

이 감정은 용석에게 새로운 버릇을 키워주었다. 그는 교대정비시간이 너무도 짧아지게 한스려웠다. 그래서 일이 끝난 다음에도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포전머리에 앉아 트랙포트를 몰아가는 현순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다. 왜선지 함속으로 가기가 싫어졌다. 뒤늦게 마을로 돌아갈 때면 현순이네 집대문이 바라보이는 길목에서 용석은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었다. 저 대문이 그 언제 나를 위해 열릴 것인가? 아니, 열린다 해도 지금은 선듯 들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용석은 평범한 그의 집 문턱이 점점 높게만 생각되었다. 그래서 현순이를 보채고 싶어도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그였다. 그는 현순이가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은근히 때를 기다린다는 것도, 처녀의 부모들이 그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억제하였다. 당장은 그의 집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내가 도대체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 부끄러웠다. 땀뻗치 못했다. 더우기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의 집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

교대를 마치고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 버릇은 또 현순이에게 옮겨졌다. 용석은 트랙포트를 타면서 가끔 포전머리에 서있는 처녀의 모습을 보곤 하였다. 트랙포트들이 분조들로 흩어져 논갈이를 다그치고있는 요즘에 와서 현순은 더욱 그러했다.

어떤 때는 교대를 마친 뒤에 처녀는 인츰 차결을 떠나지 않고 용석을 쳐다보았다. 아마도 남자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그가 묵묵히 마주보면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제먼저 말을 할 듯 입술을 감쌀다가는 돌연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결심을 달리한 것 같았다. 지금 마을을 향해 트랙포트를 몰아가는 처녀의 거동은 어딘지 이상스럽게 생각되었다.

트랙포트는 어느덧 마을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현순이는 정비장소가 아니라 자기네 집쪽으로 차머리를 돌리는 것이었다. 용석은 얼핏 처녀를 돌아보았다.

《어디로 가는 거요?》

《사실은...》 처녀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이 동무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해서...》

현순의 얼굴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어버렸다. 용석은 짐작이 갔다. 그가 무엇때문에 얼굴을 붉히는지, 그의 부모들이 왜 자기를 집으로 부르는지...

집앞에 와서 현순이는 차를 멈췄다. 차에서 내

린 다음 처녀는 그를 대문가로 이끌었다.

《어서 들어가세요!》

용석은 한순간에 오만가지 생각이 겹쳐서 그자리에 섰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려던 현순이가 다시금 그에게로 돌아섰다. 용석은 처녀를 마주보았다.

《내가 이 집 대문으로 들어설 자격이 있을까?》

《있구말구요. 동문 트랙포트운전수이구, 앞으론 당당한 기사가 될거구, 또...》

현순의 얼굴은 미소를 밝아졌다. 이제는 주저감도 부끄러움도 사라져버린 모양이었다.

부엌문이 열리면서 현순의 어머니가 트랙으로 나왔다. 거의 동시에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며 소리를 쳤다.

《왜들 그렇게 서있니. 어서 들어오지 않구...》

《들어가세요!》

현순이가 용석의 귀에 속삭이였다. 그래도 용석은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대문가로 다가왔다.

《어서 들어오게. 내 집으로 생각하랴구 허허허... 난 언제부터 자넨 우리집식구로 맞아들이구싶었네. 우리 운명을 같이하면서 본때있게 일해보자구. 이젠 자네들이 이 집 주인이자 기계화에서 두 주인이 돼야 할걸세. 안그런가? 용석이!...》

용석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생활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음을 느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의 문어구에 와있는 심정이었다. 아니, 언젠가 박진구가 말하던 그 미래의 하늘로 날아오른것은 아닐까싶었다. 공산주의의 붉은 노을이 비낀 그 리상의 대문으로 그도 방금 들어서는 것만 같았다.

박진구가 그의 팔소매를 잡았다. 용석은 그가 이끄는대로 공손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얼마나 넘고싶던 문턱이었던가. 그는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다시금 우뚝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높고 멀어만 보이면, 그래서 더더욱 들어서고싶던 그의 집대문이 이제는 나의 집대문으로 생각되는 것이었다.

세해가 지났다.

그사이에도 이 집에서는 현순이네 부부처럼 동생들이 트랙포트운전수로 자라났다. 하여 그 대오가 무려 14 명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나라의 자랑이 아니겠는가!

뜻깊은 2 월의 어느날 누군가 이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문두드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 감격을 예고하는지를 모르고있었다. 그 사람은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였다.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이 가정에 편지를 보내주시었습니다.》

불같은 목메임이며, 너무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행복과 영광이 성실한 사람들이 자라나는 이 집 대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 어느 집이나 들러보고싶어 외 1편

량덕모

한낮의 햇빛은 머리위에 재갈대고  
살구 추리 익어가는 정원속으로  
하얀 닭무리 날아퍼지는 농장마을  
나는 좋구나! 마을길 걸기가

넒직한 돌포장한 길따라  
자동차 트락트르 분주히 오가고  
눈이 시게 회칠한 울타리  
울타리우엔 한들거리는 줄당콩쑥

눈길 끄누나, 점심참이라 열려진 부엌문으로  
찰찰 기름도는 알뜰한 세간살이  
흰문보 날리는 2층 창문새로  
이불장 텔레비죤... 뜨르르한 방안살림

충충 아빠트거리 화려한 도시살림  
내 사는 집 제일인줄 알았더니  
어쩌다 한번 들린 낯설은 마을  
놀랍구나! 우리 도시 이웃 구역이런듯

어느 집이나 어서 오라 추녀를 들었구나  
이 집에도 들러보고싶고  
저 집에도 들러보고싶어  
걸을수록 반기는 새 문화주택들

샘솟는 기쁨의 노래런가  
집집마다 울려나오는 밝은 웃음소리...  
아, 어느 집에 잠깐 들리어도  
십년은 더 젊어질듯

두고온 제집 살림 잊어버리고  
걸음걸음 부러움이 앞서  
몇번이고 다시 바라보는  
예가 바로 꽃피는 사회주의문화농촌

오, 내 사는 거리로부터 멀리 와도  
어느 집 어느 마을이나 들리어  
천년만년 살고싶은 내나라  
어디 가나 하나같은 인민의 락원이여!

## 동쪽길

마지막 논물을 돌아보고  
마을로 가는 동쪽길에 올라서자  
나비등 불을 켜고 돌아가는  
옥분이 때마침 반기누나

왜 늦었나  
서로 묻지 않은들 모르랴  
물관리공 내 마음인양  
따라서는 논물소리 논물소리  
예찰원 옥분이 눈동자처럼  
벌가득 총총한 불빛 불빛...

옥분아, 이제 마을에서 헤어져도  
네 마음 내 마음  
온밤 벼포기를 쓰다듬으며  
벌에서 함께 살겠지

문득 입밖으로 튀어나는 말  
-정당 열톤은 먹었다니까  
-그런가봐요  
은방울 굴리는 옥분이 대답  
저도 모르게 마주치는 두눈길

얼굴이 달아오르누나!  
멋모르는 개구리들아  
이밤만은 조용하려마  
-모레쯤이면 벼꽃이 필것 같아  
-그런가봐요 제 생각에도...

아무렴 달리 될수야 없지  
물관리공의 생각이자  
예찰원의 생각

동쪽길로 오가며  
푸른 이랑이랑 바치는  
네 사랑이자 내 사랑  
내 사랑이자 네 사랑

견고싶구나 이런 밤엔  
발목이 시큰토록 견고싶구나!

하지만 동쪽길은 아쉽게 끝나려니

떠지는 걸음  
약속한듯 멈춰서는 마음...  
아, 달빛안고 하얗게 웃는 옥분아  
길이 짧다 탓하지 말자  
농장포전 나의 포전 알뜰살뜰 가꾸며  
우리 한생 걸어갈 이 동쪽길  
너와 나 사랑이 식지 않으면  
끝이 없을 행복의 천리란다!

## 나를 부르네

황승명

어제도 못잊고  
오늘도 못잊네  
산골상점에서 나를 반기던  
정춘실영웅의 첫 인사말  
-어서 오세요

단발머리 그 시절에 목청이 고와  
나직한 그 소리 노래처럼 울렸던가  
열백번을 물어도 웃으며 대답하던  
그 마음에 이끌린 풍성한 매대

상품에 더하여 돈주고 살수 없는  
그 마음도 후하게 받아안았건만  
또다시 《우리 가정수첩》을 펼치며  
빛나던 그 눈빛

무엇인가 더 주고싶어  
나를 바래우며  
정답게 울리던 목소리  
-또 오세요

가벼운 인사말처럼  
례사롭게 울렸건만  
인민과 한 약속으로 무겁게 안고  
얼마나 많은 길 걸었던가  
공장파 집집의 문을 두드리고  
힘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정말 큰일을 했구나  
그 누구의 생각도 가닿지 못한  
산기슭 빈땅에  
뿔나무 비단발을 펼치고  
그 많은 짐승을 안아키우며

하고싶어 하는 일에 끝이 있던가  
어제는 그만하고 좀 쉬라고  
일손을 멈춰세운 밤에도  
그 약속을 안고  
온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거니

정녕 어길수 없는 그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면  
둘을 주고싶어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린  
불타는 충성의 맹세가 아니었던가

그 사랑으로 뜨겁고  
그 믿음으로 높뛰는 심장을 안고  
날마다 명절처럼 흥성이는 매대에서  
오늘도 이제처럼  
나를 부르는 소리

아름다운 노래처럼  
조용히 이 가슴에 스며들어도  
외울수록 그 진정이 솟구쳐  
일손마다 창조의 나래를 달아주고  
위훈의 노래되어 울려퍼지거니

아, 마음도 생각도 하나가 되어  
사람마다 제 량심의 웨침소리  
따라서며 내달리며 받아외운다  
-어서 오세요  
-또 오세요

## 세월의 년륜속에

박동칠

## 1

돌덩이같은 주먹, 굴진막장의 압박같은 가슴, 불을 켜지 않고도 막장안에서 버력과 석탄덩이를 발뒤꿈치로 눌러보고 가려낸다는 사람, 그가 바로 금동탄광의 홍화갱 갱장 윤과순이다. 원고개를 훨씬 넘긴 그는 막장바람을 《입맛바람》이라고 했다. 탄밭을 떠나서는 할일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 갱장은 석탄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였다. 그는 탄광에 오는 젊은이들은 모조리 막장에 데리고 들어가 네자리는 여기다 하고 정해주고는 혼시를 하곤했다.

《자네 저 갱을 떠날들고선 동발이 보이냐?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리눌러도 끄떡없이 서서 제자리를 지키거든. 자네도 그렇게 되라는거야. 알아들었나?》

갱장은 누구든지 제자리를 떠나는걸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의향을 따라서 랑패를 본 일이 없는 탄부들은 그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그런탓에 갱장은 탄부들앞에서 언제한번 큰소리를 쳐본 일이 없다.

그런데 그날만은 갱장이 어성을 높여야 할 일이 생기였다.

출근하자바람으로 막장을 돌아보고 나온 갱장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곧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지령실! 남룡소대장말이요... 뭐? 목욕탕에 들어갔다구? 제길... 그 사람은 언제한번 순순히 만나기가 힘들구만. 나오면 당장 내 방으로 보내시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안전모자를 훌렁 벗어 책상우에 밀어놓았다. 균형을 잃은 안전모가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어제밤의 일이다. 퇴근전에 막장을 돌아보던 갱장은 바로 남룡소대가 일하는 북마구리채탄장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봄철지압관계로 몇개의 동발목들에 짐이 실린것을 띄여보았던것이다. 갱장은 곧 작업을 중지하고 짐덜기대책을 세울것을 지시했다. 남룡이는 소대장으로서 그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다. 셈평 좋게 채탄굴진을 계속 내밀었던것이다. 지나치게 석탄욕심을 내는 탄부들속에서 간혹 나타나곤하는 버릇이라고 단정한 갱장은 그 버릇을 단단히 떼여놓을 결심을 했다. 그런 버릇을 조장시켰다가는 지하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시킬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룡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호되게 다그어놓고나서 하루쯤 입갱중지처벌을 줄 심

산이였다.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남룡이가 왔다는것을 예감한 갱장은 대답대신 《으흠!》하고 기침소리를 냈다. 빠르게 문이 열렸다. 갱장은 사업일지에 얼굴을 묻은채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호통을 쳤다.

《남룡인 그따위버릇을 어데서 배웠어?!》

《?》

대답대신 입을 싸쥐고 캐드득거리는 처녀의 웃음소리가 들리였다.

《어-영?》

그제서야 눈길을 든 갱장은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 남룡이가 아님을 알아보았다. 갱통계원 우세월이가 문앞에 서서 여전히 웃고있었다. 갱장은 《으흠!》하고 기침을 한번 더 튕는것으로써 자기의 그썸한 실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얼버무려 치웠다. 세월이는 그런 갱장쪽에 대고 입을 종긋했다. 갱장이 사람을 헛갈렸다는 말을 그런식으로 했다. 하긴 자기보고 큰소리를 쳤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었을것이다. 단발머리시절부터 갱장곁에서 일한 세월이는 거칠고 무뚝뚝한 갱장을 늘 자기식으로 대했다. 그는 무엇인가 범접하기가 힘들어진 갱장의 앞이었으나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태연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온 결재문건을 조심스레 퍼놓았다. 휴가신청서였다.

《갑자기 무슨 일로?》

갱장은 마치도 세월이가 남룡이라도 된듯이 끔지 않게 쳐다보았다.

《그 동무의 아버지가 환갑상을...》

《어-영?》

갱장은 화를 내던 사람같지 않게 두눈을 크게 뜨며 놀라와했다. 그러더니 의자등받이에 몸을 밀어제끼며 멍하고 천정만 주시하는것이였다.

《벌써 그렇게 되였는가? 세월두 참 빠르기도 하군...》 이렇게 혼자소리처럼 되뇌이는 갱장의 얼굴표정은 급기야 돌변하였다. 음성도 지어 숨결까지도 전과는 달랐다. 성미가 거칠고 무뚝뚝한 갱장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단즙을 품고 빨갛게 익은 열매의 속살처럼 나긋나긋해졌다. 그는 세월이쪽에 몸을 바투 가져다대며 속삭이듯이 물었다.

《환갑날자가 언제라던?》

세월이는 갱장에게 부드러운 눈길을 주며 환갑날자를 알려주었다.

《음- 그러니 한 사날은 여유가 있군. 다행으로

군…》

갱장은 만년필을 꺼내 뒤편 툭툭 털더니 결제란에다 제 이름을 큼직하게 써놓았다. 세월이여 게 문건을 쥐여주며 짐짓 당부의 말까지 했다.

《빨리 수속하도록 해라. 오늘중으로… 아버지의 환갑날자에 늦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세월이를 돌려보내고난 갱장은 홍화갱입구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가로 다가섰다.

동갱산기슭에 꽃피고 새 우짖는 따뜻한 계절, 신록이 짙어가는 수림속에서 흘러내린 숲향기가 외곽문을 열어놓은 창문으로 싱그러이 날아들었다. 그 향기의 감미를 느껴보느라니 몇해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밝혀왔다. 봄꽃향기 모여드는 저 황화갱입구에서 남룡이를 기쁘게 맞이하던 때의 일이 돌이켜졌다. 젊은시절부터 탄광에서 살아온 갱장의 생활에는 두가지 기쁨이 있었다. 하나는 막장에서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질 때에 느끼는 희열이었고 다른 하나는 탄광에 건강하고 끝끝한 체대군인청년들이 배치되어올 때에 느끼는 믿음의 감정이었다. 남룡이가 체대되어왔을 때에도 그러했다.

바다의 갈매기를 그대로 안고온듯이 하얀줄이 멋지게 흘러간 해병복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탄광에 배치되어온 남룡은 처음부터 갱장의 눈길을 끌었다. 탄광이 공업의 선행부문이다보니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훌륭하고 멋진 청년들은 모두 모여든다는 긍지를 다시한번 더 느끼었다. 그는 갱입구에 주련히 나붙은 속보들을 차례로 훑어보고있는 남룡이결로 슬그머니 다가서며 어깨를 툭 건드렸다.

《여보게 갈매기! 뭘 그렇게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나? 내가 이 홍화갱의 갱장이야. 왜 홍화갱이라고 부르는지 아나? 석탄은 시꺼멓지만 일단 불이 붙으면 시뻘겋게 되거든… 갱에 왔으면 갱장부터 찾아봐야지 남의 자랑거리를 써놓은 속보만 들여다보면 석탄이 저절로 나오대?》

남룡은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다는듯이 군대식으로 절도있게 인사를 했다. 인사를 받는 갱장도 만족하다는듯이 《허허허》하고 호방한 웃음소리를 냈다.

《이보라구 남룡이! 석탄을 한번 본때있게 캐보라구. 피가 동이로 끓는 젊은 시절을 이 탄광에서 빛내보라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은 단한번밖에 차례지지 않네. 날 보게나, 이렇게 늙어진걸…》

이미 인생의 석양길에 걸고있는 갱장은 사람이란 누구나 지나간 청춘시절이 잘 담아놓은 보석덩이처럼 되어야 한다는걸 생활을 통해 뼈속까지 터득하고있는지라 남룡이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 당부이자 바람이었다. 그런데 남룡이는 그렇듯 귀중한 갱장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듯싶었다. 그는 탄소리를 꺼냈다.

《갱장동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는지 오래됩니

까?》물론 이런것도 묻고싶었을것이다. 그래서 갱장은 한 30년 갱길을 걸었다고 자랑삼아 대답해주었다.

《헌데 이젠 틀렸어. 마음뿐이거든…》

《그러기에 우리 체대군인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남룡은 갱장에게 귀찮게 한마디 하고나서 또 다시 속보에 눈길을 주는것이였다. 어느 한 탄부가 하루에 석탄생산계획을 200프로로 넘쳐수행했다는 글자를 한동안이나 들여다보고나서 말했다.

《갱장동지! 저 동무처럼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200프로씩 해체킨다고 칩시다. 15년이면 갱장동지가 일생동안 캐놓은 석탄생산량만큼 켈수 있지 않습니까?》

《?》

갱장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였다. 일생동안 석탄을 캐온 그는 자기의 일생과 석탄량을 놓고 계산해본적은 없었다. 갱장은 남룡이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자네가 옳은 말을 했네. 두뎅을 했으니 날자는 두뎅으로 줄어들기마련이지. 허허, 자네 신통한데가 있군그래…》

그다음 남룡이가 무슨 말을 하려나 해서 귀를 장구었다.

《갱장동지! 저와 한가지 약속할수 있습니까?》

《약속?》

갱장은 이 피짜같은 청년이 흥미있다는듯이 저도 모르게 이야기에 말려들었다.

《석탄을 놓고 하는 약속이라면 까짓거 해보세나.》

《거야 물론이지요. 석탄을 많이 캐는 일을 전제로 놓는단말입니다.》

《그렇다면 난 미리 장훈을 불러놓겠네.》

남룡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잠시 무엇인가 계산을 해보더니 내리워었다.

《사람이 일생동안에 30년은 실히 석탄을 켈수 있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볼때… 하루에 300프로씩 캐면 7년반입니다. 그이상 수행하면 더 줄어들지요… 결국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공민적의무를 수행하는데까지는 단 몇년밖에 안걸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갱장동지!》

갱장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남룡이의 말이 리치적으로 꼭 맞았기때문입니다.

《그건 옳은 말이네. 그래서 어떻다는건가?》

남룡은 갱장이 보란듯이 해병복팔소매를 쓱 걷어올려 단단한 팔목을 드러내보이며 대답했다.

《저는 앞으로 단 몇년동안에 내앞에 차례진 석탄생산량을 말끔히 끝낼 결심입니다.》

《헛허허허…》

갱장은 동발그루가 드릉드릉 울리도록 큰 웃음소리를 냈다. 갱장의 그 웃음속에는 이 쫓내기같은 녀석아, 천길 땅속에서 석탄을 캐내는 일이

바다에서 미역따기같은줄 아느냐는듯한 일종의 야유가 섞여있었다.

갱장의 심리를 넘겨다본 남룡은 《왜 웃습니까? 갱장동지! 제가 해내지 못할것 같습니까?》하고 물었다.

갱장은 다시한번 《허허허》하고 웃고나서 말했다.

《자네의 그 결의는 좋으나 어림도 없네. 어림도 없어. 석탄을 캐는 일이 말처럼 쉬울것 같으면 난 벌써 이 동갱골석탄을 다 캐낸지가 오랬을 거네. 벌써 썩 이전에 말이야...》

남룡은 론쟁에서 지려 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실천한다면 갱장동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네의 소원은 다 풀어주겠네.》

《정말입니까?》

남룡은 파지듯이 물었다.

《정말 아니구? 그래 자네의 소원이 뭐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수산사업소로 가서 조타를 넘겨받는것입니다. 반대없지요?》

《영? 수산사업소?》

갱장은 남룡이가 수산사업소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심중해졌다.

《왜 하필 거기로 가야 하나?》

남룡은 우물쭈물하지 않고 제속을 톱 털어놓았다.

《사실 저는 학생때부터 크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다에서 배를 탈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땀 남룡이의 말은 갱장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흔들리게 했다.

남룡이의 아버지는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바다는 청춘들을 부른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가슴에 받아안고 제일먼저 자진하여 바다로 달려갔다. 그때로부터 일생동안 물고기를 잡았다. 그런 남룡이 아버지가 이제 몇해만 더 지나면 환갑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남룡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배를 탈 생각을 했었던것이다.

《음-》

갱장은 깊숙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리고는 남룡이의 눈길을 피해 저 멀리 푸른 하늘의 아득한 공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갱장은 어쩐지 남룡이가 자기와 어슷비슷한 처지의 공통성을 느껴보았던것이다.

윤파순의 아버지는 철공로동을 하는 기계공장의 이름높은 단야공이었다. 어린 나이때부터 그 일에 숙련된탓에 무쇠덩이를 떡주무르듯하는 재간이 있었다. 몽통하고 둥글둥글한 쇠덩이도 그의 손에만 들어가면 땀시있는 물건으로 되어나왔다. 파철더미에서 주어진 녹슨 쇠조각을 두드려 손칼을 곱게 만들어주었을 때 파순이는 아버지의 그 손재간을 몸시도 부러워했다. 파순이의 아버지는 그런 손재간으로 하여 공장에서는 어금이라고 불리웠고 나라의 기술자들중의 한사람으로 등

록되어있었다.

친구들까지도 그의 재간을 두고 참사를 아끼지 않았다.

《자네의 손재간이 참 부럽네. 더 늙기전에 그 재간을 아들에게 꼭 물려주라구. 아들이 나라를 위해 한몫하게 말이야.》

파순이의 아버지도 다들바없는 심정이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을 무릎앞에 불러앉히고 장군님의 은덕으로 나같은 품팔이군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 하치않은 손재간마저 마음껏 빛을 보게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세월이 왔느냐며 너도 이담에 자라서 나라를 위해 한몫 하려면 무엇이든지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그럴때마다 파순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었고 장차 자라서 아버지처럼 고급단조공이 되리라고 마음먹었었다.

그렇지만 윤파순은 제대후에 탄부가 되었다. 당시 전당과 전체 인민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여섯개고지점령으로 총결기해나섰다. 젊음이 넘치던 윤파순은 그중의 어느한 부문을 맡아나서야 할 의무를 자각했다. 단야불을 피울래도 석탄이 있어야 한다는걸 잘 아는 그는 지체하지 않고 탄광으로 달려왔다. 용기와 투지로 총만된 젊음을 탄발에 바쳤다. 그는 석탄고지가 승리적으로 점령되면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으로 돌아가리라고 마음먹었었다. 그렇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락후한 식민지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서 키가 우후죽순처럼 자라는 나라의 경제형편은 날이 갈수록 석탄생산을 늘어갈것을 요구했다. 윤파순은 탄광을 뜯겨안했다. 탄발에 정이 들고 그 일이 손에 익자 마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였던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린듯한 찢어진 향수를 느껴본 때가 있었다. 쇠망치로 두드려서 농쟁기같은것이나 만들어내던 그 자그마한 공장이 이제는 프락프로드도 팡팡 만들어내는 대륙전기계공장으로 전변되자 거기에 있었으면 보다 더 큰 일을 해놓지 않았을가 하고 마음을 돌려세워보았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기계공장이 중해도 석탄이 없다면 굴뚝에 연기마저 피워올릴수 없다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나라의 석탄전선을 곳곳이 지켜왔다.

이런 윤파순이었기에 어느 한 시절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다일을 할 생각을 했었다는 남룡이의 말을 무심히 흘려버릴수 없었다. 자기가 이 탄광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을 때만 해도 지금에 비해서는 나라가 할일이 더 많았고 그만큼 청장년로력도 부족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이야 사정이 다르지 않은가?...

요즘의 청년들이란 탄광과 같은 중요초소에서 일을 해야 제몫을 하는줄로 알고 그것으로 하여 모두 자원하여 집단적으로 달려오고있지 않은가...

남룡이 하나쯤 바다에 준다고 해서 석탄이 덜 나올리 없다고 생각한 갱장은 남룡이의 속을 다시 한번 중뎠다.

《자네 이제라도 바다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

정색이 되어 묻는 갱장앞에서 남룡은 히죽히 웃으며 대답했다.

《갱장동지가 너무 심각해지셨군요. 내가 바다 소리를 한건 그저 그렇단 말이지 탄광을 떠나겠다는건 아닙니다. 제발로 찾아온 사람이 가진 어데로 가겠습니까? ... 그렇지만 갱장동진 내가 결의를 실천할 때에는 값을 톡톡히 치려야 합니다. 허허허.》

남룡이는 고개를 젓히고 꺾꺾 웃었다.

《...》

말없이 남룡이의 얼굴만 바라보는 갱장은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가늠할수 없는 미묘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 2

윤파순갱장은 날이 갈수록 남룡이는 탄광밥이 아니라 바다밥을 먹어야 할 사람으로 치부했다. 그도 그럴것이 남룡이는 말끝마다 바다타령이었다. 날이 갈수록 바다를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은 더 짙어가는듯이 보였다. 노래를 불러도 바다노래, 편지를 보내도 바다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더 많았다. 그런 일들을 가끔 띄여보는 갱장의 마음은 스스로 남룡이의 앞일을 그려보게 되었다. 남룡이는 바다에만 가면 무슨 큰 일이라도 칠것 같이 돋보이기까지 했다. 지어 남룡이가 현실에 앉아 몇만톤짜리 큰 배를 몰아가는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다. 그는 남룡이의 말대로 탄광에 온 이상 어느정도 제몫을 하고나면 바다에 돌려보내서 더 큰일을 하게 하리라는 마음을 남모르게 가지었다. 그런 갱장이었기에 남룡이만은 다른 탄부들보다도 더욱 아끼었다. 꾸지람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지어 다른 탄부들속에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마저 없기를 바랐다. 지어 그가 떠나는 날까지 더 많은 석탄을 캐기를 바라서 좋은 탄밭이 마련되여도 남룡이에게 먼저 주었고 착암기부속이나 동발목 그리고 공차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집중시켜주었다.

그런가 하면 떠나는 그날까지 머리칼 하나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돌리었고 일상생활도 즐겁게 하기를 바랐다. 탄부들이 갱장의 그런 행동을 두고 눈여겨보는 가운데 세월이마져 《갱장동지는 남룡동무를 어련데 다루듯하시는군요.》하고 말했다가 무서운 눈총까지 받았다.》

《무슨 소릴 해! 넌 그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큰일을 할 사람인지 알거나 해? ... 잔말 말고 넌 남룡이가 때를 넘기지 않고 제때에 밥을 먹도록 하는거나 책임져! 알아들었느냐?》

갱장은 오히려 세월이에게 덧집을 실려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호인이 되고싶은 갱장은 아니었다.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고 그는 석탄을 캐는 갱장으로서의 자기 구실만은 톡톡히 했다.

남룡이가 탄광에 온지 한해가 다 되었던 어느 날이었다. 토막시간을 리용하여 착암기받침목으로 쓸 나무를 몇대 구하려고 동갱산에 올라갔던 그는 갯통계원 우세월이를 뒤에 달고 산기슭을 거닐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남룡이를 띄여보았다. 언제부터 그들의 사이가 남다르다는 소문을 들어오던 갱장은 이마살을 찌프러였다.

우세월이로 말하면 동갱골 춘향이로 불리우는 탄광기사장의 막내딸이다. (탄광기사장은 딸자식만 셋이었다)그의 두 언니는 대학이요 예술단이요 하며 탄광을 떠나간지 오래되지만 세월이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들만 자식인가?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안된다는 법은 어데 있는가? 난 아버지처럼 탄부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세월이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 곧 탄부가 되었다. 운반공, 전차운전공을 거쳐 이제는 윤파순갱장의 한팔과 다름없는 갯통계원이 되었다. 물론 사나이들처럼 막장에까지 들어가 굴진이나 채탄같은 일은 못한다 하지만 그 마음만이야 얼마나 훌륭한가...

갱장은 세월이를 제딸처럼 사랑했다. 꽃이 있어야 나비가 찾아온듯이 탄광에 세월이와 같은 아름답고 훌륭한 처녀들이 없다면 탄부들의 생활이 얼마나 메마르겠는가? 그래서 사랑을 주어도 탄부에게 주고 시집을 가도 탄부에게 가라고 했다. 이런 세월이가 벌써부터 바다사람 같아보이는 남룡이와 짝을 무어가지고 다니니 갱장의 이마가 찌프러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윤파순갱장은 남룡이를 만나 한마디 했다.

《보아하니 자네 요즘 세월이를 어찌보자는것 같은데 아예 마음을 달리 먹는게 좋겠네. 일찌감치 미역파는 처녀나 골라잡는게 좋지 않을까?》

말은 순순히 했지만 그의 진속에는 단것을 못가져가게 독침을 빼들고 서있는 문지기벌과 같은 기상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쯤한 말에 놀랄 남룡이가 아니었다.

《한발 늦으셨습니다. 우린 벌써...》

《뭐라구?》

석탄만 석탄이라고 하다보니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줄도 몰랐다는 후회가 가슴을 찔렀다. 그보다 더 마음을 쓰게 한것은 남룡이가 무슨 재간으로 세월이를 꼬여냈을가 하는 알곳은 의혹이었다. 일을 바로잡기에는 이미 클러진 일이였다. 후회 막심이라더니 그는 줌안에 들었던 새를 놓쳐버린듯이 아쉬운 감정에 쓰거운 입맛만 찻찻 다시였다.

어찌보면 남룡이에 비해 자기의 수가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남룡이



가 밀게 보이지는 않았다. 탄광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첫날부터 이름난 채탄공으로 소문을 떨치는 남룡이는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자기의 결의대로 200~300 프로씩 꼭꼭 해내지는 못했지만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고있는건 사실이었다. 이것은 갱장으로 하여금 남룡이에게 반하게 하였다. 남룡이가 소대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는 자기의 후임으로 키울 생각까지 은근히 했다. 이것은 갱장이 남룡이를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던 마음속 약속을 아득히 잊어버리게 했다. 그리하여 갱장의 가슴속에는 남룡이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란 맥으로 튼튼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불현듯 남룡이의 아버지가 환갑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보니 펄쩍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보다 더 큰일을 하기를 바라는 남룡이의 앞일에 대하여 무관심할수 없었다. 사람의 앞길을 막는 일은 죄되는 일이라고 자각한 그는 비로소 남룡이를 떠나보낼 때가 되지 않을까 하고 궁리해보았다. 그렇지만 결심을 하기에는 갱장의 지혜가 모자랐다. 그는 이 일을 당위원회와 의논할 생각을 했다.

갱장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찰나 남룡이가 마주 들어섰다. 그제야 갱장은 자기가 어제밤에 있는 북마구리채탄장으로 남룡이를 불렀었다는 기억을 되살려냈다. 처음 그를 찾을 때 갈아서는 무슨 큰 일이라도 칠것 같던 갱장이었으나 막상 만나고보니 마음이 가라앉았다. 바다사람이 다 된것 같이 보이는 남룡이인데다가 지난밤에도 막장안에서 꼬박 밝힌 흔적이 눈자위에 력력한 모습에서 마음의 탕개를 스스로 풀었던것이다. 갱장은 남룡이를 보고 석탄도 주하지만 사람이 더 중하니 갱내안전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듣기 좋게 한마디 하는것으로 그쳤다. 그렇지만 남룡이는 미주알고주알 깐깐히도 들추어냈다.

《갱장동지의 지시를 어긴건 좀 안된 일이지만 북마구리채탄장이 지압을 받을 위험성 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일부 동발목들에 짐이 실리긴 했지만 분력은 이미 벗고 지압의 균형이 보장되었습니다. 아주 안전하지요. 이젠 나혼자의 견해가 아닙니다. 참 어제밤 평양에 가셨던 기사장동지가 돌아오신걸 아십니까? 밤중에 혼자서 동강산고개를 넘어오셨더라 말입니다. 평양에서 며칠동안 회의를 하는 사이마저 탄광이 그리워 못건디겠더라나요. 글썄 도착하자바람 갱안에서 들어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기사장이?》

그렇게 묻는 갱장의 눈길은 다시 남룡이에게로 갔다. 그한테서 또 무엇인가 새로운 점을 발견해냈던것이다. 남룡이는 석탄생산이라는 거창한 자연과의 투쟁을 이미 과학적으로 벌리고있었다. 오히려 갱장이 그 리치를 따져보지도 않은채로

파심으로 하여 그런 지시를 했던것이다.

결국 남룡이한테 또 한수 진셈이었다.

(어느새 벌써 나를 따라왔단 말이고...)

갱장은 남룡이가 자기보다 돋보이게 되자 문득 욕심이 생기었다. 탄광제복을 의젓하게 차려입고 향수내까지 물씬 풍기는 남룡이를 놓쳐버리고싶지 않았다. 사람의 욕심이란 아마도 그런가보았다. 하기가 착암기 한대만 제대로 돌리자고 해도 탄광영양제식당밥을 몇백그릇은 실히 축내야 구실을 하는지라 하물며 남룡이 같은 사람한테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데 있으랴.

갱장은 또 한번 못박듯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환갑상을 받는다기에 휴가는 보내겠다만 그걸 기회로 다른 궁리는 아예 말게. 알아들었나?》

남룡은 무턱대고 응하지 않았다.

《궁리가 없는 사람은 발전도 없지요. 전 이제 아버지의 환갑차로 바다에 가면 배 타고 올 결심입니다. 아버지앞에서 말입니다. 노를 넘겨받을 준비는 다 되었으니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셈이지요.》

그말을 들은 갱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듯했다. 남룡이가 이제 로골적으로 제 안속을 드러내놓고있는듯이 보였기때문이다.

《무슨 그따위 쓸개빠진 소렐 해! 그래 내 손탁에서 빠져나갈줄 알아! 어렵도 없어!》

이런 말이 금방 튀어나올듯하던 갱장은 남룡이의 다음말을 듣고서야 쑥 움츠러들었다.

《그런데 갱장동지! 갱장동지는 왜 그렇게 배짱이 없습니까? 갱장동지가 직접 발기하셨다는 그<보안진주탄>말입니다. 뭐 일부 일꾼들이 반대한다면서요? 어제밤에 기사장동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갱장동지두 참, 한번 결심을 했으면 냅다밀어야지... 그리고 우리 제대군인들하고는 왜 토론이 없었습니까? 믿을수 없단 말입니까? 섭섭합니다. 이제라도 시작합니다. 원 석탄을 팔고있어서도 못캐내다니요...그럴수 없습니다.》

갱장은 눈이 둥그래졌다. 남룡이가 말하는 《보안진주탄》은 현존갱도를 유지하기 위해 남겨놓은 탄층인데 탄광력사가 오래다보니 거기에 남아있는 석탄량만 해도 대단히 많았다. 언제부터 그걸 욕심내던 갱장은 탄광참모회의에서 그 말을 꺼냈다가 그만 거절을 당하고말았다. 우리 나라 석탄채굴 력사에서 아직 그걸 캐본 경험도 없거니와 시험채굴도 해보지 못한 미지수와 같은것이였다. 갱장은 할수 없구나 하고 물러서고말았다. 그런데 오늘 남룡이가 자기를 적극 지지해주고있다. 그는 고마운 생각까지 들었다. 그 고마운 마음은 갱장으로 하여금 또다시 의혹을 불러내게 했다. 남룡이는 이렇게 보면 탄광사람 같고 저렇게 보면 바다사람 같아보이니 갱장으로서로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갱내 중대장들을 불러다놓고 일사업총화를 하고난 갱장은 오늘 하루동안에 미결된 일이 무엇인가하고 궁리해보았다. 남룡이 문제가 걸렸다. 아버지의 환갑날자가 박두해오고있는 때에 아직도 탄광에 남아있는 남룡이의 일이 참말로 안된 일이었다. 아침에 만났을 때에 빨리 떠나보내도록 더 큰관심을 돌리지 못한 일이 후회되었다. 남룡이를 바다로 떠나보내겠는가 아니면 탄광에 눌러앉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지만 아버지의 환갑날자에는 늦지 말고 제때에 가닿아야 할게 아닌가...

멀리 바다가마을에서 동구길을 내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들이 들어서기를 기다리고있을 남룡이 아버지의 모습이 밟혀왔다. 갱장은 자리에서 움쭉하고 몸을 일으켰다. 함숙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밤 12시교대에 나가게 되어있는 남룡이가 지금 쫓은 함숙에서 휴식하고있을거라고 믿어졌다.

밖은 이미 앞을 분간해낼수 없으리만큼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불빛이 명멸하는 탄광구내의 야경은 훌륭했다. 막장에서 쏘아진 석탄을 듬뿍이 받아시고 종합운탄선을 달리는 전차의 검은 형체는 마치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동체처럼 보인다. 탄광구내의 여기저기를 한눈에 굽어볼수 있도록 높이 세운 사령탑에서는 갯지령원들에게 하달하는 사령원의 목소리가 수십배로 증폭되어 엄숙하게 울려가는데 그 명령에 절대복종이라는듯이 전차역을 지켜선 젊은 역장이 빠르고 숙련된 솜씨로 전철기를 들어제긴다. 봄꽃향이 풍겨오고 청고운 밤새의 지저귂소리 들려오는 저 동갱산수림만 보고서야 어찌 그안에 검은금이라고 불리우는 석탄이 있으랴 하려면 저탄장엔 석탄무지가 산을 이루었는데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래도 탄부들은 직성이 풀리지 않은듯 또 한발과 조겨대는 발파소리가 갱구를 빠져나와 저 멀리 울려간다. 그 진동파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또 한대의 전차가 꼬리를 달고 갱구를 나서 종합운탄선을 달린다. 그러면 찌뿌라장에서 딸깍! 딸깍! 전복기를 뒤집는 소리가 신비롭게 들려온다. 그 소리 세여보자는듯이 집집의 창문들이 귀를 기울인다. 철희 아버지, 현이 오빠 수고도 헤아려본다, 보고보고 또 보아도 아! 훌륭한 탄광구내의 밤이로다. 탄광은 천체음악의 메아리속에 살고있는듯했다.

함숙쪽에서 기타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탄부의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남룡이가 부르는 노래소리처럼 들렸다. 갱장은 그쪽으로 곧추 갔다. 그렇지만 갱장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남룡이의 호실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었던것이다. 발길을 돌린 갱장은 남룡이가 가있을만한곳을 차례로 뒤져보았다. 여전히 눈에 띄이지 않았다. 혹

시 갯에 또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전화를 걸어보기 위해 탄광종합사무실쪽으로 자육을 옮기던 갱장은 문득 전등불빛이 환한 기술공정실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세월이를 띄여보았다. 그는 세월이의 손에 들려진 밥보자기를 보고 무릎을 쳤다. 남룡이가 저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갱장은 한자리에 앉아 담배 한대를 붙여물었다. 그들의 남다른 사연도 잘 아는지라 너무 바투 따르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갱장은 담배연기를 풀썩풀썩 피워올리면서 또 남룡이 생각을 했다. 저 녀석한테는 무슨 보물이 있길래 세월이가 저렇게 바늘에 실따르듯한단말인가... 가만히 눈치를 보면 세월이는 그저 남룡이 하나만을 위해서 태어난듯이 보였다. 그래서 갱장은 언제인가 세월이의 마음을 중떠볼 생각으로 슬그머니 물어본 일이 있다.

《예 세월아! 넌 남룡이가 고우냐?》

세월의 눈이 반짝 빛났다.

《꼭지 않구요.》

《무엇이 고우냐?》

《그 동무의 마음도 리상도 다...》

《남룡인 머지 않아 배군이 되겠는데두?》

《그렇게 되라쥬. 그럼 난 미역파는 해녀가 되쥬. 하지만 그렇게는 안될걸요.》

남룡이에 대한 사랑의 녀으로 충만된 세월이의 가슴속에는 믿음도 그만큼 차있었다...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난 갱장은 그들이 가있는 기술공정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앞에까지 다가선 갱장은 서둘러 문을 열지 않았다. 막장과는 다르게 펜끝으로 찍은 자그마한 점 하나에서 수백수천톤의 석탄을 산출해내는 공정설계원들이 일하는 특수한 장소인것만큼 외부사람으로서의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자각한 그는 창유리너머로 방안을 기웃이 엿보았다. 방안의 사람들을 알아본 갱장은 크게 놀랐다. 남룡이는 탄광지질도를 펴놓고 기술공정실과 마주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있었고 세월이는 한쪽옆에 비켜놓은 설계탁에 앉아서 열심히 도면을 그리고있었다.

《?》

갱장은 머리를 기웃기웃했다. 실은 남룡이가 기술공정실에 가있다는것을 알았을 때부터 난만 뜨면 막장밖에 모르던 그가 무슨 일로 거기에 가있을가 하는 의혹을 품고 제나름의 예측도 해보았다. 석탄공업대학 통신학부에서 공부하는 남룡이는 무슨 기술도서를 빌려보려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 석탄채굴공업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유망하다는 기술공정실장에게서 그 어떤 공식같은것이라도 문의해 배우려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달랐다. 남룡이는 그와 이마를 맞대고 앉아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눈으로 볼수 없는것이 사람의 머리속에 든

지식이라고 하지만 남룡이는 그 분야에서도 남들과는 달랐다.

두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말소리가 문밖으로 새어나왔다.

《…실장동지! 지질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보안진주탄>은 폭이 8~10 메터입니다. 석탄량으로 계산하면 몇백만톤이 되지요. 그래 이 많은걸 거저 내버릴수 있습니까? 실장동지가 동의만 해주십시오. 제가 시험굴진을 하겠습니다.》

갱장의 눈은 더욱 둥그래졌다. 자기마저 몰려있던 일을 남룡이는 본격적으로 해제할 궁리를 하고있다.

기술공정실장의 딱해하는 표정도 어려웠다. 그 앞에서 남룡은 가능한 타당성을 과학적론리에 맞게 들이댔다.

《…현재 이 지대의 탄층은 하나의 큰 야전가마형을 이루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가마의 윗테두리를 빙 돌면서 채굴하였습니다. 결국<보안진주탄>은 가마의 밑바닥쪽을 향해 내려가면서 남아있습니다. 실장동지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 탄광석탄의 부부름계수는 1.3 입니다… 현존갱도로부터 표토점까지는 800 메터… 그러니 현존갱도를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대담하게 밀어봅시다. 동의하시지요? 실장동지…》

기술공정실장은 도면의 여기저기를 꼭꼭 짚으며 과학적인 수자까지 계산해내며 조이고드는 남룡이앞에서 또한번 딱한 표정을 지었다.

《동무의 말은 옳소. 하지만 백설밀에 화산이 있다는 말도 있지 않소? 심중해야 합니다. 우린 지하로동을 하는 탄부들에게 단순히 책상우에서 산출해낸 수자만을 넘겨줄수 없소. 절대로… 최근 동갱산꼭대기에 새로 생겨난 지표수도량을 상상해 보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실은 그밖으로 새여든 지표수처리문제도 보통일이 아니거든…》

《그럼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약간 격해진듯한 남룡이의 말이었다. 기술공정실장이 사람 좋은 인상을 지으며 남룡이를 납득시키려고 했다.

《아니 그렇지않소. 현재 당장은 손을 댈수없어도 앞으로는 꼭 실현해야 하오. 진지한 탐구와 노력으로 지하로동의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더 확고히 담보해놓고…》

그 말을 들은 남룡이는 기술공정실장결의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이번엔 사정하는듯한 목소리를 냈다.

《실장동지! 물론 실장동지의 견해는 리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좀 앞당길수는 없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실장동지, 그<보안진주탄>으로 말하면 우리 갱장동지와 같은 전세대들이 발기를 하고 캐내자던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젠 늙었습니다. 갱장동지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내 일생동안 탄밭에서 살면서 무엇이든지 하

자고 마음먹고 못해낸 일이 없는데 그<보안진주탄>인지 한건 굴러진것 같다고 말입니다. 모두 안된다고만 하니 자기로서도 어쩔수 없다는거지요. 그말을 하시는 갱장동지가 얼마나 섭섭해하던지… 전 아버지생각이 다 나더군요. 일생동안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은 우리 아버지 경우에도 무엇인가 못다한 일이 있겠는데 만약 거기서도 이렇듯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무턱대고 안된다고 반대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해하시라 하고 말입니다. 그때 마음갈아서는 당장 아버지가 계시는 바다로 돌아가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실장동지, 갱장동지와 같은 오랜 탄부들이 일손을 놓기전에 어떻게 하든지 그 탄을 캐내도록 대책을 세워봅시다. 방도는 우리가 찾을테니 실장동지는 밀어만주십시오. 백리를 달려온 사람이 마지막 한걸음때문에 서운한 일이 생기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군대에 나간 갱장동지의 아들이 있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겁니다. 벌써 방도를 찾았지… 실장동지가 힘이 모자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세월동무도…》

남룡이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인채 여전히 도면을 그리는데만 열중하고있는 세월이쪽에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

남룡이의 진속에서 울려나오는 말을 들은 갱장의 가슴은 탄덩이가 타는 불속처럼 이글거렸다.

남룡이가 탄광에 온 그날부터 2 년세월이 지나가도록 걸음걸음 흘린 땀방울의 진가가 모두 윤파순갱장하나만을 위한 일이였던것처럼 여겨졌다. 더우기 갱장의 눈에 더 밝게 비쳐든것은 남룡이라는 한 인간이 그야말로 큰일을 치를만한 어엿한 사내대장부라는 그점이었다. 그 순간 갱장은 남룡이 아버지의 생각도 함께 해보았다. 일 다하고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과 같이 남룡이의 아버지도 한평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무엇인가 못다한 일이 있을거라는 남룡이의 말도 되새겨졌다. 남룡이가 바다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는다면 더 큰일을 해놓을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자기의 마음을 늦추어보았다. 갱장에게도 머지 않아 군대에서 제대되어 돌아올 아들이 있는것만큼 탄광일은 그에게 말기면 될것이다. 갱장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남룡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원 사람두, 휴가갈 궁리는 하지 않구 여기에 그냥 놀러앉아있으면 어떻게 한단건가?…》

남룡이를 우격다짐이다싶이 이끌고 기술공정실문을 나서던 갱장은 서류함우에 올려놓은 낫익은 밥보자기도 띄여보았다.

《여적 저녁도 안먹었군!》

그것까지 덥석 집어든 갱장은 남룡이를 아들처럼 뒤에 달고 제 사무실로 갔다.

《여보게 남룡이, 자네 이 탄광에 온지 몇해나 되었던가?》

갱장은 정색이 된 어조로 물었다.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남룡은 갱장아버이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묻는가 하고 의아한 눈길을 들었다.

《음, 세월이란 참 빠르기도 하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고난 갱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홍화갱입구가 바라보이는 창가로 다가섰다. 탄광구내에 매달아놓은 고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와 닿았다. 트락트르공장에서 한생을 다 바쳐 일하면서 큰 위훈을 세운 어느 한 일군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랑독되고 있었다. 격동된 방송원의 목소리를 듣는 갱장의 가슴도 흥분으로 뒤설레이었다. 자기도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런 위훈을 세우지 않았을가 하는 아이적일 세계에 잠겨보기도 했다. 그 마음은 남룡이에게로 옮겨졌다. 먼바다의 한복판에서 공화국기를 띄운 큰 뽕장운반선의 키를 잡고 조국을 향해 위훈의 닳을 올리는 남룡이가 그려졌다. 거기에 비하면 탄광구내가 너무 배좁아보이기도 했다. 드디어 갱장은 남룡이를 향해 말문을 열었다.

《2년세월이라... 그동안 자네 탄광에 와서 많은 일을 했네. 석탄도 많이 캐구, 또 이 늙은 갱장의 일손도 훌륭히 도와주었네. 암 그렇구말구, 오늘 일만 해도 그렇구... 자네 이젠 더 이상 탄광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리구 자넨 아무래도 바다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 받아야 할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예? 탄광을 떠나다니요?》

남룡이는 필쩍 뛰었다. 꿈에도 생각지 않던 일을 갱장이 제기해나섰기때문이다.

갱장은 남룡이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툭 털어 놓았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자기가 갈길이 따로 있는 법이네. 자네 경우에도 그렇구... 하지만 그걸 다 물어놓구 탄광에다 한생을 다 바치려는 자네의 그 마음 역시 훌륭하다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누구든지 사람이란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인생말년에 후회가 생기는 법이네. 그건 자네에 비해 훨씬 오래 산 내가 더 잘 아네... 그러니 여기 일은 걱정 말고 어서 돌아가게나. 이제 머지 않아 제대되어올 우리 아들녀석도 있으니 내가 못다한 일은 그에게 말기면 되네... 년로한 자네 아버지 생각을 해서도 그렇구 또 자넨 아무래도 바다에 가야 더 큰일을 해놓을수 있다고 생각하네...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전해주게, 이 늙은 탄부가 제 생각만 하다보니 다른 사람 생각은 영 할줄 몰랐다고 말이야... 대신 그동안

정도 폭 들었으니 내 자네의 잔치날에는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잡아서 걸머지고 찾아가겠네. 자네의 얼굴도 한번 더 볼겸...》

짐짓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하는 갱장의 주름진 눈가에는 이슬방울까지 맺히었다.

탄광을 떠나라는 갱장의 말에 필쩍 놀랐던 남룡은 그제야 갱장의 마음을 넘겨다보고는 오히려 납득이 될만한 말마디들을 골라서 했다.

《갱장동지는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시는군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탄광을 떠나는데 바라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가 꿈꿨던 청년기의 한시절에 나라를 위한 길에서 무엇인가 큰일을 하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를 타야 하지않을가 하고 생각했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제대를 앞두고 마음을 달리먹었습니다. 탄광에 와보니 내가 그렇게 결심한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였는가 하는 궁지도 생겼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좀 섭섭해할것 같아서 편지를 했더니 인차 회답이 왔더군요.》

《아버지가 편지에다 뭐라고 썼던가?》바투 다가 앉으며 묻는 갱장에게 남룡은 다 자란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유치원때처럼 칭찬을 했더라며 웃으며 말했다.

갱장은 호기심이 동해났다.

《아버지한테 편지를 뭐라고 써보냈길래 칭찬을 다 받았나?》

갱장은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귀를 송구었다. 남룡은 사실대로 말했다.

남룡은 바로 홍화갱입구에서 갱장을 만났던 그 날저녁에 편지를 썼다. 제가 탄광에 제대배당을 풀어놓은후에 보고 느낀 사실들과 함께 한 탄부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냈다. 머지 않아 환갑을 맞게 되는 그 탄부는 남룡이의 젊은 나이를 몹시도 부러워하면서 기특하게 생각하더라고 썼다. 그리고 땅속에 석탄은 무진장 묻혀있는데 그걸 다 캐내지못하고 늙은게 한이라며 서운해하던 사실도 써보냈다. 그러면서 남룡은 만약 자기와 같은 청년제대군인들이 제 생각만 하면서 탄광에 오지 않고 제 가고싶은곳으로 뿔뿔이 헤어졌더라면 그들이 하던 일은 누가 인계받으며 또 나라의 경제분야에서 석탄은 어떻게 보장하겠느냐고 했다.

남룡이의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인차 회답을 보내왔는데 아들을 여간만 칭찬하지 않았다.

《남룡아! 사실 아버지는 너를 의지에 훌륭드려내놓고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네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구나. 어데가서 무슨 일을 하던지 제몫을 찾아할줄 아는 큰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다. 큰몫을 맡았으니 더 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바이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남룡은 탄광에서 일하는 궁지도 더 깊이 간직하게 되었고 그만큼 일에도 열중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갱장은 남룡이를 멍해서 바라보았다. 자기 일생에서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앞에 세워놓은듯이...

나이로 하여 어쩔수 없었던 갱장의 눈도 더 밝아졌다.

우리 시대 인간들이 큰일을 한다는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철리도 새겨졌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실무적으로 인계받거나 제하고싶은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당이 요구하고 조국이 맡겨준 초소를 성실하게 지켜가는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그걸 세 세대 청년인 남룡이한테서 받아안았다고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고보니 갱장자신도 트락포르공장에서 일하지 못한것을 두고 그 무슨 삶의 공백이나 생긴듯이 허전해하던 그 마음마저 물로 씻은듯이 개운해졌다.

갱장의 마음이 흥건해질 때 푹푹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설계도면을 손에 든 세월이가 들어섰다. 그는 갱장쪽에 눈인사를 보내고나서 가지고온 설계도면을 남룡이앞에 펴놓았다. 《보안잔주탄》을 캐기에 앞서 지표수도랑을 메워버리기 위한 《교》설계 도면이었다.

《이만하면 마음에 드나요?》

먹줍내가 향긋이 풍기는 도면을 꼼꼼히 훑어보던 남룡이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직 작소. 더 크게...》

《어마나, 이것도 작으면 얼마나 더 크게...》

세월이는 엄청나다는듯이 입을 하! 벌리었다.

아직은 그 도면의 리치를 다 모르는 갱장이었으나 그가 뭔가 큰일을 벌려놓으려고 한다는걸 직감했다.

(큰일을 하는 사람!)

그렇다! 큰일은 태평양이나 우주공간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속에 있었다.

갱장은 도면을 열중히 들여다보고있는 남룡이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며 다정히 말했다.

《이보라구 남룡이! 아무리 큰일이 앞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환갑상을 받는 아버지에게 술 한잔이야 정히 부어드려야 할게 아닌가? 이젠 그만 들어가 쉬고 래일은 곧 떠나라구.》

남룡은 히죽이 웃었다.

《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환갑날자를 가스로 연기한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갱장은 펄쩍 뛰었다.

《아니 환갑날자를 연기하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남룡은 갱장을 존경의 눈길로 마주보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성미는 꼭 갱장동지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마니까요. ...아마 환갑날자를 미룬걸보면 물고기잡이계획을

수행해놓고 가을에 가서...》

갱장은 배군답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거 일이 섭섭하게 됐구만...》

《아닌게 아니라 저도 섭섭합니다. 이번 기회에 바다에 가면 배를 타고 푹 휴식하면서<보안잔주탄>을 캐낼 공리를 무르익히려고 했는데...》

그제야 갱장은 남룡이가 아버지앞에서 노를 인계받을 준비는 다 되였습니다 하고 장훈을 부르겠다던 말의 참뜻을 리해했다.

갱장은 남룡이에게 권한는 말을 한번 더 했다.

《허긴 앞뒤가 탁 트인 바다에서 공리를 하면 묘안이 빨리 떠오를런지도 모르지... 그러니 겸사해서 갔다오라구. 세월이한테 바다구경도 시킬겸...》

그 말끝에 세월이가 입을 종긋했다.

《갱장동지두 참... 제가 어떻게 거길...》

얼굴을 붉히는 세월이에게 갱장은 더욱 능청을 부리었다.

《애 세월아! 너 그러지 말고 남룡이를 단단히 붙잡거라. 남룡이가 바다에 갔다가 미역파는 처녀를 달고오면 넌 외토리가 돼. 외토리, 허허허.》

《호호호.》

《허허허.》

즐거운 봄밤이었다.

×

동갱골에 꽃피고 새 우짖는 계절이 다시 왔다.

온 탄광사람들의 축복속에 남룡이와 세월이는 결혼식상을 받았다. 그 주위에는 우리가 알고있는 일곱사람의 얼굴이 다 모여있었다.

남룡이와 그의 아버지.

세월이와 그의 아버지.

별기우리해진 얼굴에 기쁨을 한가득 담고 분주히 오가는 윤파순갱장과 비록 그자리에는 없어도 우리의 표상에 진하게 안겨오는 손채잔있는 단야공인 파순이의 아버지초상.

그런데 한사람만이 보이지 않았다. 두루두루 살펴보니 저쪽 울바자너머에 그 사람이 서있었다. 탄광기술공정실장이었다.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무슨 종이두루마리를 등뒤에 숨겨가지고 온 그는 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무슨 일인지?

아마도 남룡이와 세월이가 그토록 바라던《보안잔주탄》에 대한 채굴법이 완성되었나보았다.

만사람들의 눈길을 한데 모으며 찰칵! 하고 사타소리가 울렸다. 사진기렌즈의 밝은빛이 두 청춘녀의 모습을 필림에 담았다.

또하나의 장으로 펼쳐질 90 년대의 년륜은 이렇게 새겨져가고있었다.

신창탄광에서

## 평양아 인사를 받아다오 외 1 편

최치영

지금은 나

먼 서해간석지건설 돌격대원  
수천년 제멋대로 흐르던 날바다  
장쾌하게 타고안은 이 시각  
가슴속 깊은 목소리로 불러본다  
아 나의 평양아

내 이날을 위해

너의 품에 행복만을 누린 전사  
받아안은 그 사랑에  
의리로 보답하자고  
파도세찬 날바다에 달려나와  
몸과 마음인들 그 얼마나 바쳤던가

가슴은 뜨겁구나 평양아

키워준 사랑에 날바다 막으며  
바치는 효성을 저 푸른 제방 한끝에  
땀땀한 가슴펴고 다 맞닿수는 없어도  
너의 화려한 거리거리에  
받드는 그 마음만은 따라세우거니

아 평양아 인사를 받아다오

그대 품에 꽃길만을 걸은 나  
그대 키워준 담력과 의지로  
횡포했던 날바다 가로타고 앉아  
오늘에 바치는 간석지 새 땅을

어제 저 넓은 간석지엔

황금의 이삭들이 설레이리  
내 돌격대의 천막을 쳤던 자리엔  
눈부신 창문들이 열리고 열리리  
오탁들은 차판마다 무겁게 실려  
너의 화려한 집들에 가닿으리

아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그이 계시어  
내 파도세찬 간석지에 있어도  
조금도 외로움과 주저를 모르며  
뜨거운 심장으로 떠받든 평양

너는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있었다  
나의 뜨거운 숨결속에  
나의 심장으로 나와 함께 있었다

아 평양 평양아

그래서 너를 떠나 멀리 있어도  
마음의 평양은 더 가깝구나  
네 품에 값없이 누리는 행복보다  
청춘을 바쳐 오늘에 바치는 새땅과 함께  
너를 받드는 마음이 더 행복하구나

## 언제나 잊지 않으리

언제나 잊지않으리

잔술푸른 바다가기슭  
하얀 굴껍질 정답던 백사장  
배고동소리 굴착기소리 발파소리  
언제나 번거롭던 부두가 굽이굽이

아름다운 추억실고 안겨오누나

돌격대의 배낭을 벗어놓고  
불노을 비낀 수평선 바라보던 간석지  
해풍에 감실감실 탄 얼굴에  
파도를 맞받아 옷자락 날리며  
광차와 함께 달리고달리던 푸른 제방이

밀려오는 밀물에

바지가랭이 젖는줄 모르고  
잔물에 바위를 들추며  
게잡이 굴쫓기 즐겁던 도래굽이  
어머니 젖살같이 보드러운 감탕발에  
내 찍어가던 발자국발자국

아 언제나 잊지 못하리

파도를 헤치며 바다를 막은  
내 발자국은 지워졌어도  
그 발자국따라 해당화도 피었으리

황금의 벼이삭안고 그늬의 발자국  
푸른 제방 따라 또다시 짙히고짙히리

두번다시 오지 않을 청춘시절  
당의 높은 뜻 받들어  
나의 성실한 땀  
나의 높뛰던 심장  
나의 깨끗한 의리와 량심  
그 어디에나 남겨준 푸른 제방이여

그 기슭 새땅으로 해  
내 청춘의 심장 높뛰던 간석지  
그 기슭 찬란한 래일도 해  
추억도 아름다운 간석지

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조국의 새땅 넓힌 청춘의 자랑  
가슴가득 안겨준 그 바다가  
배고동소리 광차소리 파도소리...  
내 잊지 않으리 잊지 못하리

## 사랑 외 1편

장혜명

그때  
렬사를 발인하는  
로제의 행렬앞에  
분신한 몸으로 막아나선 너인  
그는 어머니였다

황황 치솟는 불길속에서  
불길보다 더 뜨겁게  
사랑의 타는 눈길로  
렬사의 령구를 막아선 젊은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은  
젖줄기에서부터 흐르고  
어머니는 한생을  
자식을 위해 산다 했건만

어찌하여 너인은  
인정이 얼어붙은 차디찬 세상에  
어린자식들을 내버리고  
열길나락에 목을 던졌던가  
잠결에도 고사리손이 더듬어찾는  
그 부른 젖가슴에 불을 질렀던가

오 그것은 사랑이었다  
가슴 헤쳐 젖을 물려본  
어머니만이 할수 있는 사랑이었리라  
백주의 네거리에서  
쇠몽둥이에 맞아 머리가 으깨지고  
스무살 부푸는 가슴에 무르익던  
청춘의 꽃봉오리 그 한잎 피워도 못본채  
무참히 무참히 짓밟혀진  
이 나라의 아들 강경대렬사...

이제 또  
너인의 아들딸도 자라  
오늘의 렬사가 가는 길을 가야 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은  
주금을 길러내는 젖일수 없고  
자식의 시신앞에 머리폴고  
역장을 무너내리는 통곡일수 없어

아아  
금지옥엽처럼 키운 아들딸들을  
더는 이렇게 빼앗길수 없어  
눈물이 비발로서는 로제의 행렬앞을  
눈물이 아니라  
온몸에 불을 붙여달고  
어머니는 죽음의 사랑으로 막아나섰거니

못간다 못가!  
어머니의 가슴을 딛고  
더는 한자식도 이렇게는 못간다  
불길로 치솟아오른 어머니의 웨침이여

통일을 안아키우려  
분렬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땅에  
이 땅 분렬겨레 누구에게나  
한가슴 터쳐 젖을 물린

아아  
조선의 아들딸이라면  
그 누구나  
통일의 효성으로 갚아드려야 할  
어머니의 사랑이여!

# 박수를 치자

- 《코리아유일팀》 축구경기를 보며 -

박수를 치자

박수를 치자

설음많은 조선민족아

오늘은 웃으며 박수를 치자

북과 남

하나의 팀이 되어

가슴펴고 당당히

세계앞에 나서게 된 오늘은

남의 나라 하늘밑에서

서로 부딪치며

승부를 겨뤄 마주서야 했던 우리 아니더냐

돌이켜보기조차 부끄러운

그 모욕과 수치가

마주치는 손벽에 부서지도록

박수를 치자

이날을 못보고 간 사람들

한을 못푼 그 녀들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이 듣게 박수를 치자

땅속에 있다면

땅도 울어 젖도록 박수를 치자

다시는

남남처럼 마주설수 없는 우리

이제 다시

서로 다른 국호를 달고 승부를 겨뤄야 한다면

겨레여, 차라리

우리는 통일을 바란적 없다고 하자

세계앞에서 더는

하나의 혈육이 둘로 갈라졌다고

눈물의 하소연도 하지 말자

아, 하나의 기발아래

하나의 팀으로 달리는 선수들과 함께

마음은 벌써

통일의 날에 살건만

아직도 통일은 앞에 있고

통일의 원쑤들은 칼을 물고 날뛰거니

분렬주의자들의 상관을 갈기듯

힘껏 또 힘껏 박수를 치자

울려가는 박수소리에서

세계는 우리의 통일의지를 들으리

통일의 원쑤들은 기절치고

분렬의 장벽은 허물어져내리리

아아, 북남 7 천만민족아

심장과 심장들을 쌍수로 높이 들어

박수를 치자